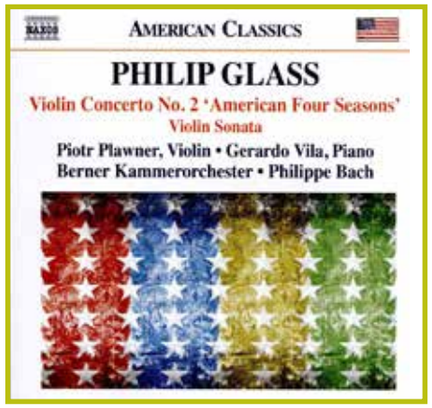


필립 글래스:
바이올린 협주곡 2번('미국의 사계') & 바이올린 소나타

표트르 플라프네르(바이올린), 헤라르도 비야(피아노),
베른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필립 바흐(지휘)

과거에 투영된 계절과 시대의 풍경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미국 현대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필립 글래스.
미니멀리즘의 대부 격인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바이올리니스트 로버트 맥더피의 제안으로 작곡된 '바이올린 협주곡 2번('미국의 사계')은 비발디의 '사계', 18세기 초 바로크 음악에 대한 가장 창의적 해석으로 남아 있다. 특히, '열린 해석'을 지향하는 작품의 면모는 감상자의 무한한 자유로움과 닿아있기도 하다.
음악 애호가이자 건축가인 마틴 머레이의 의뢰로 탄생한 '바이올린 소나타'는 브람스와 포레 그리고 프랑크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고 조화롭게 투영되어 있는 '불협화음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8559865 **[추천음반]**

NAXOS New Releases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폴 릴: 피아노 작품집
존 젠슨(피아노)
작곡가가 인정한 이상적인 해석자와 함께하는 작품들, 세련된 '절충'의 묘미

8559879

자크 카스테레데: 플루트를 위한 작품 2집
코버스 두 토이트(연주)
전통에 기반한 화려하고도 현대적인 변용

8573950

알렉산드르 탄스만: 기타 독주를 위한 음악 2권
안드레아 데 비티즈(기타)
지나간 시간 그리고 작곡가의 페르소나를 위한 헌사

8573984

안톤 루빈스타인: 피아노 소나타 1 & 2번, 세 개의 세레나데(Op.22)
한 첸(피아노)
북받치는 열정, 일렁이는 영혼의 잔향

8573989

페드로 페리아 고메스: 실내악 작품집
사라 서로우(클라리넷), 사울 피카도(피아노), 카를라 산토스(바이올린), 낸시 존슨(비올라), 미구엘 페르난데스(첼로)
고향 포르투갈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

8579029

치마로사: 서곡 작품 6집
파두리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닉 오케스타라(연주), 패트릭 갈루아(지휘)
최고의 명성에 걸맞는 기발한 영감 & 정치적 격변기 개인사가 배인 작품들

8574046

베토벤: 현악사중주를 위한 푸가와 희귀 작품집
파인아츠 현악사중주단(연주)
〈대푸가〉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의 뒷편, 또 하나의 소우주

8574051

윌리엄 마티아스: 합창 음악 작품집('5월의 마니피카트', '수수께끼', '한 아이 태어났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등 수록)
세인트 존스 보이스 & 젠틀맨 오브 세인트 존스(합창), 휴 크룩 & 샤나 하트(오르간), 그레이엄 워커(지휘)
황홀한 음향, 웨일즈의 보석 윌리엄 마티아스의 합창 음악 작품들

8574162

알베릭 마냐르: 교향곡 1 & 2번
프라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파브리스 볼롱(지휘)
불의의 죽음 그러나 현대 부활하는 강력한 영감

8574083

비도르: 오르간 교향곡 작품 1집(오르간 교향곡 1 & 2번)
천상의 빛과 평온을 머금은 고아한 잔향, 비도르의 영원의 시선 첫 발걸음

8574161

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Aulos media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E동 1404~5호
전화: (02)922-0100 팩스: (02)922-2522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배포 및 제품 판매처]
전국 교보핫트랙스 매장/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뮤직랜드/ 풍월당/ 예전레코드/ 올리버/ SJA 뮤직/ 소녀스/ 드림레코드

아울로스 뉴스지 82호
8 809090 673444

www.aulosmedia.co.kr
www.facebook.com/aulosmedia
http://blog.naver.com/aulosmedia

Aulos news

아울로스 뉴스 제 82호 | **February 2020**

***Key Issue**

Aulos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동요베스트 123'** 4CDs

EuroArts **덴마크 심포니 – SF영화음악콘서트 '갤럭심포니'** BD

Berliner Phil.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9CDs + 4BDs

***Cover Story**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 우리 동요 베스트 123 4CDs

Key Issue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동요베스트 123' 4CDs 3
덴마크 심포니 – SF영화음악콘서트 '갤럭심포니' BD 4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9CDs + 4BDs 5
떠돌이별 임의진의 〈담양 여행 3집〉 CD 64
KBS클래식FM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Vol.1,2,3〉 CD ... 65

Cover Story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동요 베스트 123 4CDs 6-7

CD

Accentus 8
Alba 9
ARC 9
Bachstiftung 10
Berliner Philharmonic 10-11
BR Klassik 12-13
Brilliant 14-20
Calliope 21
CD Accord 22-24
Cedille 24
Dacapo 25
Drama Musica 25
Dynamic 26
Gramola 26-28
Grand Piano 28-29
IBS 30
Indesens 30-33
Inventa 34
Naxos 34-51
Ondine 52
Orchid 52-53
RCO Live 53
Resonus 54
SDG 54
Silk Road 55
Simax 55-56
Solo Musica 56-57
Sono Liminus 58
Steinway & Sons 58-59
Stone 60
Swedish Society 60
Tactus 61
Tafel Musik 61
Toccata 62
Tonkunstler 63
Winer Symphoniker 63

DVD & Blu-ray & LP

Accentus 66-68
Arthaus 69-70
BelAir 71-74
Belvedere 75
C Major 76-80
Dynamic 81-83
EuroArts 84-87
Naxos 88-92
OpusArte 93
RCO Live 94-95

LP

Berliner Philharmonic 96-97
Silk Road 97-98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수준 높은 우리 창작 동요 123곡의 아름다운 동요가 고품격, 고음질의 명반으로 재탄생

아동 문학가들이 지은 가사, 전문 작곡가들이 만든 서정적인 멜로디의 아름다운 우리 동요. 우리의 동요는 상당한 음악적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어린 시절의 순수함과 활력, 서정성,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정신문화적 자산이기도 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다작의 수준 높은 창작 동요를 보유한 우리지만 이제까지 동요가 그 격에 맞는 수준 높은 반주와 퀄리티 높은 음원으로 정리된 바가 없었다.

AMC2–185 **[4CDs]**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동요 베스트 123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AUTUMN

겨울 WINTER

본 앨범은 최초의 한국 창작동요(1924년, 윤극영의 [반달])가 탄생한 지 96년 만에 처음 만들어진 '웰메이드' 동요 앨범이다. 2017년 1월 시작해 제작 기간 2년 10개월, 이 중 녹음 기간만 10개월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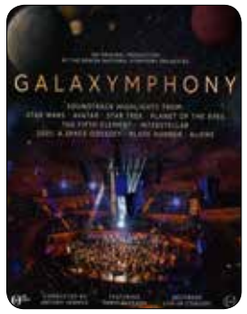
제작 참여 인원 총 65명, 가창 어린이 47명이 참여했으며 국내 최고의 레코딩 스튜디오 〈인피니티〉, 그래미어워드 레코딩 부문 수상에 빛나는 황병준의 믹싱, 마스터링을 거쳐 레코딩실의 공기까지 표현한다는 24bit 48kHz의 초고음질의 음원으로 만들어졌다.

본래 기획 단계에서는 대중문화와 모바일, SNS에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낯 뜨거운 노래가사를 따라 부르거나, 동요라기엔 자극적이고 빠른 전자 사운드로 점철된 '패스트 푸드'와 같은 조미료 범벅의 음악들을 들으며 성장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며 스탭들이 의기투합했는데, 막상 음원이 완성되고 나니 여러 '어른'들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난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같다", "내가 듣고 싶고 엄마에게 선물하고 싶다"라는 평을 내놓아 '중장년층'을 위한 컨셉으로 먼저 출시하기로 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내게 불러주던 노래, 친구들과 함께 목청껏 부르던 노래, 아이에게 내가 불러주던 노래, 이제는 온전히 나를 위해 듣고 노년의 부모님께도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 동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_ 우리 동요베스트 123]와 함께 짧은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이 작고 예쁜 노래들을 들으며 포근했던 그 시절의 웃음 많은 아이로 되돌아가보자. 밝음으로 가득한 음악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매서운 현실을 이길 것은 언제나 나의 따뜻한 가슴뿐이므로.

진정한 SF영화의 마니아는 이 영상물로서 완성된다!
덴마크 심포니 – SF영화음악콘서트 '갤럭심포니' Blu-ray

2018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세계적인 게임음악콘서트를 선보여 화제를 낳았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이 2019년에 SF영화의 수록곡을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선보인 실황물이다. 스페이스 오딧세이, 아바타,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인터스텔라 등은 물론 SF영화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여러 음악을 모음곡으로 선보이며 많은 이들을 사로잡은 이 영상물은 무대도 디자인과 조명 효과 역시 환상적이어서 한편의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듯하며, 성우 다비스 바테손이 직접 출연하여 영화 '히트맨'의 에이전트47(47 요원)의 목소리를 연기하기도 한다.



EuroArts 2065214 **[Blu-ray]**

덴마크 심포니 – SF영화음악콘서트 '갤럭심포니'
앤서니 헤르무스(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 코펜하겐 실내합창단 · 힘니아 실내합창단,
다비드 바테손(성우 · 나레이션)

[보조자료]

2018년 8월 코펜하겐 콘서트홀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바이오쇼크' 등 게임 속 배경음악을 선보이며 화제가 낳았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이 이번에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클래식과 OST를 선보여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①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스페이스 오딧세이)
② 아바타 모음곡(아바타)
③ 에이리언 테마(에이리언)
④ 블레이드 러너 모음곡(블레이드 러너)
⑤ 인터스텔라 모음곡(인터스텔라)
⑥ '디바의 춤'(제5원소)
⑦ 스타트렉 멜로디(스타트렉)
⑧ '노 이스케이프'(혹성탈출)
⑨ 스타워즈 메인테마
⑩ 루이크와 레이아 테마
⑪ 황제의 행진(스타워즈 에피소드4)
⑫ 피날레와 트론의 방(스타워즈 4) 등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작들의 음악을 모음곡과 메들리로 구성한 17곡이 트랙을 채운다.

2019년 말에 출시된 이 영상물은 2019년 최고의 화제작 '스타워즈: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하기 직전에 출시되어 '스타워즈'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다. 공상과학영화를 다룬 만큼 공연을 잡아내는 카메라 워킹이나 무대 연출력도 압도적이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중후한 신사 같은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이러한 영상미와 끼를 어떻게 숨겨 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매력적인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을 선사하는 듯 흘러간다. 무대 역시 시각적 디자인과 조명 효과가 환상적이며, 마치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듯하다. 종종 영화나 게임음악을 올리는 런던 필하모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헐리우드의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하는 성우 다비스 바테손이 직접 출연하여 영화 '히트맨'의 에이전트47(47 요원)의 목소리를 연기하기도 한다.

베를린 필 연주사에 찬란히 빛나는 작곡가 브루크너 8명의 지휘자와 함께 떠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CD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베를린필이 연주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9곡을 8명의 거장 지휘자에 의해 연주된 전집이 발매된다. 베를린필 연주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작곡가 브루크너. 지금까지 수많은 녹음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이 음반에 함께 한 8명의 브루크너 지휘자들이 각각의 해석을 선보인다. 지휘자의 라인업만큼 화려한 CD 9장, 그리고 총 9곡의 라이브 영상을 담은 블루 레이 디스크 3장, 더 선명한 음질이 담긴 블루 레이 오디오 디스크 1장이 포함되어 있다.

BPHR 190281

베를린 필 연주사에 찬란히 빛나는 작곡가 브루크너
8명의 지휘자와 함께 떠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9CD + 4Blu-ray / 1Blu-ray Audio, 3Blu-ray Video]

[박스구성]

*** CD1~9 : 교향곡 1-9번**

*** Blu-ray Audio Disc 1 :**
교향곡 1-9번
(2.0 PCM Stereo 24bit / 48kHz / 5.1DTS-HD MA / 24bit / 48kHz)

*** Blu-ray Video Disc 1-3 :**
교향곡 1-9번
(화면: Full HD 1080 / 60i, 16 : 9 /
오디오사운드: 2.0 PCM Stereo 5.1 DTS-HD MA / 지역: All / 총수록 시간: 639분)
인터뷰: 각 지휘자가 이야기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37분)

*** Accompanying booklet : 108 pages / German, English**

[디지털 쿠폰]
* 고해상도 · 다운로드 코드 [24bit / 48kHz]
* 디지털 콘서트홀 7일 무료 시청

"어린시절을 소환하는 노래,
치유의 힘을 가진 우리 동요.
최고의 음질과 **최고의 연주**로 만든
고품격 동요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께 바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동요 베스트 123... "봄, 여름, 가을,,,,,그리고 겨울"

AMC2-185 **[4CDs]**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동요 베스트 123

봄 SPRING
여름 SUMMER
가을 AUTUMN
겨울 WINTER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오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이라는 가사의 〈어린이날 노래〉(윤극영 작곡)는 1948년에 작곡되었지만, '어린이날'이 처음 지정된 것은 일제 강점기이던 1923년 5월 1일이다. '딸년' '아들놈' 등으로 불리며, 성인을 기준으로 아직 미숙하던 존재로 인식되던 아이들에게 '어린이'라는 새 이름과 세대명을 지어준 이는 방정환(1899~1931)이었다. 참고로 음반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이 발매되는 2019년은 방정환 탄생 120주년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방정환은 1923년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를 위해 발간한 월간 〈어린이〉의 창간사에 다음과 같이 적었다.

"새와 같이 꽃과 같이 앵도 같은 어린 입술로 천진난만하게 부르는 노래. 그것은 그대로 자연의 소리이며, 그대로 하늘의 소리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토끼와 같이 부드러운 머리를 바람에 날리면서 뛰노는 모양 그대로가 자연의 자태이고 그대로가 하늘의 그림자입니다. 거기에는 어른들과 같은 욕심도 아니하고 욕심스런 계획도 있지 아니합니다. 죄 없고 허물없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하늘나라! (…) 이 모든 깨끗한 것을 거두어 모아내는 것이 '어린이'입니다."

방정환은 어린이를 성인이 되지 못한 미완의 존재가 아닌 문화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그 세대만의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여겼으며, 어린이야말로 장차 세상을 이끌어갈 꿈나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

[녹음후기,,, 동요베스트 123곡이 만들어지기까지]

어린이를 위해, 어린이에게 맞춘 음악인 동요는 쉽고 아름다운 선율에 어린이의 순수함과 활력, 서정성,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노랫말이 얹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동요는 어린 시절의 정서 함양과 상상력의 자양분이 되죠. 이러한 어린이들의 노래 '동요'가 점점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중문화와 모바일, SNS에 익숙한 요즘 어린이들이 동요보다 어른들의 노래를 쉽게 접하고 뜻도 모르는 가사를 따라 부르며, 어른들의 춤을 따라 출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어린이가 자신들의 노래인 동요를 즐겨 부르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길 바라며 그 꿈과 뜻을 모아 이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 1월 시작해 제작 기간 2년 10개월, 제작 참여 인원 총 65명, 가창 어린이 47명, 녹음 기간 10개월... 요즘처럼 동요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좀처럼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듯 좋은 음악을 좋은 소리로, 제대로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예술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으며 지금까지 애창되는 노래 중 우리나라 시대별 아름다운 순간들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동요 명곡 123곡을 담았습니다.

원곡 그대로의 느낌을 살리며 간결하지만 동요의 품격을 살릴 수 있도록 두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미디나 전자악기 대신 실내악 편성의 실제 연주를 바탕으로 녹음했고, 다양한 음악 장르를 이용한 편곡을 통해 듣기 편안하고 따뜻한 음악으로 완성했습니다.

또한 24bit 48kHz의 고음질 녹음을 통해 기존에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동요의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을 자라게 하는 동요의 아름다움과 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려져 있는 우리 동요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설윤 (작가)

디지털 음원 서비스 시작

감성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클래식 동요베스트 123
VOL.1 [디지털음원 66곡]

감성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클래식 동요베스트 123
VOL.2 [디지털음원 57곡]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music

ACC30474

브루크너 : 장송 음악 작품집(레퀴엠 등)

요한나 빙켈(소프라노), 조피 하름젠(알토), 미카엘 페이파르(테너), 루드비히 미텔함머(바리톤), 리아스 실내 합창단(합창), 베를린 고음악아카데미(연주), 우카슈 보로뷔츠(지휘)

죽음을 대하는 브루크너의 시선 & 천상의 빛을 머금은 신비로운 반향

교향곡과 종교 음악을 통해 브루크너가 일생에 걸쳐 쌓아올린 '천상의 탑', 그 첫걸음은 1849년 친구인 프란츠 자일러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작곡한 〈레퀴엠〉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음반은 '천상의 영광'(〈테데움〉)에 이르는 브루크너 종교 음악의 노정을 '장송음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신의 자비를 닮은 '베네딕투스'의 온기, 천상의 빛을 머금은 신비로운 반향 속에서 떠오르는 죽음의 이미지는 공포라기보다 삶과 (죽음이)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신의 섭리처럼 '평온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세계 최초로 모습을 드러내는 〈이퀄리스〉 2곡과 〈부고〉, 〈구원〉은 음반의 가치를 높인다.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음반. 강력 추천한다.

*** '이퀄리스'(12번 & 14번 트랙), '부고'(18번 트랙), '구원'(2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ACC30469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BWV. 248)

도로시 밀즈(소프라노), 엘비라 빌(알토), 패트릭 그랄(복음사가), 마르쿠스 쉰페르(테너), 클라우스 헤게르(베이스),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합창단(합창),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연주), 고톨트 슈바르츠(칸토르 · 지휘)

그리스도 탄생 당시를 재현한 듯한 담백하고 온화한 반향이 일으키는 '아우라'

'S.D.G(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라는 문구가 보여주듯 바흐는 음악을 통해 '신의 한수'로 이루어진 세상의 원리를 궁구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일생을 바쳤다. '세상의 조화'가 담긴 그의 작품 세계 중에서도 종교 음악 특히, '메시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수난곡'과 '크리스마스' 그리고 '부활절'은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1734년 크리스마스를 위해 작곡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규모와 구성 등 바흐가 작곡한 나머지 2곡의 오라토리오를 능가하는 대작이다. 본 음반은 2018년 12월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 실황을 담고 있다. 바흐 시대 공간, 그리스도 탄생 당시를 재현한 듯한 담백하고 온화한 반향을 일으키는 '아우라'. 바흐 당시 분위기는 물론 작품 속에 담긴 바흐의 정신세계까지도 닿을 수 있는 귀중한 성과라 하겠다.

Alba www.alba.fi

ALBA

ABCD 445

쿨라: 피아노 음악 전곡

야네 옥사넨(피아노)

사회의 혼란 속에서도 북구의 낭만을 잃지 않은 젊은 영혼

핀란드의 작곡가 토이보 쿨라는 시벨리우스의 제자로, 작곡과 지휘를 중심으로 음악 활동을 했다. 하지만 핀란드 시민전쟁에서 총에 맞아 35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음반은 그의 작품목록의 한 축을 이루는 피아노 음악 전곡을 수록했다.

쿨라의 음악은 명쾌한 무곡풍의 리듬, 그리그를 연상시키는 서정적인 선율, 독일풍의 풍부한 화음 등 다양한 스타일을 구사한다. 〈축제 행진곡〉은 장대하고 거대한 음향을, 〈동화 그림, Op. 19〉은 서정미의 극치를 들려주며, 〈6개의 피아노곡, Op. 26〉은 쿨라의 다양한 음악세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ARC www.arcmusic.co.uk

ARC Music

EUCD2862

'사랑하세요?'

오타바 요

세계를 시골 마을의 축제로 만들고 있는 오타바 요의 러시아 민속음악

'오타바 요'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의 민속음악 연주단체이다. 이들은 러시아의 민속음악을 민속적인 창법과 함께 휘슬, 백파이프, 팬플루트, 피들 등 민속악기를 사용하면서, 드럼과 일렉기타 등 오늘날의 다양한 악기들을 조합하여 새로운 사운드로 만든다. 다양한 악기들이 만드는 색다른 음색과 즉흥적인 꾸밈음, 다이나믹이 제거된 직설적인 보이스는 이국적이면서도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는 축제의 장에 초대한다. 이와 함께 오늘날 밴드 악기들의 사운드와 어우러져 오늘의 감성으로 더욱 강렬하게 타오른다.

Bachstiftung

www.bachstiftung.ch

J.S. Bach-Stiftung

B671

바흐: 칸타타 29집(BWV.83 & 115 & 147)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오케스트라(연주),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 합창단(합창), 루돌프 루츠(지휘)

'신의 섭리'를 연상시키는 유유하고 도도한 흐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연주

2019년 마지막을 장식하는 스위스 장크트갈렌 J.S. 바흐 협회의 〈바흐 칸타타〉 29집. '새로운 계명(언약)으로 기쁜 날'(BWV.83), '준비하라 나의 영혼아'(BWV.115),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BWV.147)가 수록되었다. 크리스마스와 한 해의 끝자락 그리고 새로운 시작. 칸타타는 '처음과 끝', '빛과 구원이자 생명'인 그리스도의 탄생을 노래하는 한편 그 분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과 함께 '재림과 심판'의 시간을 일깨우며 '세월을 아끼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 물 흐르듯 유유히 흘러가는 화성의 흐름이 압도적으로 다가오는 연주는 '신의 섭리'를 연상시킨다. 자연스레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는 연주. 지나온 그 시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원했던 것, 지금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음반과 함께 정리해볼 것을 추천한다.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 190281

베를린 필 연주사에 찬란히 빛나는 작곡가 브루크너
8명의 지휘자와 함께 떠나는 브루크너 교향곡 전집
(9CD + 4Blu-ray / 1Blu-ray Audio, 3Blu-ray Video)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베를린필이 연주한 브루크너의 교향곡 9곡을 8명의 거장 지휘자에 의해 연주된 전집이 발매된다. 베를린필 연주 역사에 찬란히 빛나는 작곡가 브루크너. 지금까지 수많은 녹음이 세상에 나와 있지만 이 음반에 함께 한 8명의 브루크너 지휘자들이 각각의 해석을 선보인다. 지휘자의 라인업만큼 화려한 CD 9장, 그리고 총 9곡의 라이브 영상을 담은 블루 레이 디스크 3장, 더 선명한 음질이 담긴 블루 레이 오디오 디스크 1장이 포함되어 있다.

[박스구성] * CD1~9 : 교향곡 1-9번
* Blu-ray Audio Disc 1 : 교향곡 1-9번 (2.0 PCM Stereo 24bit / 48kHz / 5.1DTS-HD MA / 24bit / 48kHz)
* Blu-ray Video Disc 1-3 : 교향곡 1-9번 (화면: Full HD 1080 / 60i, 16 : 9 / 오디오사운드: 2.0 PCM Stereo 5.1 DTS-HD MA / 지역: All / 총수록 시간: 639분) 인터뷰: 각 지휘자가 이야기하는 브루크너 교향곡 (37분)
* Accompanying booklet : 108 pages / German, English

[디지털 쿠폰] * 고해상도 · 다운로드 코드 [24bit / 48kHz] / * 디지털 콘서트홀 7일 무료 시청

[음반별 수록곡]

[CD1/ BD1] Bruckner: Symphony No. 1 in C minor (1865/ 66 린츠버전) 49'18
Berliner Philharmoniker, Seiji Ozawa / 녹음: 2009년 1월 29~31일
베를린필은 이 세이지 오자와의 연주에 이르기까지 반 세기동안 이 작품을 연주하지 않았다. 브루크너는 이 교향곡을 '시건방진 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당시 40대 초반으로, 본격적인 교향곡 작곡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이미 그 울림은 브루크너 자신의 어법을 내비치고 있었다. 후에 따라올 대 성공을 예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CD2/ BD1] Bruckner: Symphony No. 2 in C minor (제 2판 1877년 버전) 56'38
Berliner Philharmoniker, Paavo Järvi / 녹음: 2019년 5월 23~25일
교향곡 2번은 초기 작품이지만 브루크너의 개성이 넘쳐흐른다. 파보 예르비의 지휘로 표현된 긴장감과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들을 수 있다.

[CD3/ BD1] Bruckner: Symphony No. 3 in D minor 'Wagner Symphony' (1873년 버전) 63'25
Berliner Philharmoniker, Herbert Blomstedt / 녹음: 2017년 12월 8~10일
1873년 초고가 완성된 교향곡 제 3번은 바그너에게 헌정된 곡으로, '바그너 교향곡'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874년 빈 필에서 초연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교정 작업을 시작, 3번째 버전까지 존재하고 있다. 블롬슈테트는 20세기 중반에 새롭게 다시 대두된 1873년 초판 버전을 채택하여 연주하였다.

[CD4/ BD2] Bruckner: Symphony No. 4 in Eb Major 'Romantic' (1878/ 80년) 68'30
Berliner Philharmoniker, Bernard Haitink / 녹음: 2014년 3월 13~15일
브루크너의 교향곡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4번. 호론을 시작으로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 차 있다. 하이팅크는 지난 몇십년간 베를린필과 함께 연주해왔고 이 녹음 1996년 이후 18년만에 베를린필과 함께 연주한 작품이다.

[CD5/ BD2] Bruckner: Symphony No. 5 in B flat major 74'42
Berliner Philharmoniker, Bernard Haitink / 녹음: 2011년 3월 10~12일
제 5번 교향곡은 작곡가로서의 브루크너와 한 인간으로서의 브루크너가 직면한 어려운 시기를 상징한다. 작곡가로서의 실력을 입증하는 위대한 대위법과 브루크너 본인의 깊은 신앙심을 나타내는 신성한 작품이다. 하이팅크는 장대한 스케일을 가진 이 작품을 충실하게 연주한다.

[CD6/ BD2] Bruckner: Symphony No. 6 in A major 54'18
Berliner Philharmoniker, Mariss Jansons / 녹음: 2018년 1월 25~27일
6번 교향곡은 2.3악장만 먼저 공개되었다. 부분 공개지만 초연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교향곡 제 6번이 전곡 초연된 것은 브루크너의 죽음 이후였다. 이제껏 베를린필과 수 많은 공연을 해왔던 마리스 얀손스지만 의외로 브루크너를 함께 연주한 것은 이 공연이 최초이다. 딱 맞는 오케스트라와의 호흡과 마리스 얀손스의 원숙미 넘치는 깊은 표현이 돋보이는 연주에 매료될 것이다.

[CD7/ BD3] Bruckner: Symphony No. 7 in E Major 70'32
Berliner Philharmoniker, Christian Thielemann / 녹음: 2016년 12월 15~17일
1884년 12월 라이프치히에서 초연된 교향곡 7번은 대 성공을 거뒀고 이 작품으로 인하여 브루크너는 작곡가로서의 명성을 걷머쥐었다. 아름다운 선율과 풍부한 색채의 오케스트레이션은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는 작품이다. 틸레만은 지금까지 교향곡 4번, 8번을 베를필과 연주했지만 이 교향곡 7번은 높은 집중력과 압도적인 완성도로 베를린의 청중들을 열광시켰다.

[CD8/ BD3] Bruckner: Symphony No. 8 in C minor 81'14
Berliner Philharmoniker, Zubin Mehta / 녹음: 2012년 5월 15-17일
1892년 12월 한스 리히터가 지휘한 빈 필하모니에 의해 초연되었고 이 작품 역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브루크너가 완성한 마지막 교향곡이자 최고의 걸작으로 평가되는 교향곡이다. 곡의 길이와 다채로운 전개, 압도적인 절정까지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의 작품을 크게 웃돌았으며 브루크너의 강렬한 개성이 이 작품에 벅찬 에너지를 제공했다. 주빈 메타 역시 이 놀라운 대작으로도 원숙미 넘치는 명 연주를 선보였다.

[CD9/ BD3] Bruckner: Symphony No. 9 in D Minor (사마레, 필립스, 코어스, 마주카의 초고들로 완성된 4악장 완성본,1985-2008년, 2010년 개정판) 77'09
Berliner Philharmoniker, Sir Simon Rattle / 녹음: 2018년 5월 26일
미완성의 대작 교향곡 9번. 최종 악장을 완성하지 못하고 1896년 브루크너는 사망한다. 제 3악장까지의 연주도 많이 있지만 사이먼 래틀은 1983년부터 2010년까지 완성된 4악장 완성 버전을 연주하였다. 사마레, 필립스, 코어스, 마주카 4명의 작곡가와 음악 학자들에 의한 매우 복잡한 공정을 거쳐 완성된 개정판에 사이먼 래틀 역시 매우 만족, 2011년과 2012년 베를린필과의 연주가 큰 화제가 되었다. 사이먼 래틀은 지난 시즌(2018년) 재 연주를 희망하였고 그 연주가 이 박스에 담겨졌다.

BR Klassik *www.br-klassik.de*

900185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0번
마리스 얀손스, 지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얀손스가 들려주는 가장 진일보한 쇼스타코비치
마리스 얀손스는 지금까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10번을 공식적으로 총 2장을 남겼는데 모두 상당한 호평을 받은 음반들이었다. 앞선 필라델피아, 콘세르트허바우의 음반에서 보여주었던 유려한 아름다움과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음반이 등장했다. 2010년 3월 헤르쿨레스 잘에서 녹음한 실황으로 이전보다 훨씬 확장된 스케일과 날카로운 공격성이 돋보이는 명연으로 포효하는 금관, 단호하게 찍어내리는 타악군의 구사가 작품에 실린 추상같은 메세지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얀손스의 가장 진일보한 쇼스타코비치 음반이다.

900329
이 시대 최고의 오페라 합창 음반
이반 레푸치칙(지휘)/ 바이에른 방송 합창단/ 뮌헨 방송 교향악단
유명 오페라 합창곡집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예 지휘자 이반 레푸치칙은 현재 바이에른 방송의 후원을 받는 뮌헨 방송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현재 BR클래식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유명 오페라 전곡 녹음을 성공리에 진행 중이다. 동명의 유명 오페라 합창 편집앨범은 DG에서 발매한 시노폴리의 음반이 오랜 세월동안 베스트셀링 음반으로 자리 잡아왔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넘겨주어야 할 때가 왔다. 오페라 전문 지휘자로서의 균형감각과 다이내믹, 합창단과 오케스트라의 상성이 맞아떨어진 이 시대 최고의 오페라 합창 음반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900180
베토벤 교향곡 9번
베르나르드 하이팅크(지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하이팅크와 BRSO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이 음반은 베르나르드 하이팅크가 생전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었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과가슈타익에서 가졌던 고별 무대로 지난 2월 20일부터 23일간의 실황을 담아내고 있다. 65년간 지휘자로서 꾸준히 펼쳐냈던 온건함 속의 디테일은 마지막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나며 특히 3악장 아다지오의 서정미는 눈물을 자아낼 만큼 아름답다. 녹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지막 무대에서도 특유의 우아함을 잃지 않고 음악의 본질을 설파하는 거장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15분의 박수가 쏟아진 이번 실황을 놓치지 말길 바란다.

900009
말러: 교향곡 7번
마리스 얀손스 &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밤의 노래'라는 타이틀이 붙은 독특한 뉘앙스의 2,4악장이 인상적인 말러의 7번
교향곡은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정교한 개인기를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작품으로 손꼽힌다. 2007년 3월 8/9일 뮌헨 가스타익 필하모니에서의 실황을 편집수록한 이 음반은 독일 최정상급 악단으로서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의 위상을 뚜렷이 보여준다. 미스테리한 이 괴작을 일목요연하게 풀어나가는 얀손스의 혜안 역시 출중하다.
***403571900101(BR Klassik) SACD와 동일한 음원입니다.**

900182 **[BR Klassik 카탈로그 동봉]**
슈트라우스: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 '부를레스케'
(2017년 뮌헨 실황)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 다닐 트리포노프(피아노)
얀손스에 의해 슈트라우스가 별이 되는 순간
아바도(1933~2014)의 죽음을 베를린 필하모닉 자체 레이블이 기념하며 양질의 기록들을 내놓았던 것처럼 BRSO도 얀손스(1943~2019)의 죽음을 기념비 같은 음반과 영상물을 통해 애도하고 기억하고자 한다. 2003년 취임 이후 자체 레이블을 통해 꾸준히 실황을 발매해온 BRSO가 얀손스 사후에 거의 첫 번째 격으로 이 앨범을 내놓았다. 2017년 10월 12~13일 뮌헨 헤라클레스홀 실황으로, 취임 이후 말러 · 슈트라우스 등 후기 낭만주의에 방점을 찍어온 얀손스가 슈트라우스를 향한 모든 애정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게 몸소 체험되는 녹음이다. 슈트라우스의 선율미와 얀손스 특유의 박진감 있는 지휘와 섬세한 헤안, 녹음 기술력이 한데 모아진 훌륭한 '합작'이다. 트리포노프가 함께 하는 '부를레스케'를 독주의 개성은 물론 악단과의 합주에 있어서도 만점의 수준이다. 얀손스냐, 트리포노프냐를 고민해도 좋을 수작의 녹음이다.

900183
슈체드린 카르멘 모음곡, 레스피기 로마의 소나무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
우리 시대의 거장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
지난 11월 30일 타계한 마리스 얀손스와 BRSO의 신보. 특히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는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6개월 전의 녹음이라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연주이다. 슈체드린의 카르멘 모음곡은 이미 동곡의 명연으로 손꼽히는 플레트네프/RNO의 음반에 비해 밀도가 높고 한층 윤기가 더해진 생동감 넘치는 명연이다. 관현악의 마법사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는 카라얀이나 마젤의 쟁쟁한 명연들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명연으로 BRSO 특유의 어두운 텍스처, 얀손스의 장악력이 작품이 지닌 특유의 신비로운 분위기와 맞물려 개성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명연이다.

900168
스트라빈스키 '봄의 제전' & '불새' (2009 · 2016 실황)
마리슨 얀손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스트라빈스키와 더불어 진화하는 마에스트로
20세기를 빛낸 스트라빈스키의 위대한 '봄의 제전'과 '불새'에 대한 얀손스의 애정은 끝이 없다. 오슬로 필과의 '불새'(Simax)와 '봄의 제전'(EMI), 로얄 콘세르트허바우와 함께 2008년에 같은 곡목으로 낸 음반(RCO 08002) 등을 살펴보면 얀손스는 스트라빈스키와 함께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과거에 '불새'의 찬란한 색상과 '봄의 제전'의 강렬한 원시주의가 돋보였던 반면, BRSO와 함께 한 이 음반 속 '봄의 제전'(2009년 가슈타익홀)과 '불새'(2016년 헤라클레스홀) 실황에는 음 하나의 터치까지 세밀하게 다듬어진 연주가 인상적이다. '봄의 제전'도 우아할 수 있다니! 여기에 실황녹음의 탁월한 생동감도 일품이다.

Brilliant Classics

www.brilliantclassics.com

Brilliant Quintessence 시리즈

인류가 기억해야 할 유산을 기록하고 발매해 온 브릴리언트 클래식스에서 진수 중의 진수를 모은 '퀸테센스 시리즈'를 발매했다. 전곡 녹음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이 시리즈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장들의 연주로 위대한 작곡가들이 평생을 통해 이룩한 예술적 위업을 접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96040
베토벤: 교향곡 전곡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시간이 지나도 고전의 명연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기쁨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는 독일–오스트리아의 고전음악에 명성을 얻었으며, 특히 베토벤 해석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 음반은 독일 동부를 대표하는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 함께 1970년대 후반에 녹음한 음원으로, 블롬슈테트의 규범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음색과 구 동독에서 보존되어온 고상한 음향이 만나 최고의 베토벤 해석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극적인 표현에 충실하면서도 과장되지 않으며, 각 작품이 가진 고유의 메시지를 충분히 표현하는 뛰어난 전달력을 갖고 있다. 고전의 명연이 주는 절대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96041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전곡
클라라 뷔르츠(피아노)
모차르트의 소나타가 가진 고유한 정신이 깨어나는 명연
클라라 뷔르츠는 헝가리 태생으로 암스테르담에 정착하여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이다. 그녀는 고전과 낭만의 주요 레퍼토리를 집중적으로 연주하고 있으며, 특히 모차르트의 소나타에는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소나타 전곡을 수록한 이 앨범은 1998년에 녹음한 음원으로, 오늘날까지 모차르트 연주의 교과서로 청취되고 있다. 흐트러지지 않는 템포와 규칙적인 리듬, 일정하게 유지되는 음색은 놀라울 정도이며, 이러한 담백한 연주를 통해 모차르트의 각 소나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음악적 정신이 비로소 깨어난다.

96042
바흐: 마태수난곡, 요한수난곡
게반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마우어스베르거(지휘), 비르투오시 삭소니애, 귀틀러(지휘)
1970년 라이프치히의 마태 연주 기록과 최소 편성에 의한 요한 연주
바흐가 거쳐 간 여러 장소 중 가장 오랫동안 머문 곳, 그리고 최후의 순간에 머문 곳은 라이프치히였다. 이곳에서 바흐의 많은 대규모 걸작들이 탄생했으며, 오늘날에는 일종의 성지처럼 인식되고 있다. 바흐의 〈마태수난곡〉도 이곳에서 작곡되었으며,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 관현악의 연주는 아카이브로 전해오고 있으며, 이 앨범은 소중한 1970년의 기록을 수록했다. 페터 슈라이어와 테오 아담의 노래는 영혼 깊숙이 전달된다. 〈요한수난곡〉은 소수에 의한 연주로서, 다이나믹한 극적 표현이 남다르다.

96043
드보르자크: 교향곡 전곡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오트마 쥐트너(지휘)
드보르자크의 음악에 깃든 고전의 전통이 빛을 발하는 쥐트너의 명연
구 동독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지휘자인 오트마 쥐트너가 지휘한 드보르자크의 교향곡 전집이다. 쥐트너는 규범적인 음색과 풍부한 음향, 빈틈없는 구성력으로 많은 명연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의 음반은 구하기가 힘들어져 애호가들이 수소문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쥐트너의 음반이 출시된 것은 매우 다행스럽다. 1979년부터 1983년까지 슈타츠카펠레 베를린과 녹음한 이 앨범은 중후한 음색과 극적인 표현이 결합하여 영혼을 압도하는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드보르자크가 자신의 기반으로 삼았던 고전의 전통이 빛을 발하는 명연이다.

96044
슈베르트: 교향곡 전곡, '로자문데' 전곡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헤르베르트 블롬슈테트(지휘), 빌리 보스콥스키(지휘)
슈베르트의 위대한 유산, 여덟 개의 교향곡에서 듣는 그만의 음악 세계
오늘날 슈베르트의 음악은 가곡과 실내악, 피아노곡이 주로 연주되고 있으며, 최후의 두 교향곡을 제외한 다른 교향곡을 비롯한 다른 장르의 음악은 외면을 받고 있다. 이는 그의 앞에 베토벤이라는 거인이 있기에 받는 부당한 처사이다. 슈베르트의 교향곡은 관현악의 다양한 음색을 고루 사용하며, 음악적 시나리오가 탄탄하다. 또한 베토벤의 영향이 크기는 하지만, 슈베르트만의 음악적 개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블롬슈테트의 연주는 이러한 개성적 표현에 집중하여 그 위대한 성과를 깨닫게 한다. 이와 함께 흔치 않은 〈로자문데〉 전곡을 수록했다.

96046
텔레만: 타펠무지크 등
무지카 암피온, 피터르–얀 벨데르(지휘), 일 로시뇰
후기 바로크를 사로잡았던 텔레만의 광활한 음악 세계
후기 바로크 시대에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던 작곡가는 바로 텔레만이었다. 그는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었고, 매우 빠른 속도로 작곡했으며, 경쾌한 멜로디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다양한 음색의 조화, 남다른 흥을 돋우는 리듬 등으로 그의 음악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그가 남긴 수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악 작품은 '타펠무지크' 시리즈이다. 축제나 연회에서 연주되는 이 작품들은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여 서곡, 협주곡, 실내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곡된 대규모 모음곡이다. 이 시리즈에서 텔레만 음악의 진수를 즐기게 될 것이다.

96045
비발디: '사계' 등 바이올린, 첼로, 오보에, 플루트 협주곡
라르테 델라르코, 페데리코 굴리엘모(리더)
비발디 음악의 핵심인 협주곡의 진수를 모은 앨범
800곡이 넘는 비발디의 작품 중 500곡 이상이 협주곡으로서, 협주곡은 비발디 음악의 핵심이었다. 협주곡에서는 바이올린 협주곡이 가장 많지만, 다른 여러 악기를 위해서도 적잖은 협주곡을 남겼다. 이 음반은 대표적인 '사계'가 포함되어있는 '화성과 창의의 대결, Op. 8'을 비롯하여, 일곱 곡의 첼로 협주곡과 여섯 곡의 '플루트 협주곡집, Op. 10', 그리고 여섯 곡의 오보에 협주곡을 수록했다. 페데리코 굴리엘모를 비롯한 독주자들의 연주는 최고 수준이며, 앙상블 또한 비발디의 화려한 선율과 경쾌한 리듬을 강조하여 음악적 기쁨을 최고조로 올린다.

96047
쇼스타코비치: 현악사중주 전곡
루비오 사중주단
20세기에 가장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한 예술가의 삶이 담긴 위대한 연작
쇼스타코비치에게 열다섯 곡의 교향곡은 대외적 이미지를 위한 작품들이라면, 같은 수의 현악사중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일기와 같은 작품들이다. 평온했던 시절부터 위기가 닥쳤던 시기, 죽음의 그림자가 엄습했던 때 등 그가 겪었던 다양한 일들이 그의 사중주곡에 고스란히 기록되었다. 그래서 그의 사중주곡들은 개별적인 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연작과 같다. 쇼스타코비치의 사중주곡 전곡을 수록한 이 앨범에서 20세기의 가장 위태로웠던 예술가의 삶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루비오 사중주단은 강렬한 에너지로 호소력 강한 연주를 들려준다.

96048
그리그: '서정 모음곡' 전곡, 피아노 소나타, 홀베르크 모음곡 등
호콘 아우스트뵈(피아노)
서정적인 음악을 추구했던 그리그가 솔직담백하게 풀어낸 피아노 음악
그리그는 매우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들을 접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대단히 서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음악에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피아노곡 '서정 모음곡'으로, 모두 다섯 권에 66곡으로 구성된 일생의 역작이다. 이 곡들은 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투명한 화음으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다. 이와 함께 〈홀베르크 모음곡〉의 피아노 버전과 〈피아노 소나타〉등 그의 중요한 피아노 작품들이 수록되어있다.

96049
하이든: 런던 교향곡 전곡 (93번~104번)
오스트로-헝가리 하이든 오케스트라, 아담 피셔(지휘)
하이든의 교향곡에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조합으로 탄생시킨 해석의 모범
하이든은 빈에서 주로 활동했지만, 사실상 에스테르하지 가문에 소속되어 헝가리의 에스테르하저에 머무는 시간이 상당했다. 오스트로-헝가리 하이든 오케스트라는 이러한 하이든의 활동을 바탕으로 조직된 악단으로, 하이든의 연주에 정평이 나 있다. 또한 지휘자 아담 피셔는 하이든의 연주에 권위를 인정받는 지휘자로서, 이 둘의 조합이 만드는 하이든의 교향곡 연주는 절대적인 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앨범은 런던에서 위촉하여 작곡했던 93번부터 104번까지 후기 교향곡을 수록하고 있다. 고전적인 교향곡의 표준이 된 하이든의 걸작들이다.

99925 (33CD BOX) [Special Price]
하이든: 교향곡 1~104번(전곡) – 1987~2001년 녹음
아담 피셔(지휘), 하이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오스트리아-헝가리 하이든 오케스트라)
듣지 않고 소장만 해도, 하이든의 우주를 갖는 것과 같다
아담 피셔(1949~)는 빈 필, 빈 심포니, 헝가리 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을 모아 '하이든 필'을 결성한 1987년, 바로 거대한 프로젝트를 착수한다. 이 음반은 그해부터 2001년까지 14년 동안 104곡의 하이든 교향곡 전집(브릴리언트)을 녹음해 음반사에 큰 획을 그은 음반이다. 33장 CD(종이케이스)에 그 세월이 오롯이 담겼다. 2009년, 하이든 서거 200주년 작품 전집(BR 93782)에도 수록된 음반으로 전곡은 '하이든 성지'인 에스테르하지 궁내 하이든 홀에서 녹음됐다. 전반부 녹음에 비해 후기로 올수록 많은 원전연주의 성과를 참조한 덕분인지 완성도가 매우 높다. 특히 교향곡 21~81번 녹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피셔 사운드'이다. 하이든 작품 해설과 피셔의 간략한 인터뷰가 담긴 해설지(15쪽 분량/영 · 독어)에는 프로젝트를 시작하던 중년의 피셔와 노년의 피셔 모습이 대조를 이룬다.

95553
볼프 페라리: 피아노 트리오 1, 2번
트리오 메체나, 파트리아 발라리오
볼프-페라리에게 성모의 보석만 있는 건 아니다

95558 [4CDs]
노베첸토: 기타 소나티네
크리스티아노 포르퀘두(기타)
브릴리언트 노베첸토 기타 시리즈의 완성

95622
카포랄: 첼로 소나타/ 헨델: 아리아
로마바로크 앙상블
웨일즈 공 프레데릭에게 헌정된 6개의 소나타

95721
스카를라티: 칸타타와 리코더 협주곡
콜레기움 프로 무지카
스카를라티의 순수한 아름다움

95763 [2CDs]
플라티: 첼로 소나타
프란체스코 갈리지오니(첼로) 외
바로크 첼로 음악의 정수

95861 [2CDs]
테사리니: 6개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6개의 트리오 소나타
발레리오 로지토, 파올로 페로네, 바이올린 등
18세기 베네치아를 대표하는 카를로 테사리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95974
캄파뇰리: 플루트와 바이올린을 위한 6개의 듀오
스테파노 파리노, 플루트, 프란체스코 파리노
플루트와 바이올린의 사랑스러운 대화

96023
두니: 트리오 소나타 Op.1
두니 앙상블
마테라에서 듣는 두니의 음악

96035 [2CDs]
바흐: 푸가의 기법
피터 얀 벨더, 하프시코드
브릴리언트 하프시코드 피터 얀 벨더

96036
부아모르티에: 실내악 앨범
카펠라 무지칼레 엔리코 스튜어트
가장 우아한 프랑스 바로크

96037
마르골라: 만돌린을 위한 음악
파엘라 라 라지오네 (만돌린), 가브리엘라 자네티 (기타) 외
찰현악기 만돌린이 만들어내는 사랑스러운 음악

96067
그라나도스: 고예스카스 외
장-프랑수아 디샹, 피아노
스페인 풍의 피아노 리사이틀

96081
멘델스존: 클라리넷이 포함된 실내악
다리오 진갈레스(클라리넷), 마르코 살라, 바셋-(호른), 알렉시 그로츠(피아노)
클라리넷 음색의 풍부한 매력

95343 [5CDs]
페데리코 모레노-토로바 기타 독주곡 모음집
안젤로 콜론(기타)
기타 왕국 스페인 속, 미지의 섬으로

95431 [4CDs]
토스티: 이탈리아 가곡 모음집
발렌티노 콜라도나토 · 델피네 포텔로(소프라노), 알도 디 토로 · 막스 르네 코소티(테너), 마르코 세베렌(바리톤), 마르코 스콜라스트라 · 마르코 모레스코(피아노) 외
이탈리아 가곡의 보물상자를 열다

95549 [3CDs]
베르크 93곡 가곡 모음집
고명재(소프라노), 엘리자베타 룸바르디(메조), 마르크 밀호퍼(테너), 마우로 보르지오니(바리톤), 필리포 파리넬리(피아노)
'룰루'의 베르크는 잊게 하는 숨겨진 서정성의 노래들

95619
브루크너: 피아노 모음곡
프란체스코 파스콸로토(피아노)
교향곡 천재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

95733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MWV O3 & 바이올린, 피아노 협주곡 MWV 04
솔로미야 이바키프(바이올린), 안토니오 폼파–발디(피아노), 테오도르 쿠차르(지휘) 등
천재성에 매료되고, 낭만성에 반한다

95735
줄리아니: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음악
피에르카를로 사코(바이올린), 안드레아 디에시(기타)
19세기 빈을 풍미한 기타와 바이올린

95752 [2CDs]
쿠프랭 헌정곡 모음집 – 륄리, 코렐리, '국가'
기안 루카 로벨리, 마르코 가기니(하프시코드)
하프시코드 타고 프랑스와 이탈리아로

95816
보넬리: '리체르카레' & '칸초네'
페데리코 델 소르도(오르간 · 하프시코드 · 클라비코드)
17세기 악기들이 현대에 보내온 소리들

95871
슈만 · 글린카: 클라리넷 실내악곡집
지오반니 펀치(클라리넷), 야쿱 뤼첸(비올라), 토케 몰트러프(첼로), 갈랴 콜라로바(피아노)
슈만을 통해 글린카에 눈뜨고, 클라리넷에 빠져들고

95894
훔멜: 피아노 협주곡 모음 2집(피아노 협주곡 WoO 24a S.5 외)
디디에르 탈파인(지휘), 앙상블 라 갈란테(포르테피아노) 등
시대악기로 연주하는 훔멜 속의 모차르트

95896
'바이올린을 위한 로맨스': 베토벤 · 생상 · 드보르자크 · 브루흐 · 스베센
하칸 센소이(지휘), 가르시야카 챔버 오케스트라 등
밤의 낭만을 책임질, 바이올린의 로맨스

95965 [2CDs]
루빈스타인: 네 손을 위한 피아노 모음곡 '가장 무도회'
피아니스티코 디 페렌체
러시아 고급 살롱의 파티 속으로

95970 [2CDs]
멜라니: 고(古)성악곡 모음집
사무엘레 라스트루치(지휘), 미 무지치 델 그란 프린시페
17세기 로마의 음악천재를 부활시키다

95999
페데리코 사르델리: 소나타 1~6번
스테파노 브루니 외(바이올린), 로렌초 파라비치니 외(첼로), 파올라 탈라미니(오르간)
바로크음악이지만, 알고 보면 오늘날 태어난 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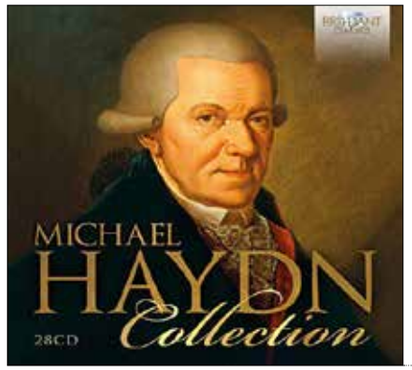
96006
레그렌치: 바로크트롬본 · 코르네토 소나타, 모테트 모음곡
앙상블 제니크 외(코르네토), 파비오 카탈도(바로크트롬본), 질베르토 스토르다리(오르간) 등
은은한 바로크 관악기의 미학

96019 [2CDs]
폰키엘리–오르간곡집 전원곡 · 제례의식용 소품들
마르코 루게리(오르간)
춤추는 오르간, 거룩한 오르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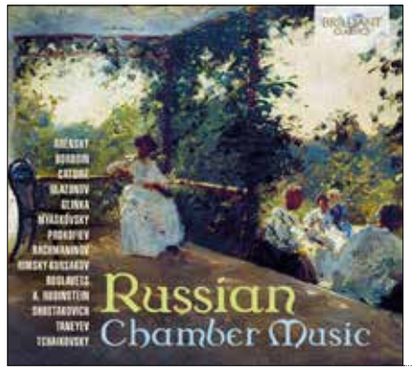
96034
차이콥스키 '사계' 외
시시 마르코폴로(하프)
쿠렌치스가 선택한 하피스트의 '사계'

96077
포르포라–꽃을 노래한 칸타타 모음집
무지카 페르두타, 크리스티나 그리포네(소프라노)
아름다운 꽃말들이 울려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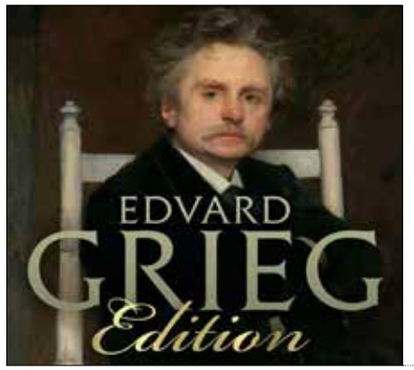
96082
클로드 비비에(1948~1985) 작품집
알레산드로 소코르시(피아노), 테이스 로르다(플루트), 요제프 푸글리아(바이올린), 자이트 쉐–판 바이젠베르크(첼로) 등
짧은 생애가 남긴 '미래의 명곡'



95885 [28CDs]
미하엘 하이든 – 교향곡 · 협주곡 · 오페라 · 실내악 · 종교음악 모음집
팔 네메트 · 해롤트 파르베르만(지휘), 체코 챔버필하모닉 · 카펠라 콜로니엔시스 오케스트라 · 뮌헨 레지던츠 오케스트라, 칸테무스 실내합창단 · 칸투스 코르비너스 보칼앙상블 · 퍼셀 합창단, 하이크 포르슈테인(소프라노), 잘츠부르크 하이든–퀸텟 · 소나르 콰르텟 등
종교음악의 거장, 또 다른 하이든을 찾아서
점점 잊혀져가는 작품들을 발굴하여 약 850개의 작품을 남긴 미하엘 하이든(1737~1806)의 대표작을 한데 모은 박스물이다. 교향곡(CD1~7), 세레나데 시리즈(8), 디베르티멘토(9), 노투르노(10), 관악기 협주곡(11 · 12), 바이올린 협주곡(13), 레퀴엠(14), 미사곡들(15~21), 오페라 '안드로메다와 페르세우스'(22 · 23), 현악4중주(25~27), 실내악 5중주(CD28)가 총 28장의 CD에 담겼다. 그의 작품들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것이 종교음악이다. 미하엘 하이든 생전에 그의 형인 하이든은 물론 세상이 인정했다는 레퀴엠과 미사곡 파트(CD14~21)는 이 박스물의 별미다. 해설지(11쪽 분량)에 장르별로 살펴본 하이든의 작품 세계가 수록. 트랙목록과 연주자 명단은 종이케이스 뒷면에 기재되어 있다. 미하엘은 작품 번호를 'HM'로 기재한다. 'Haydn, Michael'의 약어.



95953 [25CDs]
'러시안 실내악'– 글린카부터 쇼스타코비치까지 14명의 작곡가
모스크바 트리오, 엔델리언 4중주, 트리오 카르두치, 모스크바 현악 4중주단,엘다 네볼신 · 클라라 뵈르츠 · 알레산드로 델랴반(피아노)
러시아 실내악의 시작부터 끝을 책임질 최고의 안내서
1850~1950년, 100여년에 걸친 러시아 실내악을 통해 19세기 낭만주의에 깊이 빠져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러시아 실내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박스물이다. 글린카(CD1 · 2), 차이콥스키(2~4), 타네예프(5~7), 게오르기 카투아르(8 · 9), 림스키–코르사코프(10), 아렌스키(11 · 12), 쇼스타코비치(12 · 21~22), 안톤 루빈스타인(13), 보로딘(14~16), 글라주노프(17), 라흐마니노프(18 · 20), 니콜라이 마야스콥스키(19), 프로코피예프(18 · 23 · 24), 니콜라이 로슬라베츠(25)의 2중주 소나타, 3중 피아노 트리오, 현악 4중주, 피아노 5중주 등이 담겨 있다. 2~5중주를 이루는 구성이지만, 각 작곡가들이 구현했던 관현악처럼 심포니적인 정서와 힘이 가득 차 있다. '러시아의 쇤베르크'라 불린 마야스콥스키, 처음 듣는 이들이 더 많겠지만 듣고 나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카투아르의 작품들이 박스물의 숨은 보석을 빛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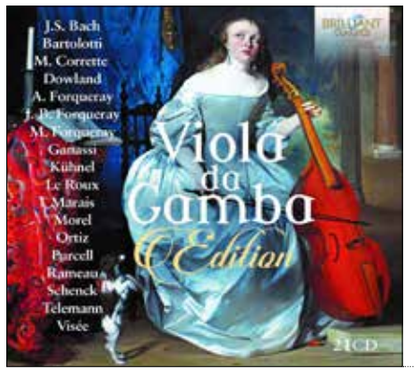
95914 **[25CDs]**

그리그 에디션(Grieg Edition) – 기악 · 성악모음집

뱌르테 엥기세트(지휘),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 호콘 아스터 · 루돌프 얀센(피아노), 마리안느 히르스티(소프라노), 크젤 마그너스 샌드베(테너), 누트 스크람(바리톤)

관현악 · 실내악 · 성악으로 만나는 그리그(Grieg)의 모든 것

노르웨이 그리그(1843~1907)의 작품을 25장 CD에 담은 박스물이다. 관현악, 성악과 관현악, 실내악, 피아노작품, 성악곡 등 5개 장르를 통해 그리그의 음악세계를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피아노 협주곡(CD1), 페르귄트 모음곡(CD4), 홀베르그 모음곡(CD7) 등의 대표적인 관현악, 바이올린 소나타(9 · 10CD), 첼로 소나타(CD10), 현악4중주(CD11) 등의 실내악, 바리톤 · 피아노를 위한 'The Mountain Thrall'(CD20)과 같은 성악곡, '서정 소곡집' 등의 피아노 독주 등이 담겨 있다. 그리그 스페셜리스트들의 음반이 시리즈로 담겨 있어 박스물 속의 '별미'로 다가오기도 한다. 노르웨이의 엥기세트(지휘)와 스웨덴 말뫼 심포니의 콜렉션(CD3~7), 2003년 그리그상 수상자 호콘 아스터의 '서정 소곡집'(CD12~19) · 소나타(CD15) · 노르웨이 민속 노래와 무곡(CD16 · 17) · 소품(CD18), 네덜란드 피아니스트로 가곡 반주에 명성 있는 루돌프 얀센이 함께 하는 성악곡들(CD19~25)이다.



95779 **[21CDs]**

16~18C 비올라 다 감바 컬렉션

크리스티아노 코당 · 라이너 지펠링 · 베티나 호프만 · 파트셰 몽테로 · 릭사니아 페르나데츠(비올라 다 감바) 외

비올라 다 감바의 '전성기'가 한 손에

저음을 담당하던 바소콘티누오의 영역에서 벗어나 16~18세기에 전성기를 맞은 비올라 다 감바의 역사에는 위대한 작곡가들과 작품들이 있다. 21장 CD의 박스물은 존 다울랜드(1563~1626/1CD)로 시작하여 자크 모렐(1700~1749/CD21)로 끝나며, 3세기에 걸쳐 비올라 다 감바의 독주 · 실내악 · 협주곡을 남긴 작곡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의 주인공인 마랭 마레(1656~1728)의 모음곡 · 소품이 수록된 시리즈(CD7~11), 텔레만의 소나타(CD15~17), 협주곡(CD18 · 19)은 박스물 속의 미니 에디션으로 유독 눈길이 간다. 당대 최고의 비올라 다 감바 스페셜리스트들과 함께 하고 있으며, 리코더 · 오보에 · 테오르보 · 하프시코드 · 오르간 등이 선보이는 고음악의 매력과 만나는 것도 이 박스물만의 매력이다.

Calliope www.calliope-records.com

CAL1854

쇼팽: 피아노 작품집

필리프 기용-에르베르(피아노)

섬세한 타건과 은은한 음향으로 표현한 깊은 낭만적 정서

필리프 기용-에르베르는 미셸 베로프, 마리아 조앙 피르스, 알도 치콜리니 등 거장으로부터 배웠으며, 파리 음악원을 피아노와 실내악 부문에서 1등으로 졸업하고 오를레앙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음반 작업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텔레라마, 디아파종, 스타클래식 등 여러 중요한 상들을 받았다. 쇼팽의 작품들을 수록한 이 음반은 그의 이러한 경력을 대변한다. 섬세한 타건과 은은한 음향으로 남다른 정서적 깊이를 표현하며, 연습곡, 폴로네이즈, 발라드, 즉흥곡, 환상곡, 녹턴 등 쇼팽의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관통하는 낭만적 정신으로 수렴시킨다.

CAL1856 **[2 for 1]**

바흐: 평균율 피아노곡집 1권

샹탈 스틸리아니(피아노)

바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의 정점을 찍는 음반

프랑스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중 한 사람인 샹탈 스틸리아니는 드뷔시 콩쿠르 우승자이며, 드뷔시를 비롯한 라벨, 뒤카스 등 프랑스 근대 음악에 호평을 받았다. 그러면서도 바흐에 남다른 열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바흐의 다양한 작품들을 연주하고 녹음해왔는데, 〈평균율 피아노곡집 1권〉은 그 정점을 찍는 중요한 음반이다.
템포와 음량, 밸런스 등 모든 것이 오늘날의 피아노에 적절하도록 조절되어있으며, 해석에 모범을 들려준다.
전주곡은 선율과 화음의 자유로운 흐름을 들려주고, 푸가는 엄격한 구조로부터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드러낸다.

CD Accord

www.cdaccord.com.pl

ACD259–2
마레: 세 개의 모음곡/ 포르크레: 라 쿠프랭, 라 르클레르, 라 뷔송
율리아 카르페타(비올라 다 감바), 안톤 비룰라(테오르보), 마르타 니즈비에츠카(첼발로) 등

프랑스 비올 음악의 두 세대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들의 경연
마렝 마레(1656–1728)와 앙투안 포르크레(1671–1745)는 17세기 말~18세기 초의 프랑스 비올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작곡가들이다. 마레의 방대한 모음곡은 오늘날에도 비올 음악의 교과서로서 연구 및 연주되며, 포르크레의 다양한 소품들은 당시 프랑스 음악의 뛰어난 표현력을 들려준다.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앙상블 활동을 하고 있는 율리아 카르페타는 우아한 선율과 거침없는 표현이 매력적이다. 그녀는 마레에서 프랑스 댄스의 리듬으로 우아한 정서를 단아하게 표현하며, 포르크레에서는 보다 과감한 표현으로 한 세대 후의 발전을 보여준다.

ACD260–2 **[세계 최초 녹음 포함]**
F.X. 모차르트: 소나타, 슬픈 폴로네이즈, 러시아 변주곡 등
카타쉬나 드로고시(피아노)

모차르트의 후기를 이어받으며 쇼팽을 예견하는 모차르트 주니어의 유산
모차르트의 아들은 프란츠 크사버 모차르트는 살리에리와 훔멜 등 빈 최고의 음악가들로부터 배웠으며,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로서 활동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후광보다는 짐이 되었던 그는, 10대 후반에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에 정착한 이후 이곳에서 명성을 얻었다. 반면에 음악사에서는 잊힌 존재가 되고 말았다. 모차르트의 후기 양식을 이어받으며 쇼팽을 예견하는 그의 음악은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음반으로 녹음되고 있다. 특히 약 1800년에 제작된 포르테피아노로 연주한 이 음반은 시대악기로 녹음한 F.X. 모차르트의 첫 앨범이다.

ACD261–2 **[세계 최초 녹음]**
샤르진스키: 성가합창곡집
브로츠와프 바로크 앙상블, 안제이 코센디아크(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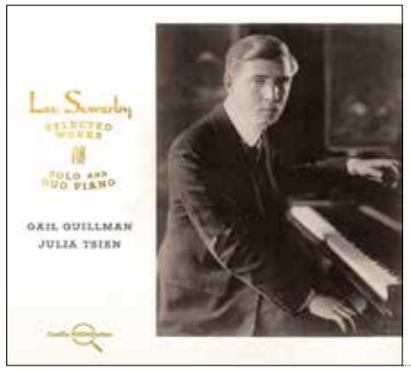
베일에 가려졌던 숨막히는 걸작, 샤르진스키의 아름다운 성가를 만나다
폴란드의 바로크 작곡가 스타니스와프 실베스테르 샤르진스키의 삶은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그의 많은 작품들이 로비치 대학 교회에 보관되어있어, 이곳의 합창단과 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오늘날 남아있는 그의 작품들은 1692~1731년에 작곡된 것으로, 이 음반에서 그 주요 작품을 들어볼 수 있다. 라틴어 성가로서 극적인 표현보다는 정갈하고 안정되어있으며, 양식적으로는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바로크적인 감각적인 표현이 더해져있다. 충실한 해설과 모든 곡의 가사가 수록된 소책자 수준의 내지도 감상에 큰 도움을 준다.

ACD263–2
라벨: 셰라자데/ 시마노프스키: 동화 속 공주의 노래/ 오브라도스: 고전적인 스페인 노래 등

프랑스, 폴란드, 스페인, 미국 등 지구촌 음악의 향연
아가타 주벨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폴란드 출신의 소프라노로, 중후하고 따뜻한 독보적 음색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에어스테 방크 작곡상' 수상 경력이 있는 작곡가인 만큼, 그녀의 해석력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매우 독창적이다. 라벨의 〈셰라자데〉는 시각적 환영을 불러일으키며, 바버의 〈네 개의 노래〉는 시적인 표현을 들려준다. 크럼의 〈출현〉은 신비하면서도 두려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시마노프스키의 〈동화 속 공주의 노래〉는 화려한 기교를 뽐낸다. 오브라도스의 〈고전적인 스페인의 노래〉는 열정적인 리듬으로 가득하다.

ACD264–2
기뻐하라!
마리아 스와베크(바이올린), 마르친 즈두니크(첼로)

바이올린과 첼로 두 개의 악기로 펼치는 폭넓은 음악 세계
마리아 스와베크는 크라쿠프 음악원 재학 시절부터 여러 상들을 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은 바이올리니스트이며, 마르친 즈두니크는 2008년 루토스와프스키 첼로 콩쿠르 우승자이다. 이 두 연주자는 흥미로운 이중주곡들을 녹음했다. 바흐의 건반 작품 '인벤션' 중 두 성부를 가진 열다섯 곡을 골라 여러 주법을 활용한 이중주로 들려주며, 이자이의 〈소나타 2번〉은 스와베크의 열정을 담았다. 펜데레츠키의 〈샤코나〉는 본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두 악기로 더욱 섬세한 표현을 들려준다. 구바이둘리나의 〈기뻐하라!〉는 감성적인 접근이 돋보인다.



CDR 7006 **[세계 최초 녹음]**
소워비: 세 개의 여름 해변 스케치, 싱코나타, 네 손을 위한 모음곡 등
게일 퀼만, 줄리아 치엔(피아노)

인상주의, 래그타임, 고전 등 다양한 양식의 영향을 받은 소워비의 피아노 음악
미국 미시간 태생의 레오 소워비는 신동 피아니스트로서 이름을 날렸다. 작곡가로서 고난도의 기교를 요구하면서도 환상적인 음향을 만들어내는 작품들을 발표했으며, 나중에는 고전 양식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 음반은 미국의 작곡가 중에서도 흔히 보기 힘든 그만의 음악 세계를 조망한다. 〈세 개의 여름 해변 스케치〉는 따가운 햇볕이 비치는 여름 해변의 모습을 프랑스 인상주의의 터치로 그렸다면, 〈싱코나타〉는 래그타임이 접목된 경쾌한 작품이다. 반면에 〈네 손을 위한 모음곡〉은 고전적인 대위법이 엿보이며, 〈파사칼리아〉는 진지하고 장중하다.

Cedille Records *www.cedillerecords.org*

CDR90000190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추억
샤론 이스빈(기타), 파시피카 사중주단

유럽 남부 라틴계를 대표하는 악기, 기타가 들려주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열정
그래미상을 다수 수상한 샤론 이스빈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기타 음악으로 기타의 매력을 한껏 뽐냈다.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는 20세기 초 기타 음악의 독보적인 존재로서, 〈오중주〉는 작은 기타협주곡이라고 할 만큼 음악적 내용이 풍부하다. 비발디의 〈협주곡, RV93〉은 기타리스트의 최애 레퍼토리로, 2악장의 사랑스러운 멜로디는 특히 유명하다. 투리나는 가장 스페인다운 작곡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들려주며,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대부분 스페인에서 활동했던 보케리니의 〈오중주〉는 스페인의 열정을 가득 담은 '판당고'로 특히 유명하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8226220
비발디 이후의 사계
콘체르토 코펜하겐, 마그누스 프뤼클룬(지휘), 라르스 울리크 모르텐센(지휘)

과거를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유쾌한 방법
오늘날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시대에 맞게 고치고 활용하는 대상이라는 경향이 크다. 덴마크의 작곡가 칼 오게 라스무센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발디의 〈사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다. 요즘 음악들이 들려주는 다양한 리듬과 음악적 이디엄들이 라스무센을 거쳐 〈사계〉를 박진감 넘치는 음악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라스무센은 바로크 시대에 유행했던 '라 폴리아' 선율을 바탕으로 흥미진진한 변주곡을 작곡했으며, 라디오 시그널로 사용되어 우리에게 익숙한 레스피기의 〈새〉를 청명한 시대악기 음색으로 들을 수 있다.

8226183 **[세계 최초 녹음]**
에밀 하르트만: 실내악 작품집
엘리자베트 초이텐 슈나이더, 니콜라스 뒤퐁(바이올린), 토니 니스(비올라), 유스투스 그림(첼로), 다니엘 블루멘탈(피아노)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그려낸 에밀 하르트만의 낭만적 실내악곡
에밀 하르트만은 낭만 시대 덴마크의 작곡가로,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음악가 집안 출신이었다. 그는 독일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멘델스존, 슈만, 브람스 등 독일 낭만의 거장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 음반에 수록된 실내악 작품들은 이러한 하르트만의 특징들과 함께, 그의 과감한 극적 표현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마음속의 깊은 슬픔부터 불꽃과 같이 타오르는 열정까지,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이 작품들에 새겨져 있다. 덴마크와 독일, 벨기에 출신의 정상급 연주자들은 이러한 하르트만의 음악 세계를 한껏 펼쳐 보인다.

Drama Musica *www.drama-musica.com*

DRAMA007
안나 본 디 베네치아: 여섯 개의 플루트 소나타, Op. 1
블라디미르 소아레스(리코더), 파비안 그로시(하프시코드)

베네치아의 밝은 햇살을 담은 안나 본의 소나타
이탈리아는 일찍이 인문주의가 널리 퍼져있었으며, 따라서 여성 음악가들도 다수 활동했다. 안나 본은 18세기 베네치아에서 활약했던 목관연주자이자 작곡가로, 비발디가 가르쳤던 피에타 오스피달레에서 배웠다. 그녀는 10대부터 연주여행을 다녔으며, 16세에 이미 "실내악의 거장"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18세에 작곡한 〈여섯 개의 플루트 소나타, Op. 1〉은 이러한 그녀의 모습이 아로새겨진 작품이다. 당시 '플루트'라는 명칭은 리코더를 포함하며, 이 음반에서 리코더로 연주했다. 이탈리아 후기 바로크 음악의 밝고 화려한 감흥이 가득 들어있다.

Drama008
바로크 시대의 여성 작곡가
가브리엘라 디 라치오(소프라노), 아우다치움 바로크 앙상블

바로크 시대를 더욱 빛나게 하는 네 명의 여성 작곡가들의 향연
바로크 시대의 많은 여성 음악가들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뛰어난 작품을 남겼다. 이 음반은 17~18세기 100여 년의 바로크 시대에 활약했던 네 명의 여성 작곡가들의 작품을 수록했다. 프란체스카 카치니의 노래는 감성을 표현하는 당대의 음악적 특징을 반영하고 있으며, 바르바라 스트로치의 노래는 한 세대 후의 폭넓고 자유로워진 표현을 들을 수 있다. 드 라 게레의 건반 음악은 프랑스 춤 모음곡의 형태로서 데이빗 라이트의 뛰어난 연주가 매우 매혹적이며, 데 감바리니의 음악은 갈랑 양식의 영향을 받은 가벼운 표현이 마음을 들뜨게 한다.

Dynamic www.dynamic.it

CDS7861.10 **[10CDs – SPECIAL PRICE]**
이탈리아 바이올린 협주곡, 비발디부터 파가니니까지
안톤 마르티노프, 루카 판포니, 파올로 기도니, 마시모 콰르타 등

이탈리아 바이올린 학파를 총망라한 백과사전
다이내믹에서 지금까지 낱장으로 출반했던 이탈리아 바이올린 학파의 음반들을 계보에 따라 10장 합본으로 출시한 음반이다. 비발디로부터 본포르티, 로카텔리, 타르티니, 롤리, 나르디니, 롤라, 비오티, 파가니니 등 이번 바이올린 선집을 구비하면 이탈리아 바이올린 역사에서 방점을 찍었던 작곡가들의 주요 작품들을 모두 들어볼 수 있다. 연주자와 단체, 레이블까지 모두 이탈리아 국적으로 구성된 음반으로 본토 사운드의 관현악단과 탄력이 넘치는 독특한 주법, 콜로라투라가 노래를 하는 듯한 독주 바이올린의 섬세한 표정 등 이탈리아 바이올린 학파의 원형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매우 귀한 음반이다.

Gramola www.gramola.at

99199
하이든: 천지창조
판돌피스 콘소트, 프리츠 폰 프리들(낭독)

하이든이 생존했던 18세기 후반 빈에서 편곡된 현악오중주와 낭독을 위한 버전
하이든의 〈천지창조〉는 헨델의 〈메시아〉에 필적하는 대형 오라토리오로, 오늘날 하이든을 오라토리오 작곡가로 기억하게 하는 걸작이다. 이 작품은 당시에 흔히 사용되지 않았던 화음들과 다양한 음악적 제스쳐를 활용하여 뛰어난 음악적 묘사를 보여준다. 이 음반에 수록된 버전은 이 작품의 현악오중주 편곡으로, 하이든 생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소규모로 편곡하는 것은 〈십자가상의 일곱 말씀〉처럼 고전 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로, 작품을 자주 접할 수 있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노래 대신에 낭독을 넣어, 음악극과 같은 인상을 주는 것도 특징이다.

99205
피아솔라: 사계/ 라흐마니노프: 비가적 삼중주 1번/ 쇼스타코비치: 삼중주 1번 등
하이든 챔버 앙상블

인간적인 감성을 깔끔한 음색과 우아한 선으로 고상하고 아름답게 표현한 연주
하이든을 전문적으로 연주해온 하이든 챔버 앙상블이 외도를 했다! 이들은 이 앨범에서 피아솔라와 라흐마니노프, 쇼스타코비치, 브람스를 연주하여 자신들의 영역이 광범위함을 증명했다. 고전음악으로 단련된 깔끔한 음색과 우아한 선을 가진 이들의 연주는 매우 고상하면서도 아름답다. 피아솔라의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사계〉는 유명한 호세 브라가토의 삼중주 편곡으로, 남다른 섬세한 감각으로 그리고 있다. 라흐마니노프의 〈비가적 삼중주 1번〉에서는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정화하고, 쇼스타코비치의 〈삼중주 1번〉에서는 격동하는 내면을 표현한다.

99028
글렌 굴드: 현악사중주/ 프리드리히 굴다: 현악사중주를 위한 음악
아치에스 사중주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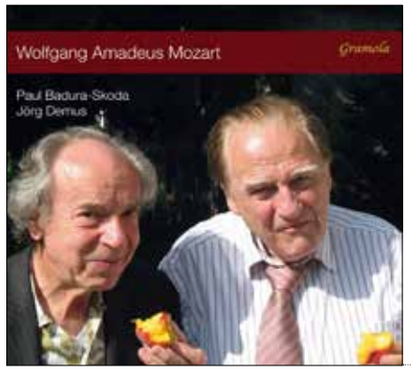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굴드와 굴다의 현악사중주 작품
전설처럼 살다 간 피아니스트 글렌 굴드는 연주뿐만 아니라 피아노를 직접 개발하기도 했고, 몇 곡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그의 작품목록은 피아노가 중심을 이루며 노래도 적잖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작품은 〈현악사중주〉이다. 23세에 작곡한 이 곡은 40분에 이르는 장대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며, 매우 서정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극적인 진행에서 그의 남다른 음악성을 엿볼 수 있다.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도 작곡가로서 여러 작품을 남겼다. 21세에 완성한 〈현악사중주〉는 과감한 표현과 짙은 감성 표현이 돋보인다.

99197
마이제더: 피아노 삼중주 1, 2번, 바이올린 소나타 2번
라이문트 리시(바이올린), 마리아 그륀(첼로), 스레브라 겔레바(피아노)

19세기 초 빈을 대표하는 작곡가였던 마이제더의 실내악곡
초기 낭만시대 오스트리아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요제프 마이제더는 빈 궁정 오페라와 호프부르크 궁정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 그는 실내악 연주자로서도 큰 활약을 한 만큼 뛰어난 실내악 작품들을 남겼다. 이 음반에 수록된 두 곡의 피아노 삼중주와 바이올린 소나타는 당시의 음악 스타일을 대변하는 작품들이다. 양식적으로 고전의 전통을 이어받은 이 작품들은 각 연주자에게 화려한 기교를 요구하며, 여러 전조를 통해 극적인 시나리오를 풀어간다. 그리고 아름다운 느린 악장과 화려하고 리드미컬한 피날레로 감상자에게 상쾌감을 안겨준다.

99201
라이네케: 운디네/ 프로코피에프: 플루트 소나타/ 타크타키쉬빌리: 플루트 소나타
테모 하르쉴라제(플루트), 케테반 세파쉬빌리(피아노)

운디네의 애틋한 스토리를 노래하는 플루트의 목소리
조지아 출신으로 빈을 중심으로 활약하고 있는 플루티스트 테모 하르쉴라제가 흥미로운 플루트 소나타들을 녹음했다. 칼 라이네케의 〈운디네〉는 모든 플루트 소나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일 것이다. 아름다운 멜로디와 뛰어난 서정미, 그리고 탄탄한 구성에 운디네의 애틋한 스토리를 담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오타르 타크타키쉬빌리는 조지아의 작곡가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 〈플루트 소나타〉는 유쾌한 리듬을 타고 플루트의 넓은 음역을 넘나드는 청명한 작품이다. 프로코피에프의 〈플루트 소나타〉는 내밀한 감성을 풀어낸 걸작이다.



99214
모차르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등
파울 바두라–스코다, 외르크 데무스(포르테피아노)

1790년과 1795년에 제작된 악기로 연주하는 두 거장의 절대적 향연
빈을 대표하는 두 건반 연주자 파울 바두라–스코다와 외르크 데무스의 이중주는 오늘날 최고의 고전음악 해석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2010년에 녹음한 이 모차르트 앨범은 모차르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1790년과 1795년에 제작된 안톤 발터의 악기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소나타, K448〉은 두 악기가 대결하듯 약진하다가도 하나의 악기처럼 연주하는 등, 두 거장의 돈독한 연주는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다. 〈라르게토와 알레그로〉는 미완성작으로, 바두라–스코다가 완성한 버전으로 녹음되어 더욱 특별하다.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66 **[세계 최초 녹음 포함]**
스탄친스키: 피아노 전곡 1집
올가 솔로비에바(피아노)

혜성같이 왔다가 사라진 한 작곡가의 비범한 어린 시절
알렉세이 스탄친스키는 차이콥스키의 제자인 타네예프의 제자로, 가장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다 26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음악은 피아노 작품이 대부분으로, 이 앨범에서는 16세였던 1904년부터 21세였던 1909년까지의 작품을 수록했다. 초기곡들이지만 〈피아노 소나타 E♭장조〉를 비롯하여 여러 전주곡과 연습곡들은 그의 중요한 작품들로 인정받고 있다. 이 작품들은 주로 유럽의 낭만적 표현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스크리아빈을 연상시키는 독특한 표현들도 엿보인다.

GP804 **[세계 최초 녹음]**
발라샤: 피아노 전곡 2집
이슈트반 카샤이(피아노)

피아노로 그리는 화려하면서도 감각적이고 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이야기
샨도르 발라샤는 헝가리에서 오페라와 관현악 작품으로 높은 명성을 얻은 작곡가로, 그의 피아노 작품들 또한 풍부하고 다양한 표현들이 가득하다. 전통적인 조성 체계를 바탕으로 아기자기하고 재치있는 음악적 제스쳐를 활용하여, 화려하면서도 감각적이고 극적이면서도 서정적인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 음반에는 소나티나와 바가텔 등 규모가 작은 피아노 작품들과 함께, 하프, 하프시코드, 칩발롬 등 다양한 악기를 위한 작품들을 피아노 버전으로 연주했다. 카샤이는 파리 드뷔시 콩쿠르 우승자이자, 영예로운 리스트 상과 바이너 상 수상자이다.

GP817
글래스: 피아노 작품 6집
니콜라 호르바트(피아노)

젊은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글래스 음악의 흐름을 조망하는 앨범
미국의 작곡가 필립 글래스의 음악은 간단히 미니멀리즘 작곡가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는 생애를 통해 다양한 음악을 선보여왔다. 초기에는 단순한 화음을 반복하고 변화시키는 실험적인 음악을 발표했고, 다음에는 이를 대형화하여 '미니멀리즘'이라는 표현이 어색한 작품들을 내놓았다. 그리고 21세기에는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인 인디언의 음악에 관심을 두고 자신의 작품에 응용했다. 이 앨범은 초기의 실험적인 〈대비되는 움직임이 있는 음악〉, 대형화된 〈비밀 독주 2〉, 인디언의 음악을 응용한 〈협주곡 2번〉 등 글래스 음악의 흐름을 모두 담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GP829–30 **[2CDs]**
모크라냐크: 피아노 전곡
라티미르 마르티노비치(피아노)

사람의 감성을 깊이 파고드는 서정성과 화려한 비르투오시티가 결합된 거장의 음악
바실리에 모크라냐크는 세르비아에서 가장 높은 명성을 얻었던 작곡가였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비극적인 역사와 함께 그의 성과들이 빛을 볼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의 피아노 음악 전곡을 수록한 이 앨범을 통해 그의 개성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음악 세계를 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이다. 모크라냐크의 음악은 독특한 지역적 정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정적인 작품부터 지극히 비르투오소적인 작품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라티미르 마르티노비치는 그의 작품에 대해 "특별히 심오하며 영적으로 고양시킨다"라고 말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IBS Classical

www.ibsclassical.es

IBS162019

헨델: 트리오 소나타, 바이올린 소나타, 플루트 소나타

라포테오제

괴팅엔 헨델 콩쿠르 우승팀이 들려주는 우리 시대 최고의 헨델

'라포테오제'는 실력 있는 스페인의 젊은 시대악기 연주자들이 결성한 고음악 단체로, 2017년 독일 괴팅엔 헨델 콩쿠르와 2019년 영국 국제 요크 고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짧은 시간에 유럽의 정상급 단체로 주목을 받고 있다. 헨델의 트리오 소나타와 독주 소나타 등 실내악곡을 녹음한 이 앨범은 이러한 그들의 뛰어난 실력과 패기 넘치는 에너지가 결합하여 있다. 빠른 악장에서는 역동성 있는 움직임으로 대위적인 진행에 생기를 불어넣고, 느린 악장에서는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저녁 노을이 지는 듯한 후기 바로크의 독특한 서정미를 끌어낸다.

IBS172019

로드리고의 기타 음악: 유쾌한 소나타, 세 개의 스페인 소품 등

페드로 로하스-오가야르(기타)

스페인 기타 음악의 거장 로드리고의 기타 독주곡

기타 협주곡의 대명사 〈아란후에스 협주곡〉을 작곡한 화킨 로드리고는 이 곡 이외에도 수많은 기타 독주곡을 남기며, 기타 음악의 종주국으로서의 스페인의 위상을 지켰다. 이 앨범은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여섯 곡의 기타 독주곡을 수록하여, 〈아란후에스 협주곡〉이 미처 들려주지 못한 로드리고의 깊은 음악 세계를 들려준다. 〈헤네랄리페의 훈토〉와 〈유쾌한 소나타〉 등 스페인의 열정적인 리듬과 감각적인 선율을 들을 수 있음은 물론, 〈세 개의 스페인 소품〉과 〈기도와 춤〉 등 뛰어난 현대적 감각과 과감한 극적 전개에 놀라게 될 것이다.

Indesens

www.indesensdigital.fr

INDE102 **[15CDs]**

18~21세기 트럼펫 작품 모음(69명 작곡가)

에릭 오비에(트럼펫), 파리 국립오케스트라, 브레타뉴 오케스트라, 루마니아 방송교향악단, 툴루즈 실내관현악단, 티에리 에스카이흐(오르간)

트럼펫으로 음악사 살펴보기는 이 하나면 충분!

에릭 오비에(1960~)는 트럼펫 하나로 요한 밥티스트 게오르크 네루다(1708~1780)부터 티에리 에쉬카이흐(1965~)까지, 18~21세기 작곡가 69명의 작품을 섭렵한다. 심지어 트럼펫을 위한 편곡버전이 아니라 각 작곡가들이 트럼펫을 위해 만든 작품들이다. 그 방대함에 놀라고, 친숙한 작곡가들이 남긴 트럼펫 작품이 있다는 사실에 두 번 놀란다. 15CD(종이케이스) 구성이며, 해설지(48쪽/영문)에는 트랙, 오비에의 여러 사진이 수록되었다. 1990년대부터 발매됐던 음반이 재발매지만 녹음음향과 청취환경이 고르고 소리들의 균질감이 돋보인다. 트럼펫의 방대한 정보가 담겼기에 소장만으로도 '트럼펫 백과사전'을 소유한 듯한 든든함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바로크 · 고전 · 낭만 · 현대음악을 아우르는 '트럼펫으로 살펴본 음악사'라 할 수 있겠다. 오비에는 프랑스의 거장 트럼페터 모리스 앙드레의 애제자이기도 하다.

INDE096

브람스 클라리넷 · 첼로 소나타(색소폰 편곡 연주)

니콜라스 아르제니제비크(색소폰), 프랑시스 뷔페(피아노)

색소폰이 그려내는 '섹시한 브람스'

브람스가 남긴 클라리넷 소나타가 명곡이라 하지만 색소폰으로 듣게 된다면 그 느낌이 어떠할까. 니콜라스 아르제니제비크는 클라리넷 소나타 1번 · 2번을 색소폰으로 연주하며 브람스 특유의 묵직하고 진중한 음향을 색다르게, 조금은 섹시하면서도 과감하게 연출해 낸다. 고음의 날렵한 비브라토는 기본. 동봉된 첼로 소나타 Op.38의 도입부에선 원곡보다 더 매력적인 음색의 향연을 자아내어 듣는 이를 놀라게 한다. 관악기를 위해 태어난 클라리넷 소나타보다 첼로 소나타가 더욱 매력적. 특히 색소폰이 내는 저음의 굵은 비브라토는 첼로의 깊은 음색과 다른 무게를 선사한다.

INDE098

R. 슈트라우스: 바이올린 소나타, Op. 18/ 르쾨: 바이올린 소나타 G장조

레이첼 콜리 달바(바이올린), 크리스티앙 샤모렐(피아노)

완벽한 하모니와 균형이 들려주는 최상의 극적인 격정과 낭만적인 아름다움

1732년에 제작된 스트라디바리우스로 연주하며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음색을 들려준 레이첼 콜리 달바는 2013년 ICMA 독주자 부분에서 최고 녹음상을 수상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앙 샤모렐은 달바와 함께 10대 초부터 함께 활동했으며, 2016년 ICMA 최고 실내악 앨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슈트라우스와 르쾨의 소나타는 19세기 후기 낭만의 극적이며 격정적인 소나타의 전형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달바와 샤모렐은 우아한 사운드와 음악적 균형을 유지하며 모범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다.

INDE099

샤무아르: 교향곡 5번 '별의 문서', 하늘의 문

'미하일 호라' 바카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알랭 파리스(지휘)

무한한 우주를 바라보는 오랜 인류의 통찰을 그린 음악적 대서사시

프랑스의 작곡가 필리프 샤무아르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거대한 신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교향곡 5번 '별의 문서'〉는 그의 주요 작품 중 하나로, 우주를 대해온 인류의 사고를 통찰한다. 1악장 '수수께끼', 2악장 '우리가 찾던 그것', 3악장 '소멸된 별들', 4악장 '여기에 별이 있다', 5악장 '문서' 등 다섯 악장이 가진 제목은 심오한 세계를 표현하며 전체적으로 광활한 우주를 그린다. 함께 수록된 〈하늘의 문〉은 신성한 빛을 찾는 인류의 노력을 그린 작품으로, 전통적인 음악 언어와 우리 시대의 감수성을 바탕으로 깊고 장중한 소리를 들려준다.

INDE100

이반 제크틱 플루트 작품

빈센트 루카스(플루트), 슈타코 조바노비크(지휘), 스타니슬라프 비니츠키 현악 오케스트라, 나탈랴 믈라데노비크(피아노), 마야 보그다노비크(첼로)

스페인의 이국성과 프랑스 인상주의의 만남

세르비아 태생으로 프랑스에서 활동 중인 이반 제크틱(1947~)의 플루트 협주곡(2곡), 무반주 플루트 독주곡, 플루트 소나타(2곡), 플루트 · 첼로 듀오곡이 수록되어 있다. 현대음악으로 태어난 작품들이지만 난해하거나 어렵지 않다. 중간마다 세르비아의 이국적인 선율들이 플루트를 타고 들려오는가 하면, 비교적 조성과 화성을 갖춘 21세기의 신고전주의라 할 수 있겠다. 소편성의 소나타나 2중주는 마치 드뷔시의 한 자락을 듣고 있는 듯한 환영을 일으키며, 프랑스 레퍼토리를 두루 섭렵한 루카스가 그런 감수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INDE103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10, 12, 13번 (하프와 현악사중주 연주)

마리-피에르 랑글라메, 조안 라파엘 킴(하프), 베리언 프라이 사중주단

고전의 우아한 기품을 배가시키며 산뜻한 감상의 기쁨을 선사하는 하프의 음색

하피스트 마리-피에르 랑글라메는 10대 중반부터 세계적인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니스 오케스트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를 거쳐 현재 베를린 필하모닉의 수석 하피스트이다. 또한 독주자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음반에서 랑글라메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10, 12, 13번을 피아노 오중주로 편곡한 것을 피아노 대신 하프로 연주했다. 하프의 음색은 고전의 우아한 기품을 더욱 배가시키며, 음악 감상에 산뜻한 기쁨을 선사한다.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10번)을 함께 연주한 조안 킴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랑글라메의 제자이다.

INDE107

드뷔시: 재즈 즉흥연주

에르베 슬렝(피아노)

세계 정상의 유럽 재즈 아티스트가 드뷔시를 연주하는 매우 색다른 방법

에르베 슬렝은 피에르 상캉과 알도 치콜리니의 제자로, 20대 초부터 재즈에 심취하여 재즈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었다. 그는 첫 베이커, 디지 길레스피, 제임스 무디, 클리포드 조던, 조니 그리핀, 윈튼 마살리스 등 전설적인 재즈 아티스트들과 함께 활동했다. 그는 이 음반에서 드뷔시의 음악으로 자유로운 즉흥연주를 들려준다. 드뷔시는 선법을 기반으로 하는 화음을 많이 사용했는데, 재즈로 풀어내기가 용이하여 재즈 아티스트들의 훌륭한 소재가 되어왔다. 더욱 밝게, 더욱 요염하게, 슬렝의 언어로 새롭게 탄생한 음악의 세계에 흠뻑 빠져보자.

INDE111

브람스: 클라리넷 삼중주, 클라리넷 소나타 1, 2번

파스칼 모라게스(클라리넷), 프랭크 브레일리(피아노), 크리스티안 폴테라(첼로)

브람스를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하는 세 거장들의 진실한 연주

클라리네티스트 모라게스는 18세에 파리 오케스트라의 수석으로 지명되었으며, 파리 국립 음악원과 로잔 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브레일리는 10세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과 협연하고 1991년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파리 음악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첼리스트 폴테라는 추마첸코, 페르가멘쉬코프, 하인리히 쉬프 등 여러 거장을 사사했으며, 여러 명예로운 상을 수상하고 영예로운 무대에 올랐다. 현재 루체른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이 세 거장들은 브람스를 깊은 낭만적 감수성을 가진 따뜻한 마음으로 전달한다.

INDE113

'트리오 이노바'가 연주하는 피아솔라

다비드 장봉(튜바), 파트리크 지그마노프스키(피아노) 장-마르크 파비아노(아코디언)

튜바의 따뜻한 음색과 남다른 깊이로 듣는 피아솔라의 새로운 매력

튜비스트 다비드 장봉은 파리 아방센 콩쿠르 우승 등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현재 유동 음악원의 학장이자 베르사유 음악원의 교수이다. 피아니스트 지그마노프스키는 파리 국제 콩쿠르와 알리 소게 콩쿠르 등에서 실내악으로 우승했으며, 현재 파리 에콜 노르말과 유동 음악원의 교수이다. 아코디어니스트 파비아노는 여러 콩쿠르를 석권하고 마르세유 음악원에서 아코디언 전공을 창설했다. 크고 묵직한 튜바가 내는 따뜻하면서도 민첩한 연주는 이 악기에 대한 선입견을 완전히 바꿔준다. 파아노와 아코디온의 피아솔라 연주는 최상의 수준이다.

INDE108

포레: 바이올린 소나타 1번/ 드뷔시: 바이올린 소나타/ 라벨: 바이올린 소나타 2번

타티아나 사무일(바이올린), 데이빗 라이블리(피아노)

20세기 초 프랑스가 전하는 '벨 에포크'의 선물, 3인 3색의 바이올린 소나타

20세기에 들어서자 프랑스 음악계는 구시대의 표상이었던 생상스의 제자 포레,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조류를 일으켰던 드뷔시, 그리고 드뷔시로부터 벗어나려는 라벨, 이 세 작곡가가 주목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뛰어난 바이올린 소나타를 남겼다. 포레의 〈소나타 1번〉은 낭만음악의 극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했다면, 드뷔시의 〈소나타〉는 바로크 시대 프랑스 음악의 정신을 되살렸고, 라벨의 〈소나타 2번〉은 미국에서 건너온 새로운 조류를 받아들이는, 3인 3색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다양한 개성은 '아름다운 시절', 즉 '벨 에포크'의 선물이다.

INDE109

비발디 플루트 협주곡 1~6번

빈센트 루카스(플루트), 길레스 콜리아르(지휘 · 바이올린), 툴루즈 실내 관현악단

이탈리아산 바로크의 경쾌함 속으로

비발디(1678~1741)의 플루트 협주곡 여섯 곡이 수록된 음반으로, 1번 '바다의 폭풍우', 2번 '밤', 3번 '홍방울새'라는 부제가 붙은 곡들과 5 · 6 · 7번이 수록되었다. 빈센트 루카스는 바로크 전문 플루티스트로 활약중이다. 그동안 프랑스 인상주의에 주력해오던 그가 바로크로 다가가 비발디의 매력을 캐낸다. 표제를 드러내는 분위기, 맑고 깔끔한 음향감 속에서 이탈리아산 플루트 협주곡의 밝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INDE115

카롤 베파의 '백과 흑'

카롤 베파(피아노)

현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스럽고 진실한 음악적 영감

카롤 베파는 피아니스트, 작곡가, 즉흥연주자로, '음악의 승리' 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범상치 않은 아티스트이다. '백과 흑'이라는 제목에 수록된 그의 음악은 이지 리스닝, 컨템포레리 로맨틱, 재즈 등의 다양한 장르가 섞여있다. 이는 베파의 자연스럽고 진실한 음악적 영감의 소산으로, 재즈 스타일의 화음과 리듬, 낭만적인 선율, 그리고 자유로운 반주가 한데 어우러져 감상자의 마음을 소리로 가득 채운다. '베니스로 간 말러', '라이프치히의 잠', '악마의 계단', '뫼비우스', '거리 미술', '방랑자' 등 문학적 제목은 짙은 감수성을 불러일으킨다.

INDE118

재즈스탠다드 9곡-엘링턴 · 파커 · 클라우드 볼링 등

올리비에 앤소니 튈리아(트럼펫), 제라드 브링골프(피아노), 버나드 페디(베이스), 데니스 볼란덴(드럼)

시크한 프랑스식 재즈의 매력

관악기만큼 재즈와 쉽고 용이하게 호환되는 악기도 없다. 프랑스 관악주자들의 음반을 활발히 내고 있는 앙디송스(indesens) 레이블이 그 중심은 클래식과 현대음악에 두었다해도 진중한 곁눈질로 재즈 시리즈(indesens jazz)를 내고 있는 이유가 낼 것이다. 올리비에 앤소니 튈리아는 피아노 · 베이스 · 드럼으로 구성된 4중주단을 이끌고 있는 트럼페터. 듀크 엘링턴, 빅터 영, 찰리 파커 등 스탠다드 넘버 9곡으로 구성한 음반인데, 듣고 있으면 프랑스 재즈 거장 자크 루시에가 떠오른다. 감각적이며 과감한 미국식보다 프랑스식 재즈는 시크하고, 잔잔하게 흐르는 섬세함이 일품이다.

Inventa Classics

www.resonusclassics.com

INV1002 **[세계 최초 녹음]**

헨델: 알토를 위한 칸타타

로렌스 자조(카운터테너), 조너선 맨슨(첼로/비올), 앤드루 매긴리(테오르보/기타), 길레르모 브라케타(첌발로)

헨델의 능숙한 솜씨로 노래하는 인간의 희로애락

헨델이 남긴 다수의 칸타타들은 그 뛰어난 음악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오페라와 오라토리오에 가려져 있다. 미국 출신으로서 영국에서 공부하고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카운터테너인 로렌스 자조는 알토를 위한 헨델의 칸타타들을 통해, 헨델의 또다른 면모를 만나게 한다. 이 작품들은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는 듯 극적인 특징으로 가득하다. 인간의 열정적인 감정을 노래하면서 이를 표현하는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발견되는 등, 헨델의 능숙한 음악적 기법이 고루 들어있다. 자조의 음성은 매우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며,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Naxos

www.naxos.com

Naxos 8503298 **[30 Discs] [Special Price]**

클래식 음원의 보고 "낙소스"

낙소스 '30' 콜렉션 – 합창(The CHORAL Collection)편 12–21세기 합창모음곡집

바르샤바 필하모닉 · 라이프치히 챔버오케스트라 · 스콜라 바로크앙상블, 핀란드국립오페라 합창단 · 옥스포드 카메라타 외

합창명곡을 모은 '교과서적인 박스물'

낙소스 레이블이 꾸준히 내놓은 합창음악 음반을 한데 모아보니, 서양음악의 1000년 역사를 빛낸 합창 명작이 한 눈에 보인다. 30장의 CD로 구성된 이 박스물은 힐데가르트 폰 빙엔(1098~1179)의 '성스러운 하모니'부터 에릭 휘태커(1970~)의 합창음악이 담겨 있다. 중세부터 오늘날의 작품이 한데 모인 셈이다. 설령 장만 후에 듣지 않고 방치 하더라도, 그 리스트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합창음악의 역사를 한 눈에 꿸 수 있는 '교과서적인 박스물'이다. 하지만 어느 음반이든 하나를 걸어 보면 낙소스 특유의 정성과 성의를 느낄 수 있다. 각 CD마다 목소리의 울림과 잔향이 뛰어나며, 현장에서 살아 있는 합창자들의 숨소리까지 하나의 하모니로 들린다. 각 CD는 발매 당시의 재킷 이미지가 고스란히 새겨진 종이케이스에 담겨 있으며, 단면의 해설지에는 30장의 리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음반별 수록곡 내용]

[DISC 01] ***아그리콜라(1720~1774): 정말적인 운명 – 15세기 세속음악**
AGRICOLA: Fortuna desperata – Secular Music of the 15th Century

[DISC 02] ***아르네센(1980~): 합창곡집**
ARNESEN, K.A.: Infinity / Choral Works (Kantorei, Rinsema) **8.573788**

[DISC 03] ***베토벤: '영광의 순간을', 코랄 판타지**
BEETHOVEN, L. van: Glorreiche Augenblick (Der) /
Choral Fantasy (McCawley, City of London Choir, Royal Philharmonic, Wetton) **8.572783**

[DISC 04] ***브람스: 독일 레퀴엠**
BRAHMS, J.: Deutsches Requiem (Ein)
(A.L. Richter, S. Genz, Leipzig MDR Radio Choir and Symphony, Alsop) **8.572996**

[DISC 05] ***케루비니: 레퀴엠, 장송행진곡**
CHERUBINI, L.: Requiem No. 1 in C Minor / Marche funebre (Radio Svizzera Choir and Orchestra, Fasolis) **8.554749**

[DISC 06] ***도니제티: 아리스테아(칸타타)**
DONIZETTI, G.: Aristea [Cantata] (A.L. Brown, Hershkowitz, C. Adler, Members of Bavarian State Opera Chorus,
Simon Mayr Chorus and Ensemble, Hauk) **8.573360**

[DISC 07+08] ***드보르자크: 레퀴엠 Op.89**
DVORÁK, A.: Requiem (Libor, Wolak, Kirch, Monarcha, Warsaw Philharmonic Choir and Orchestra, Wit) **8.572874-75**

[DISC 09] ***포레: 레퀴엠, 미사곡**
FAURÉ, G.: Requiem / Messe Basse (Beckley, Gedge, Oxford Schola Cantorum, Carey, Oxford Camerata,
Summerly) **8.550765**

[DISC 10] ***제수알도: 마드리갈 4집**
GESUALDO, C.: Madrigals, Book 4 (Madrigali libro quarto, 1596) (Delitiae Musicae, Longhini) **8.572137**

[DISC 11] ***헨델: 메시아(하이라이트)**
HANDEL, G.F.: Messiah (Highlights) (Scholars Baroque Ensemble) **8.553258**

[DISC 12] ***하이든: 미사 브레비스, 하모니 미사곡**
HAYDN, J.: Masses, Vol. 6 - Masses Nos. 2, "Missa brevis" and 14, "Harmoniemesse"
(Trinity Choir, Rebel Baroque Orchestra, Burdick, Glover) **8.572126**

[DISC 13] ***야나체크: 가톨릭 미사, 신포니에타**
JANACEK, L.: Glagolitic Mass / Sinfonietta (Libor, Marciniec, Bentch, Gierlach, Malanowicz,
Warsaw Philharmonic Orchestra and Choir, Wit) **8.572639**

[DISC 14] ***오를란드 디 라소(1532~1594): 마태 수난곡**
LASSO, O. de: St Matthew Passion (T. Nielsen, L.J. Thomsen, Musica Ficta, Holten) **8.573840**

[DISC 15] ***레오냉(1135~1201) · 페로탱(1160~1230): 노트르담에서 불린 성가들**
LÉONIN / PÉROTIN: Sacred Music from Notre-Dame Cathedral (Tonus Peregrinus, Pitts) **8.557340**

[DISC 16] ***마이어(1763~1845): 테 데움/ 모차르트: 장엄 미사**
MAYR, S.: Te Deum / MOZART, W.A.: Missa solemnis (Simon Mayr Choir, Ingolstadt Georgian Chamber Orchestra,
Hauk) **8.570926**

[DISC 17] ***모차르트: 레퀴엠**
MOZART, W.A.: Requiem (M. Allan, Buter, M. Ullmann, Snell, Gewandhaus Chamber Choir, Leipzig Chamber Orchestra, Schuldt-Jensen) **8.557728**

[DISC 18] ***팔레스트리나: 미사, 3곡의 모테트**
PALESTRINA, G.P. da: Missa Sine Nomine / Missa L'Homme Arme / Motets (San Petronio Cappella Musicale Soloists, Vartolo) **8.553314**

[DISC 19] ***아르보 패르트: 파시오**
PÄRT, A.: Passio Domini nostri Jesu Christi secundum Joannem (St. John Passion) (Tonus Peregrinus, Pitts) **8.555860**

[DISC 20] ***펜데레츠키: 아침기도**
PENDERECKI, K.: Utrenja (Warsaw Philharmonic, Wit) **8.572031**

[DISC 21] ***퍼셀: 성 세실리아의 축일 송가, 테 데움**
PURCELL, H.: Ode for St. Cecilia's Day / Te Deum (Choir and Orchestra of the Golden Age, Glenton) **8.553444**

[DISC 22] ***라흐마니노프: 저녁기도**
RACHMANINOV, S.: Vespers (Finnish National Opera Chorus, E.-O. Söderström) **8.555908**

[DISC 23]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 지오반니 다르코**
ROSSINI, G.: Stabat Mater (1832 version) / Giovanna d'Arco (arr. M. Taralli) (Cullagh, Pizzolato, Sola, Palazzi, Württemberg Philharmonic, Fogliani) **8.573531**

[DISC 24] ***존 루터(1945~): 레퀴엠, 그 외의 세속 노래**
RUTTER, J.: Requiem / Anthems (Clare College Choir, Cambridge, City of London Sinfonia, T. Brown) **8.557130**

[DISC 25] ***슈만: 로망스와 발라드**
SCHUMANN, R.: Romances and Ballads (Aquarius, Smet) **8.570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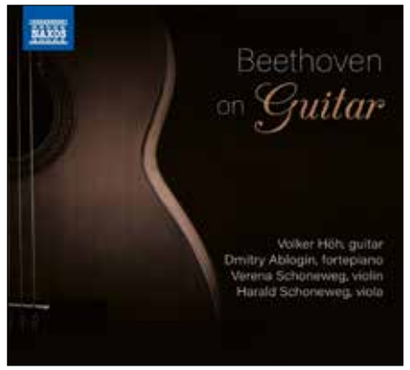
[DISC 26] ***반할(1739~1813)] : 목자 미사, 장엄미사**
VANHAL, J.B.: Missa Pastoralis / Missa Solemnis (TOWER Voices New Zealand, Aradia Ensemble, Grodd) **8.555080**

[DISC 27] ***바흐: 마니피카트, 비발디: 글로리아**
VIVALDI, A.: Gloria, RV 589 / BACH, J.S.: Magnificat, BWV 243 (Oxford Schola Cantorum, Northern Chamber Orchestra, Ward) **8.554056**

[DISC 28] ***힐데가르트 폰 빙엔(1098~1179): 성스러운 하모니**
HILDEGARD VON BINGEN: Celestial Harmonies - Responsories and Antiphons (Oxford Camerata) **8.557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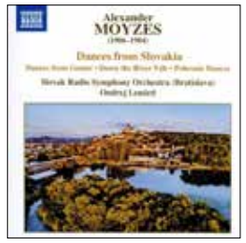
[DISC 29] ***에릭 휘태커(1970~): 합창음악**
WHITACRE, E.: Choral Music (Elora Festival Singers, Edison) **8.559677**

[DISC 30] ***영국 마드리갈과 노래들**
Choral Music - English Madrigals and Songs from Henry VIII to the 20th Century (Oxford Camerata, Summerly) **8.5530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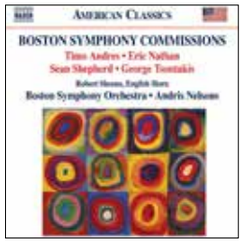
8551409
기타로 편곡한 베토벤 작품집
볼커 호(기타), 드미트리 아블로진(포르테피아노), 베레나 쇼네베크(바이올린), 하랄트 쇼네베크(비올라)

기타로 편곡한 베토벤 작품집, 원곡의 표현력과 대중성을 확장한 편곡의 묘미
베토벤은 보헤미아 출신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만돌린 연주자였던 친구 벤젤 크럼프홀츠와 여가수 조세핀 클레리를 위해 만돌린 작품을 작곡했다. 음반에 수록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한 장면(파파게노의 아리아, '나에게 귀여운 여인이나 아내가 있었으면')을 베토벤이 각색한 '변주곡'(Op.169)과 '세레나데'(Op.8)의 경우 기타로 편곡되기도 했는데, 이는 기타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던 베토벤 당시 상황을 담고 있기도 하다. 원곡의 표현력과 대중성을 확장해 원곡의 매력과 접근성을 높인 음반 수록 작품들은 오늘날 만돌린의 희소성과 함께 베토벤과 만돌린의 잘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인한 생소한 인상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매력적이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구비해도 좋을 듯 싶다.
*** '안단테와 변주'(WoO 44b, 1번 트랙), '소나티나'(WoO 43a, 2번 트랙), '아다지오(WoO 43b, 3번 트랙)', '소나티나'(WoO 44a, 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55477
알렉산더 모이제스: 슬로바키아 춤곡 작품집
브라티슬라바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온드레이 레나드(지휘)

모이제스 음악 언어의 근간을 이루는 슬로바키아의 유구한 전통과 풍광
헝가리의 작곡가 알렉산더 모이제스는 슬로바키아 음악 발전에 공헌했던 아버지 미쿨라스 모이제스와 비테슬라프 노바크로 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슬로바키아의 정체성을 탐구했던 모이제스에게 있어 슬로바키아 전통 음악은 음악의 근간이자 당대 유럽 음악의 조류에 헝가리 전통을 접목했던 음악 어법의 중요한 주제였다. 본 음반은 그동안 발매된 교향곡 작품에서 드러난 슬로바키아 전통 음악을 보다 직접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역동적인 분위기와 장대한 흐름, 다뉴브강을 따라 펼쳐지는 슬로바키아의 유구한 전통과 풍광을 담은 파노라마 영상을 보는 듯한 생생한 인상이 압도적이다. 교향곡 작품에 앞서 감상할 것을 추천한다.



8559874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위촉 작품집
로버트 시나(잉글리시 호른),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안드리스 넬슨스(지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안드리스 넬슨스 취임 1년 간 위촉된 작품들
14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1926년 쿠세비츠키가 음악 감독에 취임한 이후 코플랜드, 엘리엇 카터, 존 하비슨 등에게 위촉했던 작품들은 미국 현대 음악의 역사를 압축하고 있다. 2014년 새로운 음악 감독에 취임한 안드리스 넬슨스 역시 악단의 이 같은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본 음반은 안드리스 넬슨스 취임 1년 간 위촉된 (후일 초연된) 현대 음악 작품들을 담고 있다. 에릭 나단의 '문(門)의 공간'은 상호 연결된 세계(개별과 전체)를 유영하며, 조지 손타키스의 '소네트'는 셰익스피어 사망 400주년을 기념하고 있다. 베토벤과 브람스 등 음악 작품과 '대화'를 담고 있는 티모 안드레스의 작품, 칸딘스키와 몬드리안 등의 회화 작품과 '대화'를 담고 있는 션 셰퍼드의 작품들은 현대 음악의 정수를 보여준다.

8573842
라프: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2집
로렌스 카얄레(바이올린), 장–파비엥 슈나이더(피아노)

환희의 결말 & 인상적인 균형감, 낭만서정의 진수
1850년대 후반과 1860년대 초반에 걸쳐 작곡된 두 편의 바이올린 소나타(Naxos 8.573841)에서 얻은 자신감에 힘입어 요아힘 라프 1865년부터 1868년에 걸쳐 3편의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다. 작품의 헌정자인 멘델스존의 친구 파르디난트 다비드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협주곡을 연상시키는 색채와 노래하는 듯한 선율이 돋보이는 '바이올린 소나타 4번', 앙리 비외탕에게 헌정된 '바이올린 소나타 5번'은 '교향곡'으로 얻은 명성 이면, 작곡가가 가장 애정 하는 악기이자 작품 세계의 근간으로서 생의 순간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멘델스존의 서정, 환희의 결말과 인상적인 균형감. 낭만서정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강력 추천한다.

8573882
베토벤: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집
리타 하비스토(소프라노), 단 카를스트룀(테너), 케빈 그린로(바리톤),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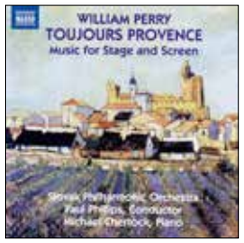
모차르트만큼이나 매력적인 베토벤의 성악곡
'합창' 교향곡이 보여주듯 인간의 목소리를 가장 극적으로 사용할 줄 알았던 작곡가 베토벤. 그 연원은 본 궁정 악단 시절에 접했던 모차르트의 오페라. 1782년 빈으로 이주한 후 살리에리로 부터 익혔던 이탈리아 양식의 오페라 작법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선보이고 있는 세게르스탐의 베토벤 작품 시리즈 네 번째 음반(발매일 순)은 베토벤이 남긴 약간의 성악곡들로 구성되었다. 슈베르트나 슈만의 작품만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차르트만큼이나 매력적인 베토벤의 성악곡. 사랑과 인생의 다양한 면을 재치 있게 표현하는 베토벤의 어법과 이에 충실한 연주. 시벨리우스와 베토벤 작품 이전 시리즈에서 보여준 세게르스탐의 해석이 진가를 발휘하는 음반이다.

8573931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 플루트 협주곡 1, 2번 (Weinberg: Flute Concertos Op. 75, 148)
클라우디아 스테인(플루트), 엘리자베타 블루미나(피아노), 슈체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데이비드 로버트 콜먼(지휘)

바인베르크플루트 작품 전곡을 수록한 음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 낙소스 레이블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폴란드 출신의 작곡가 미에치스와프 바인베르크의 작품 시리즈. 세계 최초로 바인베르크의 플루트 작품 전곡을 수록하였다. 소비에트 시기에 집중된 그의 플루트 작품들은 에밀 길렐스와의 호흡으로도 잘 알려진 플루트 연주자 알렉산더 코르네예프를 위해 작곡되었다. 작곡가의 생애를 모른 채 감상한다면 파릇파릇한 영감의 향연을, '형극의 시간'을 알고 감상한다면 '삐에로의 웃음'과 같은 인상을 느낄 만큼 작품은 드뷔시를 닮은 산뜻한 인상과 재치로 장식되어 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2번〉 중 바디네리'과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중 '정령의 춤' 한 대목이 등장하는 '플루트 협주곡 2번'과 최근 완전한 악보를 되찾은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5개 소품'은 음반의 백미.

8573942
베토벤: 관악 작품집
데이비드 시프린 & 폴 원진 조(클라리넷), 프랭크 모렐리 & 마리사 올레가리오(바순), 윌리엄 퍼비스 & 로렌 헌트(호른), 스테판 테일러 & 슈안–퐁 첸(오보에)

'고전'을 부유하는 베토벤의 새로운 영감
베토벤의 '관악 앙상블 작품'을 모아놓은 음반. 본 음반에 수록된 작품들은 20대 젊은 시절 베토벤의 작품들로서 이 중 그의 후원자 선제후 막시밀리안 프란츠를 위해 작곡했다고 알려진 '관악8중주(Op.103)'는 빈에서 하이든과의 일화로 유명하다. 화려한 멜로디와 여유로우면서도 조화로운 흐름, 작품의 면모는 모차르트의 '그랑 파르티타'를 연상시킬 만큼 고전적이지만, 경쾌한 대목에서 드러나는 파격적인 색채는 베토벤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느낄 수 있어 새롭다. 관습과 세태 – '고전'을 부유하는 베토벤의 새로운 영감. 하이든이 알아챘던 비범한 재능. '낭중지추'란 말에 어울릴만한 작품들, 연주자들의 뛰어난 균형감이 압권이다.



8573954 **[전곡 세계 최초 녹음]**
윌리엄 페리: 극음악 & 영화 음악 작품집
마이클 체르톡(피아노), 리처드 헤이먼(하모니카),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윌리엄 페리 & 폴 필립스(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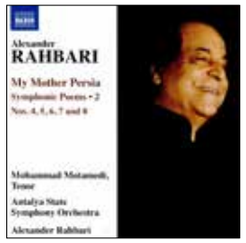
음악으로 그린 프로방스의 모든 것
무성 영화 음악을 비롯한 극음악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 출신의 작곡가 윌리엄 페리는 프로방스에 대한 애정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이 같은 애정을 바탕으로 탄생한 '영원한 프로방스(프로방스의 그늘에서)'는 작품의 부제처럼 음악으로 엮은 '프로방스 가이드북'이라 할 만큼 고흐의 그림과 라벤더 그리고 포도원의 풍광 등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프로방스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이 밖에 브로드웨이에서의 경력을 보여주는 '버드나무 바람', '삼총사'를 주제로 한 작곡가의 대표작 '소드플레이' 등 수록 작품들은 1982년부터 시작해 2018년 까지 36년간 이루어진 녹음 기간이 보여주듯 작곡가 열정의 산물, 어느 하나 놓칠 수 없는 매력으로 가득하다. 특히, 살아 숨쉬는 듯한 작품 속 캐릭터들은 단연 압권이다.

8573956
베토벤: '에그몬트' & 행진곡 작품집
마티 살미넨(베이스, 나레이터, 에그몬트), 카이사 란타(소프라노, 클레르헨), 투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베토벤의 극음악에 대한 관심, '영웅의 생애'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음반
베토벤은 (결과적으로) 〈피델리오〉이외 완성된 오페라 작품을 남기지 않았지만, 〈코리올란〉 등에서 볼 수 있듯 극음악에 대한 관심은 여러 작품에 남아있다. 본 음반은 16세기 네덜란드의 영웅 '에그몬트'를 위한 음악, 에그몬트와 클레르헨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레오노레' 한 대목을 비롯해 '포츠담의 잔다르크' 엘로노아르 프로챠스카를 다룬 부수음악 〈엘로노아르 프로챠스카〉 중 '장송행진곡', '낙랑공주와 호동왕자'를 연상시키는 로마 '타르페아 절벽'에 얽힌 이야기 '쿠프너의 타르페아를 위한 개선행진곡' 등이 수록되었는데, 이들 작품은 베토벤의 극음악에 대한 관심을 '영웅의 생애'와 관련된 주제를 통해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특히,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여정의 첫머리에 위치한 '6개의 미뉴에트'는 또 다른 영웅, 베토벤의 자화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하다. 오늘날 서곡으로 유명한 '에그몬트'의 전모를 수록한 것만으로도 음반의 가치는 충분하지만, 레이프 세게르스탐의 해석은 이 같은 음반의 가치를 더욱 고양하고 있다.

8574018
빌라–로부스: 협주곡과 실내악 작품집
마누엘 바루에코(기타), 호세 스타넥(하모니카), OSESP 앙상블 & 상파울로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지안카를로 게레로(지휘)

음악에 대한 빌라–로부스의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실내악 그리고 협주곡 작품들
브라질 작곡가들의 음악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명하는 낙소스 화제의 시리즈, 브라질 외무부에서 후원하는 '브라질의 음악' 3집에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곡가 빌라–로부스의 실내악과 협주곡 작품을 수록했다. 기타를 위한 작곡가의 마지막 작품, 세고비아를 위해 작곡한 '기타 협주곡'은 활기 넘치는 선율과 리듬이 연출하는 세련된 영감이 인상적으로 드러난다. 같이 수록된 '하모니카 협주곡'과 실내악 작품은 반음계 선율이 연출하는 매혹적인 반향이 신선한 인상을 선사한다. 음악에 대한 빌라–로부스의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대담한 시도를 보여주는 작품들, 앞으로 펼쳐질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기에 부족함 없다.



8574065 **[전곡 세계 최초 녹음]**
알렉산더 라흐바리: 나의 어머니 페르시아 – 교향시 2집
모하메드 모타메디(테너), 국립 안탈랴 교향악단(연주), 알렉산더 라바리(지휘)

끊임없이 이어지는 페르시아 전통 스타일의 즉흥적인 선율과 리듬
이란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알렉산더 라흐바리는 유럽에서의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페르시아의 장대한 전통을 집약한 대작 '교향시 – 나의 어머니 페르시아'를 작곡했다. 1집(8.574064)에서 선보인 3편의 교향시에 이어 2집에서는 5편의 교향시가 수록되었다. '교향시 1–3번'(1집)이 유년 시절 자신이 경험했던 페르시아의 모습들을 다루었다면, 2집은 이제 페르시아(아랍)와 세계의 관계 그리고 영원한 평화에 대한 작곡가의 바람을 담고 있다. 13세기 이란의 위대한 시인 시다 쉬라지의 시를 텍스트로 한 '교향시 5번(세계를 사랑하며)', 모하메드 나세리의 시를 텍스트로 한 '교향시 6번(나의 어머니 페르시아)'은 8부작 교향시의 정수라 할 만하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페르시아 전통 스타일의 즉흥적인 선율과 리듬은 시종일관 신비롭고 강렬하다.

8574100 **[전곡 세계 최초 녹음]**
쇼스타코비치: 영화 음악 작품집('빈대' & '사랑과 증오')
만하임 오페라 콰이어(합창), 도이치 슈타츠필하모니 라인란트–팔츠(연주), 마크–피츠 제럴드(지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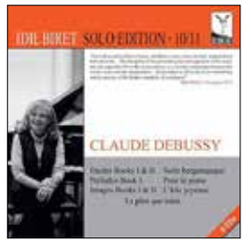
서로 다른 장르의 결합, 뛰어난 영화 음악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작품
'신 바빌론'과 비슷한 시기에 작곡된 극음악 '빈대'는 '혁명'과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대 및 기존 질서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다. 쇼스타코비치 최초의 극음악인 이 작품은 당시 지방 소방대 악단 스타일의 음악과 오펜 바흐의 '캉캉'을 연상시키는 춤곡, 미국 대중음악 스타일, 소비에트 의례 음악 스타일 등 서로 다른 장르가 결합되어 있다. '러시아 내전'을 주제로 한 영화 〈사랑과 증오〉는 마크–피츠 제럴드에 의해 세계 최초로 오리지널 스코어의 전모가 복원된 작품이다. 영화 〈아이즈 와이드 셧〉의 '재즈 모음곡'으로 익숙한 장르의 융합, 이를 통해 영화의 장면을 탁월하게 표현했던 뛰어난 영화 작곡가 쇼스타코비치의 면모, 쇼스타코비치 영화 음악의 전모를 조명하고 있는 마크–피츠 제럴드 또 하나의 역작이다.

8574157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매튜 나이트 & 사이먼 콕스 편곡, 금관 7중주와 타악기 버전)
데릭 제이코비(나레이션), 셉투라(연주)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금관의 광채로 재탄생한 영원한 크리스마스의 고전
금관 악기의 신선한 매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금관 7중주단 셉투라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을 '금관 7중주와 타악기를 위한 버전'(매튜 나이트와 사이먼 콕스 편곡)으로 선보인다. 셰익스피어를 비롯한 연극 무대, 〈언더월드〉 등 영화 작품에서 활약하고 있는 배우 데릭 제이코비가 나레이션을 맡았다. 장면 사이사이 행간을 채워주는 명배우의 해설, 발레 장면들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타악기의 음향 효과와 관악기의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광채 그리고 재치 넘치는 기교에 이르기까지 이제까지 접했던 〈호두까기 인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독창성'은 본 음반의 가장 큰 매력이다. 바로크 음악을 재해석 했던 2집 음반(8.573386), 크리스마스 음악을 담았던 전작(8.573719)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한 인상. 스타일과 예술성 모두를 갖춘 또 하나의 수작이다.

8579065
캐럴 페스티벌
실비아 맥네어(소프라노),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콰이어(합창), 인디애나폴리스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에릭 스타크(지휘)

압도적인 음향,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을 담은 캐럴 모음집
2015년과 2016년 인디애나 폴리스 심포닉 합창단 페스티벌 콘서트 실황이 담긴 음반. 그레미상에 빛나는 소프라노 실비아 멕네어의 따뜻하고 우아한 목소리, 인디애나폴리스 심포니 콰이어의 기쁨으로 가득한 합창은 장대한 스케일의 연주와 함께 화해와 평화, 환희와 희망이라는 천상의 메세지 – 크리스마스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로웰 메이슨의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시작으로 바흐와 멘델스존 그리고 존 루터를 거쳐 화려한 금관, 몬테베르디의 〈오르페우스〉 한 대목을 닮은 글렌 루돌프의 '이사야가 본 꿈'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본 음반은 전통과 현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른 크리스마스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캐럴 모음집이라 하겠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갖춰 놓을 만한 음반!



8571401–02
이딜 비렛: 드뷔시 작품집(독주곡 작품 10집)
이딜 비렛(피아노)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을 자아내는 간결하고 명징한 터치
이미 10대에 피아니스트로서 자신 만의 확고한 연주 세계를 확립하기 시작한 터키가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 그녀가 자신의 '브랜드'(IBA – 이딜 비렛 아카이브)를 통해 선보이는 – 피아노의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 방대한 양의 음악적 성과들은 굳이 그녀의 재능을 인정했던 나디아 블랑제나 알프레도 코르토를 언급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재 생존해 있는 다른 어떤 연주자와 구분되는 그녀의 독보적인 위상을 보여준다. 2018년에서부터 2019년에 걸쳐 녹음한 '독주곡 작품 10집'에는 드뷔시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쇼팽과는 사뭇 다른 그러나 특유의 간결하고 명징한 터치는 에릭 사티를 연상시키는 각양각색의 스펙트럼을 자아낸다. 회화보다는 텍스트로 표현된 인상을 음악으로 묘사하는 듯한 느낌은 사뭇 새롭다.

8574071
베토벤: 가곡 1집
리자베스 브로이어(소프라노), 라이너 프로스트(테너), 폴 아르민 에델만(바리톤), 리카르도 보호르케즈(베이스), 베르나디테 바르토스(피아노)

숨겨진 1인치, 베토벤 가곡의 매혹적인 세계
오케스트라 작품에 가려진 나머지 베토벤의 성악 작품 그 중에서도 가곡은 모차르트, 슈베르트, 슈만에 비해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본 시절부터 가곡을 작곡하기 시작했던 베토벤은 일생 동안 약 90여 편의 가곡을 남겼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낙소스에서는 숨겨진 1인치, 베토벤 가곡의 매혹적인 세계를 선보인다. 〈겨울 나그네〉 한 대목을 닮은 '탄식', 같은 제목의 슈베르트의 작품만큼이나 극적인 '마왕', '새로운 사랑, 새로운 기쁨'과 '말해주오, 내 님이여, 나를 사랑한다고'의 산뜻한 분위기, 〈에그몬트〉 중 클레르헨의 노래('기쁨과 슬픔으로 가득 차'), 세계 최초로 녹음된 '내 팔로 그대를 품겠소'(17번 트랙)는 본 음반에서 가장 주목되는 작품들이다. 성악진의 뛰어난 기량은 음반의 가치를 높인다. '성악과 관현악을 위한 작품집(8.573882)'과 같이 구비할 만한 음반. *** '내 팔로 그대를 품겠소'(1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4078
바로크로 간 비틀즈 2집
달리보르 카르베이(바이올린), 피터 브라이너 관현악단(연주), 피터 브라이너(지휘)

고전의 의미, 고전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는 화제의 음반 2집
비틀즈의 11번째 스튜디오 앨범이자 공식적인 마지막 녹음 그리고 앨범 재킷으로도 유명한 〈애비로드〉 발매 50주년을 맞이해 피터 브라이너가 특별한 헌정 앨범을 선사한다. 1993년에 발매된 화제의 음반 '바로크로 간 비틀즈 1집'(8.555010)에 이은 2집에는 바흐와 비발디의 작품에 비틀즈 작품들을 결합해 탄생한 색다른 패턴의 결과물이 수록되어 있다. 단순히 바로크 악기로 연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각의 바로크 작품에 비틀즈의 작품들이 스며드는 형태로 편곡함으로써 바로크와 비틀즈라는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는 피터 브라이너 만의 방식은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고전의 의미 또는 고전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하나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음반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비틀즈와 바흐의 각별한 관계를 실감할 만한 음반. 비틀즈 팬뿐만 아니라 클래식 애호가들도 극찬할 만한 음반. 강력 추천한다.

8574093 **[전곡 세계 최초 녹음]**
트럼본과 함께 떠나는 여행 1집: 겨울 여행 –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매튜 지, 트럼본 편곡 버전)
매튜 지(트럼본), 크리스토퍼 글린(피아노)

겨울 나그네의 외침에 답하는 봄의 따스한 반향 – 내적 환청의 반향을 절묘하게 표현한 버전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는 작곡가의 대표작이자 불멸의 성악 레파토리로 남아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말처럼 나그네에게 한 없이 적대적이기 만한 겨울, 그 시절 풍경 속에서 나그네의 내적 시선은 끝내 '봄'을 향하고 있지 않았을까. 매튜 지가 트럼본과 피아노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한 〈겨울 나그네〉는 수많은 성악가들이 체화한 나그네의 독백처럼 '그윽한 절규'로 다가오나 금관 특유의 농밀한 질감을 머금은 음성은 겨울 나그네의 외침에 답하는 봄의 따스한 반향 혹은 '내적 환청'의 반향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 사뭇 다르다. 겉은 차갑지만 내면은 따뜻한 겨울 나그네의 봄 꿈. 슈베르트 내면의 자화상과도 어울릴 법한 색다른 버전이다. 아직은 낯선 트럼본의 매력에 빠져들 수 있는 음반.

8578357
공부와 업무를 위한 바흐 음악 작품집

업무와 공부의 배경 음악이 될 만한 바흐 작품들

바흐의 '에어'와 함께 등장하는 도서관 풍경은 영화 〈세븐〉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오래 전 학교 등에서는 같은 음악을 '명상의 시간' 배경 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태교 음악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모차르트의 음악처럼 바흐의 음악이 작업과 공부 또는 '쉼'의 때에 가장 적합한 배경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낙소스에서는 집중력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순간 이를 북돋을 만한 바흐 작품들을 엄선했다. '눈 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BWV.140)를 비롯해 영화 〈바그다드 카페〉에 등장했던 '평균율 클라이버', 영화 〈양들의 침묵〉에 등장했던 '골드베르크 변주곡' 등을 거쳐 '성령이 우리 약함을 도우시니'(BWV.226)로 마무리 되는 작품들을 낙소스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일상의 순간에 흐르는 바흐, 삶의 반려 음악. 그 자체로도 만족스럽지 않을까.

8579051
카밀로 슈만 & 로랑 메나쥬: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레오 할스도르프(호른), 카에 시라키(피아노)

독일 낭만주의의 찬란한 순간을 말해주는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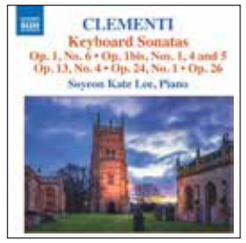
라이프치히에서 라이네케의 제자로 수학한 독일의 작곡가 카밀로 슈만은 뛰어난 오르간 연주자이자 피아노 연주자 그리고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었다. 그는 동시대 쇤베르크와 스트라빈스키와는 달리 전통적인 스타일을 고수했는데, 음반에 수록된 호른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호른 소나타 1 & 2번', '3개의 연주회용 소품')은 동시대 독일 낭만주의의 황혼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다. 룩셈부르크의 대표 작곡가 로랑 메나쥬는 합창 음악과 관악기를 위한 작품에서 뛰어난 면모를 나타냈는데, 산 정상의 풍경을 그린 '산 위에서'는 시선과 방향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산 아래의 풍경을 재치와 운치 있는 필치로 표현하고 있다. 온기 어린 호른의 음색, 재잘거리는 피아노 선율의 선려한 어울림은 마냥 그윽하기만 하다. *** '산 위에서'(11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422
판초 블라디게로프: '불가리아 모음곡' & '7개의 교향적 불가리아 춤곡' & '바르다르 랩소디'

루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네이든 토도로프(지휘)

불가리아 민속 음악과 클래식의 멋스런 결합

불가리아의 작곡가 블라디게로프는 스위스에서 태어났으나 불가리아 출신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유년 시절부터 불가리아 전통에 익숙했다. 후에 소피아로 이주한 후에는 불가리아 출신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서 1 · 2차 세계 대전 사이 유럽과 미국에서 작품이 연주되는 등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오페라 '차르 칼로얀'을 비롯해 발레 음악, 교향곡, 협주곡과 실내악 등 다양한 장르의 남긴 그의 작품들 중 본 음반에는 쇼팽 '군대 폴로네이즈'의 불가리아 버전이라고 일컫는 '바르다르 랩소디', 이국적인 요소와 역동적인 색채가 인상적인 '7개의 교향적 불가리아 춤곡'과 '불가리아 모음곡'이 수록되었다. 작곡가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세 작품, 민속 음악의 요소와 유럽 음악의 전통의 멋스런 결합이 선사하는 색다른 활기에 빠져볼 것을 적극 추천한다.



8573922
클레멘티: 건반소나타 작품집(Op.1, 1a, 13, 24, 26)

이소연(피아노)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클레멘티의 천재적인 영감을 살린 연주

모차르트에게는 질투를, 베토벤에게는 찬사를 받았던 무치오 클레멘티의 피아노 작품은 오늘날 피아노의 기초를 마련한 명작으로 남아있다. 수잔 알렉산더–막스에 이어 계속되고 있는 시리즈 다섯 번째 음반에는 클레멘티 일생의 후원자 피터 벡포드에게 헌정한 '건반소나타 1번'과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명장면을 연상시키는 세기의 대결 – 모차르트와 벌인 피아노 경연에 등장한 작품과 짝을 이루는 '작품번호 24 중 1번'등이 수록되었다. '기계적'으로까지 느껴지는 '오른손의 활력'이 잦는 매혹적인 선율의 흐름, 스카를라티 '건반소나타'에서 차분한 잔향과 파격적인 발상의 유려한 흐름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이소연은 다시 한 번 전작의 색채로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클레멘티의 천재적인 영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강력 추천한다!

8573929
레오폴트 코젤루흐: 합창 음악 작품집('요제프, 인류의 축복', '미사 C장조', '아리아 – 밤의 장막이 세계를 덮네', '아리아 – 신이여 내 곁에 오소서', '마리아 테레지아 서거를 탄식하며')

지모나 아이징거(소프라노), 지그프리트 고리츠(나레이터), 필립 드보르작(하프시코드), 보니 푸에리 체코 소년합창단(합창), 파두리체 체코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마렉 슈틸레츠(지휘)

당대 빈 음악계의 정점, 코젤루흐의 합창 작품들을 세계 최초로 조명한 음반

낙소스에서는 18세기 후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 당대 빈 음악계의 정점에 있었던 그러나 지금은 잊힌 코젤루흐의 작품 세계를 망각으로부터 다시 세상 속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모차르트('티토왕의 자비')와 함께 위촉된 칸타타 '국왕 만세'(8.573787)와 교향곡 작품집 2편(8.573627 & 8.573872)에 이어 본 음반에서는 코젤루흐의 합창 작품들을 세계 최초로 수록했다. 당시 '프리메이슨의 수호자' 요제프 2세를 위해 작곡한 '요제프 인류의 축복', '미사 C장조', 마리아 테레지아의 서거를 애도하기 위해 작곡한 '마리아 테레지아 서거를 탄식하며'를 비롯해 아리아 2편은 한편의 '멜로드라마'라고 할 만큼 이채로우면서도 신비롭고 경이로운 분위기가 연출하는 독특한 서정이 압도적이다. 균형 잡힌 음향은 작품의 분위기를 배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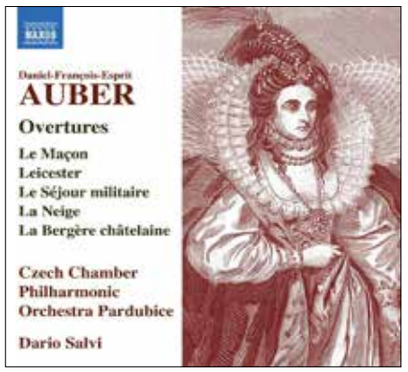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59872–73 **[2CDs]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로리 레이트먼: 가곡집(육체 안의 생명 외)

제니퍼 체크 & 애쉴리 에머슨 & 새리 그루버 & 알리사 조드하임 &
모린 맥케이(소프라노), 마가렛 고리시액(메조소프라노), 데일 테일러(카운터테너),
도미닉 암스롱 & 베일 라이드아웃(테너), 렌델 스칼라타(바리톤),
토마스 크레인스(첼로), 게리 루이(알토 색소폰), 에밀리 스칼라(플루트),
워렌 존스 & 앤드류 로젠블럼 & 로리 레이트먼 & 커스틴 테일러(피아노)

신변잡기적인 추억에서부터 역사적인 사건에 이르는 주제, 작곡가의 음악 수필

미국 최고의 성악 작곡가 중 한 사람인 로리 레이트먼이 1997년에서부터 2017년에 이르는 약 10년간 작곡한 가곡 49편이 수록된 음반이다. "눈을 다시 뜨게 되었을 때 빛이 있었네". 친구의 눈 수술과 치유를 위해 작곡한 '일루미네이션'으로 시작하는 작품들은 엘리자베스 비숍, 파울 첼란, 다나 조이아, 데이비드 메이슨, 실비아 플래스, 조이스 섯븐의 시를 텍스트로 어린 시절의 유쾌한 추억 등 신변 잡기적인 요소에서부터 홀로코스트의 애상(역사적 사건)에 이르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과거와의 결별'을 다루는 '육체 속의 생명'이 보여주듯 색소폰과 피아노 등 색다른 악기의 어울림이 연출하는 심연의 파장, 담백하면서도 정갈한 필치로 써내려간 '음악 수필'의 아련한 멋에 빠져보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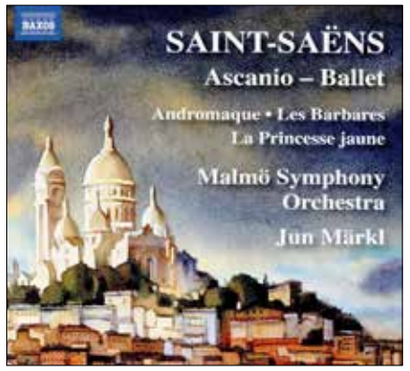
8574005
다니엘–프랑수아–에스프리 오베르: 오페라 서곡 작품집

파두리체 체코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다리오 살비(지휘)

오베르의 오페라 서곡 전곡 녹음 프로젝트, 역사적인 첫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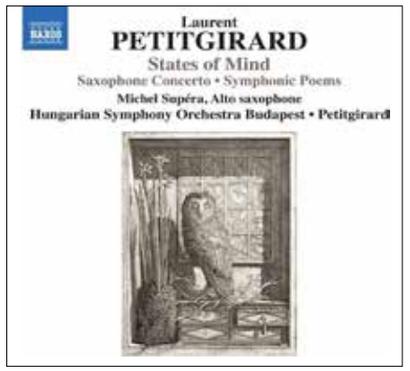
프랑스의 위대한 작곡가 오베르. 케루비니에게 작곡을 배웠던 그는 다양한 장르에 결쳐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오페라는 오베르의 이름과 동일시 될 정도로 후대 오페라 장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바그너와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오베르는 31편의 오페라–코미크, 7편의 오페라, 3편의 서정 드라마, 7편의 무대 작품을 남겼다. 이 중 '서곡'(8.573553)은 우아하고 세련된 파리의 정취가 담긴 오베르 작품의 매력을 배가시킨 볼프강 되르너의 멋진 해석을 통해 선보인 바 있다. 다리오 살비는 이와는 별개로 오베르의 오페라 서곡 전곡 녹음 프로젝트 그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는다. 최근 체르니의 '론디노'(8.573998)에서도 감상할 수 있었던 오베르의 대표작 '석공'을 비롯해 극적이고 우아하면서도 대담한 색채를 내뿜는 작곡가의 '서곡'들이 세계 최초(1편 제외)로 수록되어 있다. 로시니의 '서곡'에 버금가는 매력, 앞으로 선보일 시리즈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연주.

*** '눈 또는 새로운 아인하르트'(11–12번 트랙) 제외,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4033
생상스: 발레음악 '아스카니오', 극음악 작품 서곡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윤 메르클(지휘)

점묘화의 정교함, 수채화의 화사한 색감을 머금은 생상스의 발레음악과 극음악
생상스가 남긴 작품 13편의 오페라를 비롯해 1편의 발레 음악, 6편의 부수 음악 중 '삼손과 데릴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낙소스 화제의 생상스 작품 시리즈를 선보이고 있는 윤 메르클은 '죽음의 무도'를 비롯한 '교향시 작품'(8.573745)과 '관현악 모음곡'(8.573732)에 이어 협주곡, 실내악, 교향곡 등 대중적인 작품에 가려진 생상스의 또 다른 매력을 탐구한다.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주제로 한 발레곡 '아스카니오'는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을 연상시킬 만큼 '프시케와 큐피트'를 비롯한 각각의 신들과 장면에 대한 묘사가 탁월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야만인' · '호타 아라고나제' · '동양의 공주' 서곡은 생상스 특유의 이국적인 색채를 머금은 명징한 활력이 매력적으로 드러난다. 윤 메르클은 점묘화의 정교함, 수채화의 화사한 색감을 머금은 생상스의 발레음악과 극음악의 진수를 보여주며 전작의 명성을 훌륭하게 잇는다.
강력 추천!



8574034
로랑 프티지라르: 마음의 상태('정신' & '고독' & '마라톤' & '플랜느')
미셸 스페라(색소폰), 부다페스트 헝가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로랑 프티지라르(지휘)

마음 속 다면적인 인상을 포착한 작품들
지휘자 그리고 작곡가로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의 작곡가 로랑 프티지라르는 낙소스 레이블에서 출시한 뒤비뇽의 작품('비밀 교향곡'과 '세 폭의 그림', 8.5354851), 오페라 '엘리펀트 맨 조셉 메릭'(8.557608–09)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네 번째 오페라 '구루'와 발레곡 '어린 왕자'를 녹음했던 헝가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편의 '색소폰 협주곡'('정신')과 3편의 '교향시'('고독' & '마라톤' & '플랜느')가 담긴 앨범 '마음의 상태'를 선보인다. 마음 속 다면적인 인상들을 포착하고 있는 작품들은 특히, 감정과 정신의 끊임없는 흐름과 내면의 목소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색소폰의 표현력이 극대화 되고 있다. 탄생과 사랑 그리고 죽음까지도 아우르는 작품의 스케일은 '꿈'과 그 '실현'을 상징하는 '플랜느'로 마침표를 찍는다. 섬세한 음향의 깊은 여운이 인상 깊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4073
발트의 영감: 발트 지역 작곡가들의 피아노 사중주 작품집
이폴리토프–이바토프 피아노 사중주단(연주)

사파이어 블루의 풍광, 발트의 영감 – 〈설국〉 한 대목이 떠오르는 눈 부신 인상
아르보 패르트와 에릭 에센발트 등이 대표하는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의 작곡가들은 폴란드에 버금가는 현대 음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 본 음반은 약 10년의 나이 차를 갖고 있는 세계적인 두 작곡가(리투아니아 출신의 아르바나스 발키스, 라트비아 출신의 페데리스 바스크스)의 피아노 사중주를 수록하고 있다. 미니멀리즘을 매개로 라트비아의 민속 음악의 고풍스런 색채를 더해 발트해의 풍광에서 얻은 무한한 영감을 표현한 바스크스의 작품은 신비적이고 묵시적인 아르보 패르트의 색채와 훌륭한 비교 대상이 될 듯 싶다. 세계 최초 녹음인 발키스의 세 작품('블랙선의 눈', '설원의 히야신스', '은하수')은 사파이어 블루의 풍광을 닮은 발트의 영감, 〈설국〉에 등장하는 하이쿠 한 대목이 떠오르는 눈 부신 인상을 내뿜고 있다. 발트 지역 현대 음악의 현주소를 짐작할 수 있는 음반이라 할 수 있겠다. ***** **'블랙선의 눈'(1번 트랙), '설원의 히야신스'(2번 트랙), '은하수'(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4047
레오폴드 코젤루흐: 교향곡 3집
필립 드보르작(하프시코드), 파두리체 체코 챔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렉 슈틸레츠(지휘)

하이든 초기에서부터 베토벤을 예견하는 다양한 스타일, 구조미가 돋보이는 작품
18세기 빈에서 명성을 누렸던 작곡가들 중에는 상당 수의 보헤미안 출신 작곡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레오폴드 코젤루흐는 레오폴드 2세 대관식을 위해 위촉된 작품이 상징하듯 빈 음악계의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다. 코젤루흐 전문가 밀란 포스톨카(PosK 번호)에 의하면, 현재 400여 편에 이르는 코젤루흐의 작품 중 교향곡은 30여편으로 추측되며, 그 중에서 16편의 악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1편 유실). 낙소스 레이블을 통해 코젤루흐의 작품 세계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마렉 슈틸레츠는 1집(8.573627)과 2집(8.573872)이어 코젤루흐의 교향곡 네 작품을 녹음했다. 구조미와 대담한 발상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하이든 초기에서부터 베토벤을 예견하는 스타일에 이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전작의 품격있는 연주는 여전히 살아있다.

8574039
베토벤: 교향곡 1 & 3번(훔멜 편곡, 실내악 버전)
우베 그로트(플루트), 굴드 피아노 트리오(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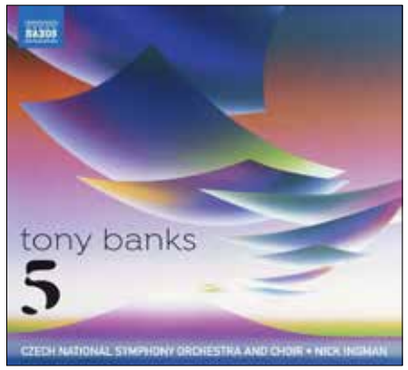
더욱 눈부신 영감, 보다 박진감 넘치는 신선한 편곡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수많은 음반들이 봇물 터지듯 발매되고 있다. 대부분이 베토벤의 작품에 치중하고 있지만, 베토벤의 인간관계와 연관된 작곡가들의 작품 역시 베토벤을 이해하는 소재가 된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을 듯하다. 베토벤의 라이벌이자 절친 이었던 훔멜은 베토벤의 '교향곡 1–7번' 그리고 '현악 7중주(Op.20)'를 '피아노 포르테, 플루트,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버전으로 편곡했다. 훔멜의 '장엄미사'(8.557193)와 훔멜이 편곡한 모차르트 '후기 교향곡'(8.572841 & 8.572842) 등에서 활약했던 우베 그로트는 굴드 피아노 트리오와 함께 훔멜이 해석한 베토벤을 조명한다. '베토벤 – 교향곡 1 & 3번'이 수록된 시리즈 첫 번째 음반, 플루트가 읊는 베토벤의 번뜩이는 영감은 모차르트의 영감만큼이나 눈부시며, '교향곡 3번 3악장'의 호른 선율을 재치 있게 표현한 대목이 보여주듯 원곡의 박진감은 한껏 기치를 올린다.
주목할 만한 음반!

8574091
파울 유온: 바이올린 소나타(1–3번)
찰스 웨더비(바이올린), 데이비드 코레바(피아노)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자연 & 신비로운 풍광으로 가득한 작은 서사시
스위스계 러시아 작곡가인 파울 유온은 러시아에서는 아렌스키와 타네예프, 베를린에서는 클라라 슈만의 이복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볼데마르 바르기엘 로부터 작곡을 배웠다. '러시아의 브람스'라는 호칭이 보여주듯 그의 작품 세계는 차이코프스키와 멘델스존 그리고 슈만의 색채를 주축으로 생의 후반기에 연구했던 시벨리우스적인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초기에서부터 원숙기에 이르는 '바이올린 소나타' 세 작품은 각각 작곡가의 '음악적 진화'가 배어 있다. 특히, '바이올린 소타나 2 & 3번'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자연과 신비로운 풍광으로 가득한 작은 서사시'라 할 만큼 각별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하르샤니의 '파리의 헝가리인'(8.573556)에서 작품의 독특한 분위기를 살린 연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찰스 웨더비와 데이비드 코레바의 뛰어난 호흡은 여전하다.

8574117
아타나스 오코조노프: 기타 소나타 작품집(1–5번)
코타스 토시디스(기타)

발칸 전통 음악의 파격적인 변용, 현대 기타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
불가리아 현대 음악의 최정상에 위치한 작곡가 아타나스 오코조노프는 현재까지 두 편의 협주곡을 비롯해 독주곡, 이중주, 사중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80여 편의 기타 작품을 작곡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연주되고 있는 그의 작품 중 본 음반에는 작곡가의 지향점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5편의 '기타 (독주) 소나타'가 수록되어 있다. 각각의 소나타는 작곡가에게 심오한 영향을 끼친 바르톡(2번)을 비롯해 본 음반의 메인 연주자인 코타스 토시디스(4번), 파블로 마르케즈(1번), 조란 듀기치(3번), 드미트리스 코트로나키스(5번)에게 헌정되었다. 코타스 토시디스는 이미 전작 '언 리얼'에서 다뤘던 '바르톡(에)의 헌사'와 함께 발칸 전통 음악의 파격적인 변용이라 할 만한 작품들의 까다로운 스타일을 민첩하고 세련된 연주로 소화하고 있다. 현대 기타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작품들에 빠져볼 것을 권한다.



8574141

토니 뱅크스: '5'(닉 잉먼, 오케스트라 편곡 버전)

존 바클레이(코넷 & 트럼펫), 마틴 로버트슨(알토 & 소프라노 색소폰, 두둑), 프랭크 리콜티(퍼커션), 스칼리아 캉가(하프), 국립 체코 심포니 오케스트라 합창단(합창), 토니 뱅크스(피아노 & 첼레스타), 국립 체코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닉 잉먼(지휘)

우주적인 스케일, 홀스트의 〈행성〉 & 영화 〈스타트랙〉 또는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작품

'5'는 프로그레시브 록 그룹 '제네시스(Genesis)'의 키보드 주자이자 작곡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토니 뱅크스가 2014년 챌트넘 패스티벌의 위촉을 받아 작곡한 작품으로서 '5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카데미와 그레미에서 인정받은 영화 음악 작곡가, 영화 〈퀼스〉 등의 음악으로도 익숙한 닉 잉먼이 편곡과 지휘를 맡았다. '100만년의 전주곡'으로 시작하는 작품은 '깨어남'과 '조락'의 흐름을 거쳐 '재생'에 이르는 역사 또는 우주의 유구한 '영고성쇠'를 장대한 선율과 영화적인(또는 우주적인) 스케일로 표현하고 있다. 작품의 면모는 홀스트의 〈행성〉과 영화 〈스타트랙〉 또는 영화 〈아바타〉의 한 장면을 연상시킬 만큼 강렬하다. 〈관현악 모음곡 '세븐(7)'〉(8.557466)과 〈관현악을 위한 6개의 소품(앨범 제목 : '6')〉(8.572986)도 참고할 만하다. 적극 추천한다.

8578359

독서를 위한 클래식 음악

구름 위의 커피, 애독가를 꿈꾸게 하는 음악

차(커피), 음악, 독서의 '삼위일체'가 이루는 궁합은 간서치(看書癡)와 애독가를 미혹하고 꿈꾸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굳이 애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보았을 법한 여유로운 풍경 속 한 장면.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면 어떤 작품들이 어울릴까. 낙소스 레이블에서는 바로 이 순간 함께할 만한 음악들을 엄선해서 한 장의 음반에 담았다. 바로크와 고전 시대에 치우친 듯한 동류의 음반과는 달리 수록 작품들은 차이코프스키, 나디아 블랑제, 레오 브라우어 등 낭만과 기타를 중심으로 한 현대 음악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신선한 인상과 함께 자연스레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기도 하다.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이자 작곡가인 케이코 아베(安倍圭子)의 '미치(길, 道)'와 '구름 위의 커피'로 유명한 시모네 이안나렐리의 커피를 위한 작품 '함께 마지막 커피를'은 음반의 하이라이트.

8578358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커피의 아로마를 보다 풍성하게 해 주는 클래식 음악들

오늘날 커피는 주로 재즈 음악과 콜라보를 이루고 있지만, 바흐의 '커피 칸타타'와 커피와 연관된 베토벤의 일화 등이 말해주듯 커피는 재즈 이전 이미 클래식 음악가들에게도 창작의 자양분으로서 작용하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 혹은 휴식 시간 커피 한 잔이 가져다주는 생기와 여유 재즈도 좋지만 클래식 음악이 가져다주는 고즈넉하고 산뜻한 분위기는 커피의 아로마를 보다 풍성하게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낙소스를 대표하는 연주자들의 연주로 감상하는 음악들, 초심자라도 부담없이 접할 수 있는 작품들. 클래식 음악의 매력과 창작의 모멘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음반이라 하겠다.

8579025 **[전곡 세계 최초 녹음]**

바스코 멘도샤: '스텝 라이트 업(당장 시작해)' & '아우르기(무리짓기), 대화를 피하는' & '반박할 수 없는(거역할 수 없는) 빛'

로저 무라코(피아노), 굴뱅키안 오케스트라(연주), 벤자민 슈월츠(지휘)

'드라마, 의식, 매커니즘'의 삼위일체, '추상과 실제'의 접점을 탐구하는 작품들

1977년 포르투갈 출신의 작곡가 바스코 멘도샤가 작곡가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 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것은 '드라마, 의식, 매커니즘'의 삼위일체였다. 굴뱅키안 오케스트라 창단 50주년 기념 위촉 작품인 '아우르기(무리짓기), 대화를 피하는'은 영화 〈지옥의 묵시록〉에도 등장했던 T.S. 앨리엇의 〈텅 빈 사람들〉에서 얻은 영감을 주제로 오케스트라 9명의 수석 연주자들의 역할극을 담고 있으며, '반박할 수 없는(거역할 수 없는) 빛'은 T.S. 앨리엇의 〈사중주〉와 필립 라킨의 〈기만〉에서 얻은 영감을 주제로 친구의 죽음을 추모하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음향기기' 피아노와 가장 훌륭한 '음악상자(오르골)' 오케스트라의 대화가 펼쳐지는 '스텝 라이트 업(당장 시작해)'에 이르는 세 작품은 작곡가를 사로잡은 세 요소를 바탕으로 '추상과 실제'의 간극 또는 편차를 넘어 접점을 탐구하는 여정을 담고 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장대한 순간에 빠져보시라.

8579057

로베르 그로로: 피아노, 첼로 그리고 하프를 위한 협주곡 작품집

얀 미힐스(피아노), 일리야 유리비치 라포레프(첼로), 엘리네 그로로(하프), 브뤼셀 필하모닉(연주), 로베르 글로로(지휘)

파국의 흐름과 종착, 조화를 향한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대화

벨기에 출신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로베르 그로로는 거의 대부분의 작곡 기법을 독학으로 습득했을 만큼 탁월한 음악적 감각과 능력을 갖고 있다. 1978년 퀸 엘리자베스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던 뛰어난 피아니스트로서의 면모답게 그의 작품 세계에서 피아노와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풍부한 음향과 정교한 표현은 작곡가의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음반은 몽환적인 보랏빛 인상과 차가운 음향이 인상적이었던 전작(8.573808)에 이어 현재까지 약 20여 편의 협주곡을 완성한 로베르 그로로의 장기, 협주곡의 세계를 다시 한 번 조명하고 있다. 〈봄의 제전〉을 연상시킬만한 파국의 흐름과 종착, 조화를 향해 움직이는 독주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대화, 전작의 맥을 잇는 다양한 색채들, '드리핑 기법'과 '번지기 기법'이 연상되는 파국의 인상은 여전히 가슴 속 깊은 울림을 일으킨다. *** '첼로협주곡'(2번 트랙), '하프 협주곡'(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9058

니키타 코슈킨: 기타 독주를 위한 24개의 전주곡과 푸가(니키타 코슈킨 작품 1집)

아야 셀류티나(기타)

바흐의 정신을 잇는 니키타 코슈킨의 기타 작품

모스크바 출신의 작곡가 니키타 코슈킨은 1980년도 작품 '왕자의 장난감'과 '어셔 왈츠'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이래 현대 기타 음악에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뛰어난 작곡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니키타 코슈킨의 기타 작품들을 일별하는 1집 음반에는 '기타 독주를 위한 24개의 전주곡과 푸가'가 수록되었다. 작곡가의 음악적 스타일과 색채 및 음향을 압축하고 있는 수록 작품은 표현력과 고도의 기교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요구하고 있어 연주자에게 매우 까다로운 작품이자 거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바흐의 작품을 닮은 면모, 바흐 정신을 잇는 니키타 코슈킨의 기타 작품. '하나의 흐름' 속으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아야 셀류티나의 해석이 일품이다. 앞으로 계속될 시리즈를 기대하게 하는 음반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918

루이스 슈포어: 바이올린 이중주 작품 2집

예술성과 창작성, 내면의 목소리와 연주의 즐거움을 아우르고 있는 작품

베토벤에 버금가는 작곡가로 명성을 누린 루이스 슈포어는 파가니니에 필적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로도 유명했다. 슈포어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바이올린에 대한 애정과 작법으로 아로새긴 '바이올린 이중주', '28년의 시간차, 영감을 다루는 방식을 발견하는 반전의 매력'을 선사한 1집(8.573763)에 이어 2집에서는 슈포어가 최고의 명성을 누리던 시기 작곡한 '바이올린 이중주 1–3번'을 통해 슈포어 작법의 정수를 보여준다. 내지 해설에 설명하듯 '3편의 협주곡'을 만들 정도의 아이디어와 예술성을 갖춘 작품. 예술성과 창작성, 내면의 목소리와 연주의 즐거움을 아우르는 바이올린 이중주의 정상을 만끽하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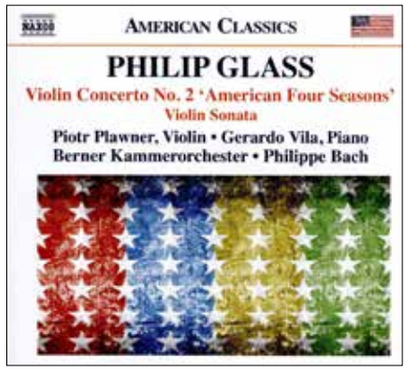
8559879 **[전곡 세계 최초 녹음]**

폴 릴: 피아노 작품집

존 젠슨(피아노)

작곡가가 인정한 이상적인 해석자와 함께하는 작품들, 세련된 '절충'의 묘미

전통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절충주의를 머금은 미국의 작곡가 폴 릴은 진정한 미국의 목소리를 내는 작곡가로 정평이 나 있다. 12편의 피아노 소나타와 첼로 소나타 등 그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 민속 음악 그리고 바르톡과 코다이의 음악 언어를 미국적인 색채로 가공했던 전작(8.559820) 그 중에서도 현대 음악 작법과 바로크 멜로디의 환상적인 조화를 선보인 '강령술 모임(교령회, 交靈會)'과 미국적인 색채로 그려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2번(쇼팽의 유령)'으로 깊은 인상을 심은 바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세계 최초 녹음으로 만나는 폴 릴의 피아노 작품은 작곡가가 인정한 이상적인 해석자 존 젠슨이 참여해 3편의 소나타와 3편의 소품을 연주한다. 재즈와 피아졸라의 탱고의 활력과 대조를 이루는 음산하면서도 황홀한 충격('한 밤의 일격')의 인상. '뇌사를 위한 베토벤'에서 선보이는 절묘한 콜라주는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위한 뛰어난 헌사 중 하나로 꼽아도 좋을 만큼 훌륭하다. 세련된 '절충'의 묘미를 만끽하시라.



8559865

필립 글래스: 바이올린 협주곡 2번('미국의 사계') & 바이올린 소나타

표트르 플라프네르(바이올린), 헤라르도 비야(피아노), 베른 챔버 오케스트라(연주), 필립 바흐(지휘)

과거에 투영된 계절과 시대의 풍경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미국 현대 음악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 필립 글래스. 미니멀리즘의 대부 격인 그의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바이올리니스트 로버트 맥더피의 제안으로 작곡된 '바이올린 협주곡 2번('미국의 사계')은 비발디의 '사계', 18세기 초 바로크 음악에 대한 가장 창의적 해석으로 남아 있다. 특히, '열린 해석'을 지향하는 작품의 면모는 감상자의 무한한 자유로움과 닿아있기도 하다. 음악 애호가이자 건축가인 마틴 머레이의 의뢰로 탄생한 '바이올린 소나타'는 브람스와 포레 그리고 프랑크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고 조화롭게 투영되어 있는 '불협화음에 대한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과거에 투영된 계절과 시대의 풍경, 폴란드 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표트르 플라프네르의 세밀하고도 현대적인 음색, 베른 챔버 오케스트라의 활기는 계절을 머금은 음악 공간의 묘미를 실감케 한다.

8573950

자크 카스테레데: 플루트를 위한 작품 2집

코버스 두 토이트(연주)

전통에 기반한 화려하고도 현대적인 변용

'파리의 영감'이 체화된 자크 카스테레데의 작품 세계. 신고전주의와 프랑스 6인조의 전통을 기반으로 재즈, 라틴 아메리카 음악, 팝, 록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그의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리즈 두 번째 음반이다. 로마 대상을 수상한 해에 작곡된 '(목관) 5중주'에는 거슈윈의 '파리의 미국인'을 연상시키는 경쾌한 선율과 풀랑크 작품 한 대목을 닮은 산뜻하고 재치 있는 영감이 담겨 있다. 헬리오스 사중주단에게 헌정된 '그림자와 빛'은 말년 작임에도 청년 시절의 영감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며, 장 피에르 랑팔을 위해 작곡된 '모음곡 형식의 소나타'에는 작곡가 특유의 전통에 기반을 둔 화려하고도 현대적인 변용이 만개한다. '마술피리'와 '집시 트리오'를 패러디한 '벨 에포크'는 영화(미드 나잇 인 파리)를 연상시키는 과거로의 여행을 펼쳐 보인다. 음악의 기쁨을 보여주는 작품과 연주는 즐겁기만 하다.

*** '그림자와 빛'(1–3번 트랙), '음악'(8–11번 트랙), '(목관) 5중주'(12–14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984

알렉산드르 탄스만: 기타 독주를 위한 음악 2권

안드레아 데 비티즈(기타)

지나간 시간 그리고 작곡가의 페르소나를 위한 헌사

20세기 초 많은 작곡가들은 세고비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프랑스 음악 월간지 〈뮤직 리뷰(La Revue Musicale)〉의 편집장을 맡고 있었던 앙리 프뤼니에레(Henry Prunieres)는 세고비아와 함께 라벨, 알베르 루셀을 비롯해 프랑스 6인조 등이 참여했던 저녁 모임을 주관했는데, 탄즈만 역시 이 자리에서 그들과 교류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기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탄스만의 거의 모든 기타 작품은 세고비아를 염두하고 쓰였을 만큼 세고비아와의 인연은 각별했다. 1집(8.573983)에 이어 세고비아를 위해 작곡된 탄스만 기타 작품 2집에는 바흐와 쇼팽, 스크리아빈 등 지나간 시간과 세고비아와의 우정을 위한 헌사가 담겨 있다. 정교한 기법과 애정이 어우러진 작품들은 작곡가의 '페르소나' 세고비아를 위해 작곡된 마지막 작품 '2편의 민요'로 갈무리 된다. '파사칼리아 형식에 의한 소품'과 '옛 양식에 의한 소품'의 잔향은 헨델과 브람스만큼이나 뭉클하다. 강력 추천한다.

8573989

안톤 루빈스타인: 피아노 소나타 1 & 2번, 세 개의 세레나데(Op.22)

한 첸(피아노)

북받치는 열정, 일렁이는 영혼의 잔향

'F장조의 멜로디'로 익숙한 안톤 루빈스타인. 프란츠 리스트에 비견할 만한 기교와 천부적인 작곡 능력을 갖고 있었던 그의 재능은 때로 러시아와 독일에 걸쳐있던 정체성이 '옥의 티' 마냥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트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설립했으며, 모스크바 음악원 설립에 일조했던 그의 활동은 오늘날 러시아 음악의 초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곡가로서의 능력은 기존 출시된 '교향곡 작품집'(8.555590, 8.555979, 8.557005)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었던 바 작곡가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피아노 작품이 담긴 본 음반은 사망 후 125년이 지난 진면모가 드러나는 오늘날 더욱 가치 있는 성과라 하겠다. 북받치는 열정, 일렁이는 영혼의 잔향, 톨스토이 소설 한 편을 읽는 듯한 감정의 소용돌이. 인간의 본성을 뒤흔드는 듯한 고도의 예술적 기교는 좀처럼 손 떼기 어려운 매력을 남긴다. 한 첸의 극적인 연주는 작품의 매력을 한껏 고양한다.

8574042

베토벤: 극음악 & 부수음악 & 칸타타 작품집 – '슈테판왕', '레오노레 프로하스카'(발췌) 외

클라우스 오발스키 & 롤랜드 아스토르 & 에른스트 오더 & 알겔라 에버라인(나레이터), 레타 하비스토 & 요한나 레스뷰오리(소프라노), 메르야 메켈라 & 크리스티나 라우다넨(알토), 안드레아스 노르드스트룀(테너), 니클라스 스팽베르크 & 유하 코틸라이넨(베이스), 아보엥시스 대성당 성가대(합창), 파이비 세베라이데(하프), 키 앙상블 & 토르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레이프 세게르스탐(지휘)

베토벤 극음악에 담긴 '극적' 여정의 순간들

베토벤 작품 세계 중에서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는 장르는 극음악과 성악 작품이 아닐까 싶다. 단 하나의 오페라였지만, 이에 오롯이 담긴 이상적인 여성상은 이후 비슷한 패턴의 극음악에 등장하고 있으며, 그가 남긴 종교 음악은 '합창'과 더불어 '성악'에 대한 대담한 발상이 드러난 대작으로 남아있어 해당 장르의 위상은 다른 장르 못지않게 뛰어나다. 작곡가 자신과 그다지 인연이 없어 보이는 장르인 것처럼 보이나 실상 베토벤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작품들. 낙소스 레이블에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 작년부터 선보이는 시리즈 중에서도 세게르스탐이 참여하고 있는 일련의 음반들. 본 음반에는 극음악 '슈테판왕' & '레오노레 프로하스카'(발췌), '봉헌가', '동지의 노래', '〈개선문〉 중 다 이루었도다', '(복받은 나라의) 현명한 창시자이신 당신이여(연합 군주에 부치는 합창)', '게르마니아'가 수록되었다. '신앙'과 '빛'으로 어둠을 비추는 '슈테판왕', 1판과 2판이 모두 수록된 '봉헌가', '동지의 노래'는 음반의 가치를 높인다.

8574053

윌리엄 마티아스: 가곡과 실내악 작품집

제레미 휴 윌리엄스(바리톤), 브라이언 루스(플루트), 사라 프레커(오보에), 재키 글래지어(클라리넷), 마리사 올레가리오(바순), 티모시 캔터 & 로렌 러스타드 로스(바이올린), 미첼 고트(하프), 제이슨 카더 & 에드워드 레이드(트럼펫), 폴라 팬 & 렉스 우드(피아노)

합창음악 못지않은 탁월함, 윌리엄 마티아스의 성악 & 실내악 작품

웨일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윌리엄 마티아스는 1992년 55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3살 때 피아노를 연주했으며 5살 때 작곡을 시작했던 그의 천재적인 재능은 오늘날 음악사에 살아 숨쉬고 있다. 대표 장르인 합창 음악이외에도 윌리엄 마티아스는 3편의 교향곡과 다수의 협주곡과 TV 음악 등 거의 모든 장르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 낙소스 2020년 1월 발매 신보에는 작곡가의 녹음 2편이 포함되었는데, '합창음악 2집'(8.574162)에 이은 본 음반에는 가곡과 실내악 작품이 세계 최초로 수록되었다. '축제 팡파르'와 '캉캉' 한 대목이 쓰인 '파리지앵 모음곡'의 경쾌함, '카프리치오'와 '하프 소나타'의 세련된 스타일, 작곡가가 현대 웨일스의 가장 훌륭한 서정시로 손꼽은 알룬 흐웰린 윌리엄스의 '젊은이의 꿈'이 사용된 같은 제목의 작품 '흰 바위의 다윗'등 웨일스의 민요를 사용한 작품들은 전통과 전위를 넘나들면서도 우아한 기품을 유지하는 작곡가의 유연한 색채, 탱글탱글한 영감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시간과 영원의 환영(幻影)'의 상상력 또한 놓칠 수 없는 대목.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4046

치마로사: 서곡 작품 6집

파두리체 체코 체임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패트릭 갈루아(지휘)

최고의 명성에 걸맞는 기발한 영감 & 정치적 격변기 개인사가 배인 작품들

도메니코 치마로사는 로시니가 오페라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 나폴리 악파를 대표할 만한 명성을 누린 작곡가였다. 그의 작품은 전 유럽에서 연주되었으며,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예카테리나 2세로 부터 '마에스트로 디 카펠라'를, 오스트리아 레오폴드 2세로부터는 최소 3편의 작품을 위촉 받기도 했다. 레오폴드 2세가 위촉한 '비밀결혼'에서부터 베니스, 나폴리, 로마와 인연이 있는 작품들. 그 중에서도 38일간 연속 연주될 정도로 인기 높았던 '무모한 그러나 운 좋은 남자', 시모네 페루지니에 의해 재탄생한 '음악감독', 치마로사의 작품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페넬로페', 정치적 격변기 파란만장한 개인사를 담고 있는 '페르디난드 4세를 위한 칸타타' 등은 최고의 명성에 걸 맞는 색채는 물론 시대의 구성원으로 겪었던 작곡가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준다. 패트릭 갈루아의 역작, 기대할 만한 시리즈이다.

8574051

베토벤: 현악사중주를 위한 푸가와 희귀 작품집

파인아츠 현악사중주단(연주)

〈대푸가〉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의 뒷편, 또 하나의 소우주

모든 장르에서 신기원을 이룩한 베토벤의 작품 세계. 그 위대함은 '신의 섭리' 속에 자리한 인간의 모습 또는 '인간의 눈'이 그 기준점과 중심이 되었다는 점에 있다. 또 하나의 소우주, 베토벤이 남긴 실내악 작품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대푸가〉로 이어지는 장대한 여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작품 외에도 정식 작품 번호가 없는 보이지 않는 시도들이 있었다. 현악사중주를 위한 푸가와 희귀 작품들이 수록된 본 음반은 바로 이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토벤 초기에서부터 후기에 이르는 동안 현악사중주의 양상 특히, '대위법'의 향방을 손에 잡힐 듯 보여주는 구성과 파인 아츠 사중주단의 '예리한' 해석은 압권이다. 강력 추천한다.

8574083

알베릭 마냐르: 교향곡 1 & 2번

프라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파브리스 볼롱(지휘)

불의의 죽음 그러나 현대 부활하는 강력한 영감

프랑스 북부 와즈의 바론으로 이주해 자신 만의 음악 세계를 펼쳤던 알베릭 마냐르. 1차 세계 대전 중 불의의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후 잊힌 그의 작품 세계 속에 펼쳐진 눈부신 영감의 광채는 오늘날 다시 부활하고 있다. '교향곡 3번 & 4번'이 수록된 1집(8.574082)에 이어 파브리스 볼롱이 지휘하는 프라이부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마냐르의 교향곡 1번과 2번을 녹음했다. 두 작품은 모두 마냐르의 스승 뱅상 댕디의 지도하에 작곡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프랑크의 교향곡을 닮은 '순환 형식'이 사용된 '교향곡 1번'은 뱅상 댕디에게 헌정된 작품으로서 드보르작을 연상시키는 목가적인 분위기와 바그너와 브루크너를 연상시키는 장대하면서도 종교적인 색채가 압도적이다. '브루크너의 휴지'를 따온 '교향곡 2번'은 '프랑스의 브루크너'라는 마냐르의 별칭에 아울리는 강력한 영감과 피안의 평온 그리고 거침없는 자신감을 보여준다. 1집과 더불어 레퍼런스가 될 만한 녹음, 강력 추천한다.

8574161

비도르: 오르간 교향곡 작품 1집(오르간 교향곡 1 & 2번)

천상의 빛과 평온을 머금은 고아한 잔향, 비도르의 영원의 시선 첫 발걸음

'오르간 교향곡 5번 – 토카타', 오늘날 '결혼식'을 위한 음악으로 익숙한 샤를 마리 비도르는 25살 때 오르간 역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장소, 파리 생–쉴피스 성당의 종신 오르간 연주자로 봉직하기 시작해 이후 64년간 자리를 지키며 파이프 오르간 발전에 거대한 획을 그었다. 볼프강 뤼브샴은 비도르 영원의 시선 첫 발걸음을 20세기 초 파이프 오르간 발전에 기여한 미국의 오르간 제작자 E.M. 스키너가 제작한 미 중서부 최고의 오르간, 시카고대학 록펠러 기념 예배당 오르간으로 담아냈다. 이전 시대 최고의 오르간 작품을 탄생시킨 바흐에 대한 경의 그리고 생–쉴피스 성당의 장엄한 음향과 조명을 묘사한 듯한 '오르간 교향곡 1번(4–5악장)', 이와 약간 대조적인 색채 – 환상적이고 매혹적인 기교의 향연 – 를 보여주는 '오르간 교향곡 2번'은 비도르의 영원의 시선, 그 장대한 첫 발걸음의 순간을 천상의 빛과 평온을 머금은 고아한 잔향으로 아로새긴다. 오르간 음향은 생 쉴피스 성당만큼이나 아찔한 순간을 선사한다. 기대할 만한 시리즈!

8574162

윌리엄 마티아스: 합창 음악 작품집('5월의 마니피카트', '수수께끼', '한 아이 태어났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등 수록)

세인트 존스 보이스 & 젠틀맨 오브 세인트 존스(합창), 휴 크룩 & 샤나 하트(오르간), 그레이엄 워커(지휘)

황홀한 음향, 웨일즈의 보석 윌리엄 마티아스의 합창 음악 작품들

1981년 로열 웨딩에 쓰인 앤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로 유명한 윌리엄 마티아스는 지난 세기 웨일스 음악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고풍스럽고 세련된 윌리엄 마티아스 합창 음악의 매력을 알린 음반으로 호평을 받았던 2016년 출시작(1집, 8.573523)에 이어 약 4년 만에 선보이는 2집에는 수수께끼를 찾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그려진 '수수께끼', 에드워드 리어의 시를 사용한 '리어송'이 세계 최초로 수록되었다. 같이 수록된 '한 아이 태어났도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등은 성서 텍스트를 다루는 작곡가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5월의 마니피카트'를 장식하는 황홀한 음향은 '웨일스의 보석', 윌리엄 마티아스의 진면모를 느낄 수 있다. 놓칠 수 없는 음반!

*** '리어송'(4–8번 트랙), '수수께끼'(11–17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4168

마리오 필라티: 전주곡 & 아리아와 타란툴라 & 4개의 이탈리아 민요 & 디베르티멘토 & 바카텔

모스크바 심포니 오케스트라 금관 솔리스츠 & 모스크바 오케스트라(연주), 아드리아노(지휘)

벨 에포크의 찬란한 영감과 이탈리아의 빛나는 태양을 닮은 필라티의 위트와 열정

세기 초 나폴리에서 태어난 마리오 필라티는 35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당시 이탈리아 세대를 이끄는 작곡가 중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재능을 인정받았다. 전통적인 색채를 머금은 그의 음악은 새로운 조류에 덮여 사후 잊혔지만, 자신이 사랑했던 바로크 음악과 이탈리아 민요의 형식과 음악을 정교하고도 독창적으로 다듬은 작품들은 오늘날 재평가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전주곡, 아리아와 타란툴라'의 경쾌한 활기, '4개의 이탈리아 민요'와 대표작 '바카텔'의 재치, 나폴리 일상의 활기를 그린 '디베르티멘토'는 영화 〈물랑루즈〉를 연상케 하는 벨 에포크의 찬란한 영감과 이탈리아의 빛나는 태양, 필라티의 위트와 열정을 만끽하기에 부족함 없다. 그의 협주곡과 모음곡, 실내악 작품이 수록된 앨범들(8.570873, 8.572628)도 필히 참고할 만 하다.

8579029

페드로 페리아 고메스: 실내악 작품집

사라 서로우(클라리넷), 사울 피카도(피아노), 카를라 산토스(바이올린), 낸시 존슨(비올라), 미구엘 페르난데스(첼로)

고향 포르투갈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

1979년 리스본에서 태어난 포르투갈의 작곡가 페드로 메리아 고메스. 네 살때 부터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 그는 런던 왕립 음악원과 포르투갈에서의 교사 생활 이후 웨일스에 거주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기억과 변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고향 포르투갈의 정서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2007년과 2018년 사이에 작곡된 그의 실내악 작품들은 이 같은 페드로 페리아 고메스 작품 세계의 특징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특히, '기억'(1번 트랙)과 '바이올린 소나타' 2악장(3번 트랙)에서 나타나는 포르투갈 민속 음악은 존 아일랜드가 묘사한 영국 전원 풍경을 닮아있어 눈길을 끈다. 밤의 색깔과 이를 바라보는 인간의 심리적 시각과 흐름을 묘사한 '밤의 음악'(11–15번 트랙)의 통찰력과 미묘함은 깊은 여운을 남긴다.

*** '바이올린 소나타'(2–5번 트랙), '타나토스'(6번 트랙), '탈출'(7번 트랙), '기다림(기대)'(8번 트랙), '귀환'(9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9048

보리스 티쉬첸코: 하프 작품 전곡

이오넬라 마리누차(소프라노), 아르템 나우멘코(플루트), 안나 호메냐(오르간), 인터네셔널 파리지앵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미하일 수가코(지휘)

오르페우스의 분신, 하프에 실어 보낸 작곡가의 남은 말

러시아의 작곡가 보리스 타쉬첸코는 스승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적 상속인이자 〈증언〉의 저자 솔로몬 볼코프를 스승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150여 편에 이르는 작품을 남긴 티쉬첸코 작품 세계의 특징 중 하나는 '교향곡 5번'(1976)과 '교향곡 6번'(1988) 사이 약 12년의 간극이 있다는 점이다. 작곡가는 이 기간 동안 실내악과 기악 작품 그리고 합창 음악에 집중했는데, 하프 작품이 수록된 본 음반은 이 시기 정점에 오른 작곡가의 경지를 엿볼 수 있어 주목할 만하다. '교향곡 8번'과 '마리나 츠베타예바의 시에 붙인 세 개의 노래'가 수록된 전작(8.573343)이 보여주듯 티쉬첸코에게 있어 러시아 전통 음악은 스승과 자신의 접점이자 중요한 주제로 작용하고 있다. 세 번째 아내에게 헌정한 '하프 협주곡', 동생의 죽음에 부친 '동생에게', 빌라로부스와 피아졸라의 작품 한 대목을 닮은 '유언'은 러시아의 시적 인상(텍스트)과 고도로 세련된 하프의 기교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수작이다. 오르페우스의 분신, 하프에 실어 보낸 작곡가의 남은 말. 이오넬라 마리누차가 연주하는 하프의 아우라는 압도적이다.

Ondine www.ondine.net

ONDINE

ODE1313–2
앤더슨: 변화의 희극, 하늘은 땅을 부끄러워한다
런던 신포니에타, 수잔 비클리(메조소프라노), BBC 심포니, BBC 합창단, 올리버 너센(지휘)

음색의 향연과 리듬의 활력이 어우러진 최근 영국 음악의 대표작
영국 작곡가 줄리안 앤더슨은 오늘날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작곡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음악은 음색이 밝고 산뜻하며, 생기 있는 리듬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실내악곡 〈변화의 희극〉은 연결되어있는 일곱 악장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곡으로, 열두 연주자가 다양한 음색의 향연을 펼치고, 얽혀있는 복잡한 리듬으로 환상을 불러일으킨다. 〈하늘은 땅을 부끄러워한다〉는 미사곡으로, 신성하고 고상한 금관과 신비감 가득한 현악, 그리고 희롱하는 목관이 어우러져 극적인 이미지를 그린다. 합창은 과감한 극적 표현으로 음악을 이끌어간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ODE1330–2
브람스 피아노 협주곡 1번, 4개의 발라드
라르스 포그트(지휘 & 피아노), 로열 노던 신포니아

브람스의 내밀한 목소리에 귀 기울인 라르스 포그트의 탁월한 연주
현재 음악계에서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독일 피아니스트 라르스 포그트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에 도전했다. 지휘와 연주를 겸하기 어려운 대곡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세밀하게 아첼레란도와 루바토를 조절하는 장면은 음악감독으로서 단체와 얼마나 깊은 교감을 나누고 있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작품이 가진 내밀한 소리에 집중하며 네 개의 발라드까지 이어지는 브람스의 고독한 감정선을 따라가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다.

Orchid Classics www.orchidclassics.com

ORCHID CLASSICS

ORC100105
코토스: 민요와 춤곡 작품집
코토스 앙상블(연주)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코토스 앙상블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의 '코토스'(가이아와 우라노스 사이에서 탄생한 100개의 팔과 50개의 머리를 지닌 거인, 헤카톤케이레스 3형제 중 하나)에서 따왔다.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작품들, 치명적이면서도 다채로운 매력. 마치 코토스의 모습을 음악으로 보여주고 있는 듯한 코토스 앙상블의 데뷔작은 2016년 덴마크 P2 채널의 청취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3년 만에 선보이는 두 번째 음반에서 이들은 작곡가들에게 영감의 원천이자 해방구였던 '민요'와 '춤곡'을 조명한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헤어 나올 수 없는 매력. '음악의 즐거움'을 만끽할 만한 음반으로 손색없다.

ORC100110
오! 거룩한 밤: 크리스마스 합창 음악 작품집
런던 코럴 신포니아(합창), 마이클 월드론(지휘)

오페라적인 스케일로 재탄생한 영국 크리스마스 음악의 전통과 현재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오르간을 전공했으며, 로열 오페라 하우스와 잉글리시 내셔널 오페라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국의 지휘자 마이클 월드론의 Orchid Classics 레이블 데뷔 음반. '오 거룩한 밤(고요한밤 거룩한 밤)'을 비롯한 5곡의 전통 캐럴을 중심으로 마틴 니어리의 '동방박사 세 사람'과 존 아일랜드의 '성스러운 소년' 그리고 로버트 색스톤의 '빛의 아이' 등 근현대 영국 작곡가들의 크리스마스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마이클 월드론은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적인 스케일로 영국 크리스마스 음악의 전통과 현재를 되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영국 합창 음악의 맥'을 실감할 수 있는 음반. 강력 추천한다.

ORC100112
포기와 베스(Revisited)
니콜라 도트리쿠르 (바이올린), 파스칼 슈마허(비브라폰), 크누트 에릭 선드퀴스트(더블베이스)

〈포기와 베스〉 다시보기, 재즈와 클래식의 경계를 넘어선 어울림으로 탄생한 마성의 매력
최근작에서 묵직한 북구의 낭만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던 더블베이스 연주자 크누트 에릭 선드퀴스트, 프랑스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라 도트리쿠르, 오래전부터 경계를 초월한 깊은 울림으로 유명한 타악기 연주자 파스칼 슈마허. 장르를 초월한 연주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3인의 연주자는 본인의 세계를 넘어선 또 하나의 어울림으로 '경계인' 조지 거슈윈의 대표작 〈포기와 베스〉를 재해석했다. 바흐 작품의 한 대목을 연상시키는 '썸머타임'(4번 트랙)이 보여주듯 이들의 창의적인 해석(재즈에 담긴 인생의 희로애락을 극대화시키는 클래식의 우아한 색채)은 원곡을 능가하는 마성의 매력을 내뿜고 있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CONCERTGEBOUWORKEST
ROYAL CONCERTGEBOUW ORCHESTRA AMSTERDAM

RCO18005 [SACD]
말러: 교향곡 1번
다니엘레 가티(지휘) & 로얄 콘세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

말러 스페셜리스트 가티와 RCO의 환상적인 조합
다니엘레 가티는 97년 헨리 우드홀에서 녹음했던 말러 5번 이래로 오랜시간 동안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군림해왔다. 특히 RCO 감독으로 재임했던 2016년부터 RCO와 가티는 2, 4번 등의 교향곡들을 출시하며 그 당시보다 한 단계 진일보한 말러관을 들려주고 있다. 도입부의 아지랑이처럼 신비하게 피어오르는 유니즌, 기괴한 곡선을 그리는 3악장 도입부의 운동성, 4악장의 폭풍같은 다이내믹을 들어보면 가티가 얼마나 다채로운 표정과 매력을 지닌 지휘자인지 깨닫게 된다. SACD 포맷의 이점을 십분 살린 생생한 음질은 이 음반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킨다.

RCO18008 [SACD]
바그너 파르지팔 3막 전주곡, 성 금요일의 음악, 브루크너 교향곡 9번
다니엘레 가티(지휘) & 로얄 콘세르트 허바우 오케스트라

오케스트라로 쌓아올린 무언의 오라토리오
2008년 바이로이트에서 슈테판 헤어하임의 연출로 올린 파르지팔 이래 가티의 장기로 회자되는 파르지팔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음반이다. 워낙 종교성이 짙은 작품이라 브루크너 9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하나의 작품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다. 조심스럽지만 세심한 도입부로부터 시작하여 음표 하나하나가 하늘로 승천하는 듯한 은은한 고양감은 피날레의 압도적인 스케일과 맞물려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온다. 줄리니나 요훔, 첼리비다케 같은 최고의 명연들과 어깨를 당당히 하는 최고의 브루크너 9번이 다시 등장했다.

Resonus Classcis www.resonusclassics.com

RES10252

크반츠: 플루트 협주곡

그렉 디크만스(플루트), 루신다 문(바이올린), 엘리시움 앙상블

18세기의 플루트를 대표하는 크반츠의 아름다운 협주곡들

요한 요아힘 크반츠는 18세기 최고의 플루트 연주자였으며, 플루트 음악에 선구적인 작곡가였다. 그는 더욱 좋은 연주를 위해 직접 악기를 개발했는데, 오늘날에도 그의 악기를 카피하여 시대악기를 제작하기도 한다. 이 음반에 수록된 크반츠의 플루트 협주곡들은 후기 바로크 시대의 플루트 음악의 최정점을 들려준다. 이탈리아 양식을 따르면서도, 음악적으로는 외향적인 화려함보다 우아하고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이것은 당대 플루트가 가진 음색과 관련이 있는데, 크반츠의 작품은 악기의 특징이 돋보이도록 작곡되었음은 물론이다.

SDG www.monteverdi.co.uk

SDG732

바흐 바이올린 협주곡집

존 엘리엇 가디너(지휘), 카티 데브레체니(바이올린),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

가디너가 가장 신뢰하는 바이올리니스트와 함께한 협주곡집

원전연주의 거장이자 바흐 스페셜리스트 가디너가 처음으로 내놓는 바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 그의 관현악 음반을 떠올려보면 2009년 브란덴부르크 협주곡과 저 옛날 83년에 남긴 관현악모음곡이 전부인데 이번 협주곡은 가디너와 함께 오랜세월 동안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츠를 이끌었던 카티 데브레체니가 함께했다. 철저한 아티큘레이션이나 논비브라토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난 자연스럽고 풍부한 주법이 가디너의 유연하고 리드미컬한 반주와 매우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한다.

Silk Road www.silkroadmusic.net

SRM048 [SACD]

The Magic Bow

닝펑, 레이첼 바튼, 카르미뇰라, 매누키언, 우토 우기, 레이철 포저, 아카르도, 콘조넨, 이보넨, 롤라 보베스코, 슈타인바허, 코간, 뤼 시칭, 제이미 라레도, 피셔

최고의 선곡에 최적의 기술력이 더해진 음향의 첨단물

세계적으로 알려진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 홍콩에서 커다란 명성을 얻고 있는 오디오파일 전문 레이블 '실크로드 뮤직'에서 제작한 '더 매직 보우'는 진공관 엠프에서 재생되는 사운드를 연상시키는 사운드 속에서 바이올리니스트 15인이 선보이는 '최상'의 연주와 '최고'의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앨범이다. 롤라 보베스코(1921~2003)부터 율리아 피셔(1983~)가 남긴 명반에서 선곡한 작품들은 물론, 홍콩에서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닝펑의 연주, 마 쓰총(1912~1978)의 바이올린 작품도 만날 수 있다. 편집 시 최고의 음향 기술이 첨가되었기에 각 연주자들의 원본 음반에서 즐길 수 없는 음향 감각이 오디오파일러들에게는 인상적인 선물이 될 것이다.
해설지(영 · 중문)에는 연주자 소개가 수록되어있다.

[SACD & CD-PreMastering by Hans-Jorg Maucksh at Pauler Acoustics, Northeim, Germany]

Simax www.simax.no

PSC1272

얀손스의 말러 교향곡 3번

마리스 얀손스, 지휘 /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스 얀손스와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말러 녹음들은 초기 얀손스의 말러관에 대해 추적해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번 3번은 2001년 8월 24일 오슬로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녹음으로 얀손스가 남긴 총 3종의 3번 녹음 중 첫 번째에 해당되는 음반이다. 좀 더 스케일이 커지고 유장해진 최근의 녹음들과 달리 이번 음반은 얼음성 같이 차갑게 조형된 구조, 쾌적한 템포에서 느껴지는 유려함이 매력적인 음반이다. 오늘날 얀손스가 최고의 말러 스페셜리스트로 부각됐는지를 알게해주는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PSC1367
One Charming Night
데이빗 핸슨(카운터테너), 오슬로 서클스

17세기 후반 런던을 사로잡았던 영국 최고의 작곡가 퍼셀의 주요 극음악

데이빗 핸슨은 20세기의 전설적인 카운터테너인 제임스 바우먼의 제자로, 퍼셀의 〈디도와 애네아스〉로 유럽 데뷔 무대를 가졌다. 오슬로 서클스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최고의 젊은 시대악기 연주자들이 결성한 단체로, 핸슨과 함께 극적 표현이 뛰어난 퍼셀의 작품들을 녹음했다. 〈압델레이저〉는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의 원곡이며, 'Music for a while', 'When I am laid in earth' 등 퍼셀의 아름다운 노래와 오늘날에도 공연되는 〈요정 여왕〉의 주요 춤곡 등 17세기 후반 영국 최고의 음악이 이 한 장의 음반에 수록되어있다.

PSC1373
하차투리안: 칼의 춤, 아다지오, 삼중주, 바이올린 소나타 등
마리암 하라티안(피아노), 아담 그뤼호트(바이올린), 레오나르도 세세나(첼로), 스티 노르하겐(클라리넷)

20세기를 대표하는 발레 〈스파르타쿠스〉의 작곡가, 하차투리안의 실내악곡

아르메니아 최고의 작곡가로 칭송받는 아람 하차투리안은 오늘날 발레 〈스파르타쿠스〉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독보적인 극적 표현력은 기악 작품에도 발휘되어있으며, 이 음반에 수록된 실내악곡도 예외가 아니다. 초기작인 〈클라리넷,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삼중주〉는 오늘날에도 자주 연주되는 작품으로, 적막한 고요부터 폭풍에 이르기까지 세 악기의 대결과 조화가 놀랍다. 〈바이올린 소나타〉와 〈노래-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명작이며, 하차투리안의 히트작인 〈스파르타쿠스〉의 '아다지오'와 발레곡 〈가야네〉의 '칼의 춤'도 수록되어있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M315
클라라 슈만: 피아노 협주곡/ 라이네케: 피아노 소협주곡 등
안드레아 카우텐(피아노), 포르츠하임 남서독일 실내 관현악단, 티모 한트슈(지휘)

독일 낭만주의가 꽃피운 아름다운 피아노 협주곡

독일의 음악은 19세기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낭만의 환상이 꽃을 피우던 시기였다. 칼 라이네케는 이 시기를 이끌었던 거장으로서, 오늘날 그의 목관 작품들이 주로 연주되고 있지만, 생존 당시에는 교향곡, 협주곡,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초기곡인 〈피아노 소협주곡〉에서 피아노는 쇼팽을 연상시키는 선율부터 강렬하면서도 풍부한 사운드로 압도하기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들려준다. 클라라 슈만의 〈피아노 협주곡〉도 초기작으로, 현악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하여 실내악적인 섬세함을 강조했다.

SM332
슈베르트: 숭어 오중주/ 멘델스존: 현악팔중주
헨젤 사중주단, 디오게네스 사중주단, 게롤트 후버(피아노), 알렉산드라 헹스베테크(더블베이스)

뮌헨을 대표하는 최고의 실내악 연주자들이 펼치는 앙상블의 향연

뮌헨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현악사중주단인 헨젤 사중주단이 뷔르츠부르크 음대에서 가곡 반주를 가르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게롤트 후버와 바이에른 주립 오케스트라의 부수석인 더블베이시스트 알렉산드라 헹스베테크와 함께 슈베르트의 〈숭어 오중주〉를 연주했다. 자연스러운 비브라토와 꾸밈음까지 선명하게 들리며 남다른 생동감을 전달한다. 그리고 뮌헨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디오게네스 사중주단과 함께 멘델스존의 〈현악팔중주〉를 연주했다. 동료면서 경쟁자들과 함께하는 연주는 매우 조화로우면서도 박진감 넘친다.

SM324
슈만: 교향적 연습곡/ 라흐마니노프: 코렐리 변주곡/ 카푸스틴: 변주곡
안나 카발레로바(피아노)

다양한 감성으로 전하는 음악의 즐거움

러시아 태생의 피아니스트 안나 카발레로바는 모스크바 국립 차이콥스키 음악원을 졸업했으며, 라자르 베르만 콩쿠르 등 유수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녀는 이 음반에서 자신의 폭넓은 역량을 한껏 펼쳤다. 풍부한 음향과 압도하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슈만의 〈교향적 연습곡〉과, 라흐마니노프의 끝없는 음악적 상상력의 보고인 〈코렐리 변주곡〉, 그리고 재즈의 화성과 리듬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카푸스틴의 〈변주곡〉 등, 무게감이 느껴지는 프로그램을 수록했다. 카발레로바는 음악적 감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전달한다.

SM325
굴다: 나를 위한 협주곡/ 프로코피에프: 교향곡 1번/ 풀렝크: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미샤 청, 율리아 밀로슬라프스카야(피아노), 지로 앙상블 챔버 오케스트라, 세르게이 시마코프(지휘)

고전을 재탐구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명작들

피아니스트 프리드리히 굴다는 재즈 아티스트로도 활동했으며, 작곡가로서 규모 있는 작품들을 발표했다. 〈나를 위한 협주곡〉은 이러한 그의 활동, 즉 클래식과 재즈를 기반으로 하여 작곡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투영한 작품이다. 1악장은 모차르트를 연상시키며, 2악장은 바로크 시대의 애가를 모방한다. 3악장은 현대적인 분위기의 독주이며, 4악장은 베토벤의 피날레를 연상시키면서 재즈로 변주한다.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1번〉은 하이든의 재래로 불렸던 명작이며, 풀렝크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은 고전미가 절정에 오른 걸작이다.

SM320 [2CDs]
베토벤: 첼로 소나타 전곡 등
외르크 울리히 크라(첼로), 베른하르트 파르츠(피아노)

베토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재기 넘치는 연주

첼리스트 외르크 울리히 크라는 중요한 시대악기 첼리스트인 안너 빌스마의 제자로, 2011년에 '테오도르 쾨르너 상'을 받는 등 그 실력을 인정받으며 솔리스트와 실내악 연주자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피아니스트 베른하르트 파르츠는 브람스 콩쿠르 우승자이며, 현재 빈 음대의 교수이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를 녹음한 이 음반에서 이들은 단단하고 밀도 있는 첼로의 사운드와 경쾌하고 운동성 있는 피아노 사운드로, 베토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준다. 이와 함께 이 곡에 대한 게오르크 카처의 'B에 대한 후기' 시리즈는 흥미롭다.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35
폴린 킴 해리스: 앰비언트 샤콘, 데오
폴린 킴 해리스(바이올린), 스펜서 토펠(전자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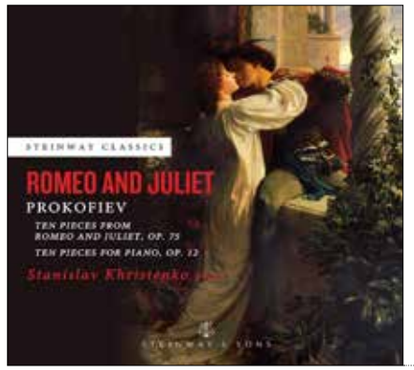
고전과 오늘날의 음향으로 재창조한 새로운 소리 예술의 세계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폴린 킴 해리스는 바흐의 〈샤콘〉과 오케검의 〈데오 그라티스〉를 소재로 새로운 음악을 만들었다. 그녀는 '편곡'이라고 쓰지 않고 '리이미징'(reimag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 곡이 추구하는 방향을 표시했다. 이 곡은 원곡을 연주하거나 단편으로 잘라내, 그 공간을 전자음향으로 채웠다. 여기에는 줄리어드 출신이자 다트머스 대학의 교수인 스펜서 토펠의 도움을 받았다. 그들은 각 작품이 지닌 고전의 영속성을 현대로 확장하여 재창조해냈으며, 주목할 만한 소리 예술의 세계를 제시했다.

Steinway & Sons

www.steinway.com

30111 [CD+BONUS DVD]
어린이를 위한 바흐
앤드루(앤디), 란젤(피아노)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바흐의 피아노 프로그램
초기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4세기를 넘나드는 레퍼토리를 지닌 앤드루 란젤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음악적 감각을 키울 수 있는 바흐의 피아노곡을 수록했다. 이 앨범의 수록곡은 〈프랑스 모음곡〉, 〈신포니아〉, 〈파르티타〉, 〈인벤션〉, 〈이탈리아 협주곡〉, 〈골트베르크 변주곡〉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선율과 화성의 진행, 그리고 대위법까지 어렵지 않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있다. 또한 어린이들의 주의력이 짧은 것을 고려하여 길이가 짧은 곡들을 수록함으로써 흥미를 잃지 않도록 배려한 것도 돋보인다.
[란젤이 그린 '피터 파자마의 이야기' DVD 포함]



30114
프로코피에프: '로미오와 줄리엣' 중 열 개의 작품, 열 개의 피아노 소품
스타니슬라프 흐리스텐코(피아노)

프로코피에프의 독창적이고 천부적인 감각이 발휘되어있는 유쾌한 피아노 소품
"피아노의 시인!", "터치의 팔레트", "정밀한 기교" 등 다양한 호평을 받아온 스타니슬라프 흐리스텐코가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작품을 녹음했다. 유명한 발레곡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발췌한 음악으로 만든 〈열 개의 작품, Op. 75〉는 상상 속에서 아름다운 발레의 장면들을 불러일으키며, 유년 10대 시절에 작곡한 곡들을 모은 〈열 개의 피아노 소품, Op. 12〉는 10곡 10색의 다양한 스타일의 작품들이 모여있다. 모두 길이가 짧은 소품들이지만, 프로코피에프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천부적인 감각이 발휘되어있는, 흥미롭고 유쾌한 작품들이다.

30125
쇼팽: 마주르카, 소나타 3번 등 후기의 걸작들
산드로 루소(피아노)

피아노 한 대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산드로 루소의 마법
"산드로 루소는 음악가의 음악가이자, 피아니스트의 피아니스트이다. 그의 음악가 정신은 가장 훌륭한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그의 해석은 독창적이며 심오하다." 더 이상의 평가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격찬을 받은 루소가 쇼팽의 작품들을 녹음했다. 그의 연주는 선율로 하여금 말하게 하며, 화음으로 하여금 이미지를 그리게 한다. 그리하여 감상자는 다양한 상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곧 앞서 언급한 호평에 공감하게 된다. 유연한 선율의 흐름은 흠잡을 데가 없으며, 과장되지 않은 다이나믹은 뮤즈를 더욱 우아하고 고귀하게 그린다.

30131
명상과 반영
타티아나 출로치니코바(바이올린)

바흐로부터 출발하여 바흐로 가는 여정
"전율을 일으키는 기교와 대단히 화려한 스타일" 타티아나 출로치니코바의 연주에 대한 평가는 바로크부터 현대까지 프로그래밍 한 이 앨범으로 증명된다. 바흐의 유명한 오르간곡 〈토카타와 푸가, BWV565〉를 직접 편곡하고,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이 깃든 비버의 〈파사칼리아〉, 바로크의 황혼이 엿보이는 텔레만의 〈환상곡 9번〉, 이자이의 음악세계를 집약한 〈집착〉, 그리고 필립 글래스의 고독한 외침 〈네 개의 노래〉 등, 이 앨범이 주는 강렬한 인상과 깊은 감동은 한 대의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신을 압도한다.

Stone records www.stonerecords.co.uk

STONE records

5060192780918

볼프: 가곡 전곡 10집 – 괴테 가곡 1부

루이즈 알더, 플러 윈, 카타리나 카르네우스, 로완 헬리어, 애드리언 톰슨, 로더릭 윌리엄스, 닐 데이비스, 솔토 키녹(피아노)

후기 낭만 시대에 독일어 가곡의 정신을 이은 볼프의 괴테 가곡집

19세기 전반기에는 슈베르트가 있었다면, 19세기 후반기에는 후고 볼프가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후고 볼프는 대부분의 삶을 빈에서 살면서 독일어 가곡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의 노래는 매우 서정적이면서도 가사에 따른 극적 표현으로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음반은 괴테의 시에 붙인 노래를 수록한 앨범으로, '하프 연주자', '미뇽', '가수', '선남선녀' 등이 수록되었다. 일곱 명의 정상급 성악가들이 부르는 노래는 가사가 전달하는 극적 이미지를 선명하게 전달하며, 피아니스트 솔토 키녹의 반주는 그 안에 담긴 심상을 표현한다.

5060192780925

다윗이 들었을 때 – 영국와 미국의 합창 명곡

퍼셀 싱어즈, 마크 포드, 조너선 슈란즈(지휘)

합창 음악의 두 기둥인 영국과 미국의 작품으로 보는 합창 예술의 현주소

영국은 전통적으로 합창음악이 중심에 있었으며, 대중적인 성향이 강한 미국에서는 합창음악이 발전해왔다. 이 음반은 이렇게 합창음악의 두 기둥인 영국과 미국의 작품들을 수록하여 오늘날 합창 예술의 진수를 들려준다. '사랑의 인사'로 유명한 엘가는 농도 짙은 서정미를 들려주며, 바버의 '아뉴스 데이'는 영화로 유명해진 '아다지오'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 로리센의 '오 위대한 신비'는 미국을 대표하는 합창곡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 미국 합창의 신성으로 떠오른 위태커의 '다윗이 들었을 때'는 가사의 극적 상황을 환상적으로 전달한다.

Swedish Society

Swedish Society DISCOFIL

SCD1168

베르크, 뒤파르크, 랑스트룀의 관현악 가곡

말린 뷔스트룀(소프라노), 헬싱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스테판 솔뤼옴(지휘)

극적으로, 애틋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20세기 초 낭만의 끝자락에 선 관현악 가곡들

스웨덴 출신의 소프라노 말린 뷔스트룀은 2018년에 명예로운 궁정성악가로 지명되었으며, 같은 해에 국제오페라상에서 '올해의 여성 성악가'로 선정되었다. 고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가진 그녀는 20세기 초 근대의 낭만적인 관현악 가곡들을 녹음했다. 베르크의 〈일곱 개의 초기 가곡〉은 낭만의 끝자락에 선 작품들로, 오페라의 한 장면을 보듯 극적이고, 뒤파르트의 작품들은 근대 프랑스 가곡의 보고로 애틋한 감성으로 가득하며, 스웨덴 작곡가 투레 랑스트룀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 웅장하고 거대하다.

Tactus www.tactus.it

TACTUS

TB672260

비발디: 파리 협주곡집

모도 안티쿠오, 페데리코 마리아 사르델리(지휘)

이탈리아의 빛나는 햇살과 같이 청명하고 윤택한 연주

독일의 귀족인 폰 우펜바흐가 1715년 베네치아를 방문하여 비발디에게 열 곡의 합주협주곡을 위촉했다. 비발디는 대단히 빠른 작곡 속도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그는 기존에 작곡한 곡들과 약간의 신작을 더하여 위촉보다 두 곡이 더 많은 열두 곡의 세트를 구성했다. 이 작품집은 파리에서 소장되어 오늘날 '파리 협주곡'으로 불린다. 이 곡들은 모두 예외 없이 빠르게–느리게–빠르게로 구성되어있으며, 한 곡을 제외하고 모두 세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도 안티쿠오'는 비발디의 화려한 리듬과 아름다운 선율을 맑고 윤택하게 연주한다.

Tafel Musik www.tafelmusik.org

TAFELMUSIK

TMK1039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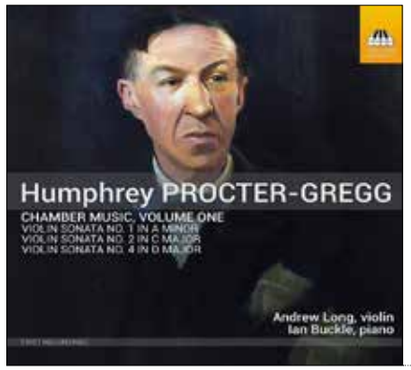
비발디 콘 아모레

타펠무지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엘리사 치테리오(지휘)

'붉은 머리의 사제' 비발디가 들려주는 진심 어린 사랑 노래

비발디는 음악가이기도 하면서 삶의 대부분을 사제로 살았다. 그러한 그에게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을까? 이 음반은 비발디의 사랑 노래인 바이올린 협주곡 '가장 사랑하는 연인'과 바이올린 협주곡 '연인'을 수록했다. 이 작품들은 사랑을 때로는 애정 가득한 부드러운 소리로, 때로는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아픔으로 그린다. 〈류트 협주곡〉은 가장 사랑받는 류트 작품 중 하나로, 2악장은 비발디의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 중 하나로 손꼽힌다. 이외에도 교향곡 〈별장의 오토 황제〉와 오보에, 바순 등 다양한 악기를 위한 협주곡이 수록되어있다.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539 **[세계 최초 녹음]**
프록터-그렉: 바이올린 소나타 1~3번
앤드루 롱(바이올린), 이언 버클(피아노)

포레, 델리어스로부터 이어지는 프랑스 스타일 낭만음악의 계보
영국 작곡가 험프리 프록터-그렉은 멘체스터 대학교에 음악대학을 설립했으며, 저술과 번역 활동을 하면서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인지도가 높다. 그리고 그의 작품들 또한 영국에서 이어져 온 독특한 20세기 낭만주의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프록터-그렉의 실내악곡 1집에 수록된 세 곡의 바이올린 소나타들은 강렬한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작품들로, 자유로운 선율과 상상력이 풍부한 화음이 감상의 즐거움을 준다. 이것은 가브리엘 포레와 프레더릭 델리어스로 이어지는 프랑스 스타일의 영향으로서, 그 계보는 프록터-그렉으로 이어진다.

TOCC0540 **[세계 최초 녹음]**
자크-달크로즈: 피아노작품 3집 – 무용을 위한 음악
사비에르 파레스, 파트리샤 시페르(피아노)

세련된 살롱음악을 연상시키는 경쾌하고 고급스러운 피아노 소품
스위스 작곡가 에밀 자크-달크로즈는 경쾌한 리듬을 가진 무용 음악으로 기억되고 있으며, 운동을 통한 음악 감상을 가르치기도 했다. 그의 피아노곡 3집은 이러한 그의 명성을 이해할 수 있는 무용을 위한 피아노 소품을 수록했다. 전통적인 무곡 리듬과 경쾌한 선율, 그리고 현대적 감각이 돋보이는 화음은 대단히 세련된 살롱음악과 같은 인상을 준다. 보다 복잡한 리듬을 사용하여 미국의 재즈와 래그타임의 영향이 보이는 곡들도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샤브리에로부터 이어받은 정서로, 동시대인인 포레와 드뷔시와는 다른 그만의 세계를 들려준다.

TOCC0534
피아노로 듣는 북스테후데
메일린 아이(피아노)

피아노곡으로 재탄생한 북스테후데의 걸작
아우구스트 스트라달은 브루크너와 리스트의 제자로서, 19~20세기에 활동했던 보헤미아의 피아니스트였다. 그는 바로크부터 낭만에 이르기까지 많은 작품들은 피아노를 위해 편곡하여 널리 보급했다. 이 음반은 그중 북스테후데의 편곡 전체를 수록했다. 북스테후데는 덴마크 출신으로 뤼벡에서 활동했으며, 바흐가 존경해마지 않았던 거장이었다. 스트라달은 북스테후데의 오르간 작품인 '전주곡과 푸가'와 '샤콘' 열 곡을 편곡했으며, 이 편곡들에는 단순히 피아노로 옮긴 것을 넘어, 바로크와 후기 낭만이 결합한 독특한 음악 세계가 펼쳐져 있다.

Tonkunstler *www.tonkuenstler.at/de*

TON2009
말러 교향곡 2번
유타카 사도(지휘),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

무지크페어라인을 울리는 또 다른 황금빛 오케스트라의 출중한 말러
빈 콘서트협회 오케스트라로 시작하여 빈 심포니와 함께 두 개의 줄기로 나뉜 톤퀸스틀러 오케스트라의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하지만 현재 무지크페어라인의 상주 오케스트라로서 빈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그들의 입지는 매우 탄탄하다.
이번 음반은 15/16시즌 음악감독이었던 유타카 사도가 2019년 5월 15일부터 22일까지 무지크페어라인에서 가졌던 실황공연을 담아낸 음반으로 널찍한 스케일과 폭넓은 다이내믹, 탄력이 넘치는 리듬감이 매력적인 음반이다. 무지크페어라인의 생생한 음질을 담아낸 탁월한 녹음도 매우 인상적이다.

Winer Symphoniker *www.wienersymphoniker.at*

WS017
베토벤: 교향곡 9번
필리프 조르당(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필리프 조르당과 빈 심포니의 베토벤은 빈 필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던 빈 심포니와 필리프 조르당의 베토벤 치클루스의 마지막 앨범.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무지크페어라인 골트너 잘을 달궜던 화제의 현장을 그대로 음반에 담았다. 2018년 발매 당시부터 세부의 힘줄까지 보여주는 디테일 속에서 느껴지는 입체적인 굴곡, 공격적인 템포운용, 구축적으로 음악의 구조를 쌓아가다가 터트리는 폭발력 등이 독보적인 성악진, 빈 악우협회 합창단의 위엄있는 합창과 어우러 압도적인 음악적 명장면을 만들어낸다.

떠돌이별 임의진의 [담양 여행 3집] CD

시인, 월드뮤직 전문가 임의진은 〈여행자의 노래〉, 〈노르웨이의 길〉등의 선곡자다. 그가 담양 산골에 오랜 날 머물면서 펴내고 있는 지역여행, 사운드트랙. 1, 2집에 이어 4년만에 3집을 선보인다. 입소문으로 사랑받는 스테디셀러다. 카치아 카르디날,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첼리스트 데이비드 달링을 비롯하여 노르웨이의 푸스트, 포크가수 김현성과 손병휘는 대자연의 시를 노래한다. 수사네 순드퍼의 미성으로 부르는 북유럽의 노래도 참으로 놀랍다. 슬로시티 시골여행을 위한 자연주의와 여행주제 노래들로 여행 이전에도 설레게 된다. 마이클 조나던은 월든 호수를 노래하고, 전설의 포키 이원재는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를 들려준다. 이 시대 최고 선곡자가 들려주는 생명과 자유의 노래가 여기에 있다.

[담양여행 3집]
AMC2-180 **[CD]**

Walden: the Ballad of Thoreau(월든_소로우의 발라드)를 Michael Johnathon 마이클 조나단이 부른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맞선 '생태보전 음악'을 들려주고 있다. Bella Es Mi Tierra(아름다운 땅)는 Katia Cardenal 카치아 카르데날이 노래한다. 니카라과 출신이지만 노르웨이에서 살고 있다. 그의 오빠 살바도르 까르데날과 듀오로 활약하다 독립, 북유럽에서 보기 드문 남미 음악을 들려주는 음유 시인이 되었다. Jeg Er En Femmed(방황하는 영혼)를 Solfrid Molland 솔프리드 몰란드가 우수에 젖어 부른다.

Sæle Jolekveld(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부른 Pust 푸스트는 여섯 명의 남녀 성악가로 구성된 합창단, 스칸디나비아의 아카펠라 그룹을 대표한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밥 딜런 곡)를 부른 이원재는 들국화 출신의 포크록 가수, 전설의 인물이다. Take Me And Hold Me(When you are here)는 북유럽의 대표 가수 Sigvart Dagsland 시그바르트 닥스란드 곡, 대중음악에서 교회 성가까지 그가 거친 모든 음반은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Here, There And Everywhere(비틀즈 곡)을 부른 Roar Engelberg 로어 앤겔버그는 팬플루트의 대가. 비틀즈 송북을 발매했다. 그 음반에서 한곡 실렸다.

수우족의 기도(노란 종달새 시, 손병휘 곡)를 만들어 부른 손병휘는 성가를 듣는 듯한 후렴구와 잔잔한 기타 선율, 싱잉볼의 타종까지 모아들였다. M'Appari Tutt' Amor(오페라 〈마르타〉 중에서 '꿈과 같이')를 오페라 팝의 귀재 East Village Opera Company가 들려준다. Cancion Del Naranjo Seco(마른 오렌지의 노래)를부른 **Marta Gómez** 마르타 고메즈는 중남미 콜롬비아 태생으로 미국으로 건너와 버클리에서 공부했다. Love Lost, No. IV(사랑을 잃고 노래하네)를 부른 인디신의 젊은 포키 이언 맥퀸. 분위기가 깊고도 짙다. Ingen Vinner Frem Til Den Evige Ro(영원한 평안뿐이네)를 부른 Susanne Sundfør 수사네 순드퍼는 북유럽의 여가수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다.

Dear Theo 테오에게를 부른 S.S. Odyssey. 로스앤젤레스의 인디 뮤지션 오디세이. Heart Song(마음의 노래)을 부른 Elise Lebec 엘리스 레벡(feat. David Darling_cello)은 ECM의 명반 〈다크 우드〉의 거장인 데이비드 달링과 듀엣을 펼친다.

끝으로 가을 우체국 앞에서(김현성 시, 곡)는 두고 온 우산이나 신발이나 옷가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등병의 편지, 가을 우체국 앞에서' 등으로 잘 알려진 싱어송 라이터 김현성이 오래묵은 자신의 노래를 이 가을 분위기에 맞게 들려준다.

[아울로스 미디어 월드뮤직 사업부 2019]

KBS클래식FM이 녹음, 발매한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Vol. 1, 2, 3] CD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타이틀로 제작, 10월 28일부터 온 · 오프라인 음반 매장을 통해 판매하는 이번 음반은 이미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는 클래식 라이징 스타들의 데뷔 레코딩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의 현재와 미래를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기록이 될 것이다.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Vol.1]
AMC2-177 **[CD]**
유성권(Bassoon), 김유빈 (Flute)
김재원(Piano) , 문지영 (Piano)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Vol.2]
AMC2-178 **[CD]**
이택기(Piano), 이혁(Piano)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Vol.3]
AMC2-179 **[CD]**
에스메 콰르텟(Esme Quartet)
배원희(제1바이올린), 하유나(제2바이올린)
김지원(비올라), 허예은(첼로)

이번 음반에는 2018년 영국 위그모어홀 국제 현악4중주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에스메 콰르텟이 연주하는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를 비롯해,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단원으로 활동중인 23세의 플루티스트 김유빈, 베를린방송교향악단에 최연소 종신수석으로 임명된 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발하게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고의 바수니스트 유성권, 2018년 하마마쓰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이혁, 2014년 헤이스팅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이택기가 KBS클래식FM과 함께 녹음한 첫 레코딩이 수록돼 있으며, 특히 플루티스트 김유빈과 함께 호흡을 맞춘 피아니스트 문지영은 2015년 부조니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 있다.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에 걸쳐 진행된 KBS클래식FM의 〈한국의 클래식, 내일의 주역들〉 프로젝트는 세계 유수의 콩쿨에서 상위 입상하는 등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라이징 스타들의 데뷔 음반으로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노부스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선우예권, 김규연,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플루티스트 조성현 같은 젊은 마에스트로들이 KBS클래식FM의 음반 프로젝트를 통해 첫 레코딩을 발표했으며, 청취자는 물론 음악 팬들에게는 새로운 스타들의 생명력 넘치는 연주를 접함으로써 클래식 음악을 더욱 폭넓고 친근하게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KBS클래식FM은 이번 〈2019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 음반을 올해도 ABU(아시아방송연맹), EBU(유럽방송연맹) 등을 통해 세계 각 방송사에 배포함으로써, 젊은 우리 음악가들이 방송을 통해 세계 무대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ccentus

www.accentus.com

Accentus ACC20479 **[2DVDs]**
Accentus ACC10479 **[Blu-ray]**

2018 라이프치히 성토마스교회 실황
–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248

고톨트 슈바르츠(칸토르 · 지휘), 성토마스 합창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도로시 밀즈(소프라노), 엘비라 빌(알토), 패트릭 그랄(복음사가), 마르쿠스 쉰페르(테너), 클라우스 헤게르(베이스)

크리스마스 선물을 최고의 음악으로 선사하고 싶다면!

바흐(1685~1750)가 남긴 3곡의 유명오라토리오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로 바흐가 칸토르(1723~1750년 합창단장)로 재직한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교회 실황물이다. 1212년 창단된 성토마스 합창단과, 이곳 출신인 제17대 칸토르 슈바르츠(1952~)의 음악은 예수탄생의 기쁨과 크리스마스의 서정성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세계다. 이들은 2016년 내한해 '마태수난곡'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2층 합창석에서의 연주가 1층 관객들에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의 음성'처럼 떨어지는 독특한 구조이며, 두툼한 해설지(68쪽 분량)에 작품과 공연 관련 알찬 정보가 담겨 있다. 바흐 오라토리오와 칸타타에서 일가를 이룬 솔리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그중 에반겔리스트(복음사가)의 패트릭 그랄(테너)의 서창, 아리아를 맡는 마르쿠스 쉰페르(테너)의 독창이 일품이다.

[보조자료]

–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1685~1750)는 3곡의 오라토리오를 작곡했다.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BWV248는 1734년 성탄절 기념을 위해, 1735년 부활절과 승천절을 위해 각각 부활절 오라토리오 BWV249와 승천절 오라토리오 BWV11를 남겼다.

–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이 세 작품 중 가장 장대한 규모와 양식을 갖고 있으며, ① 일관된 줄거리가 없고 ②여섯개의 칸타타가 하나의 오라토리오를 이루는 구조이다. 전곡은 한꺼번에 연주하지 않으며,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6일간 나눠 연주되곤 한다.

– 본 영상은 2018년 12월 실황으로, 바흐가 27년간 칸토르(1723~1750년 합창단장)으로 재직한 독일 라이프치히의 성토마스 교회 공연이다. 오르간이 설치된 2층 합창석에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위치하여 1층 관객들에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의 음성'처럼 음악을 들려주는 화면이 연출된다.

– 성 토마스 합창단은 소년 소프라노 성가대로, 1212년에 창단되어 9~18세의 소년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7대 칸토르인 지휘자 고톨트 슈바르츠(1952~)는 라이프치히에서 음악공부를 시작했으며 어린 시절 성 토마스 합창단 단원으로 활약하기도 했다. 슈바르츠와 성 토마스 합창단,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는 2016년 내한하여 바흐 '마태수난곡'을 선보여 바흐 음악의 정수를 선보인 바 있다.

– 본 영상물에 수록된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는 여섯 칸타타로 구획되어 수록되었으며 트랙배분도 세세하게 잘 되어 있다. 원하는 대목을 편하게 재생할 수 있다.

– 본 영상물의 큰 자랑이라면 두툼한 해설지(68쪽 분량)로 이 작품에 대한 치밀하고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트랙소개, 칸타타별 해설(영 · 독 · 불어), 가사 원문(독어), 음악가 소개 순이다.

–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성당 내의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울림은 성스러운 분위기를 배가시킨다. 슈바르츠는 전반적으로 밝고 기쁨에 가득 차 있는 느낌을 연출하며 동시에 서정적인 경향도 강하다. 함께 하는 솔리스트들도 바흐 오라토리오와 칸타타에서 일가를 이룬 이들이다. 특히 에반겔리스트(복음사가)의 패트릭 그랄(테너)의 서창, 아리아를 맡는 마르쿠스 쉰페르(테너)의 독창이 일품이다.

Accentus ACC20478 **[DVD]**
Accentus ACC10478 **[Blu-ray]**

2019 라이프치히 실황
–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

안드리스 넬손스(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바이바 스크리데(바이올린)

넬손스가 지독히 사랑하는 작곡가

넬손스(1978~)는 29세에 입성한 버밍엄 심포니 시절부터 차이콥스키에 대한 애정이 강했다. 교향곡 4~6번, '만프레드', '햄릿' 서곡,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 등을 수종의 앨범으로 내놓았고(Orfeo), 2015년 라이프치히 입성 후에도 주요작으로 차이콥스키의 교향곡들을 내놓고 있다. 초기 경력을 다지고 중진에 입성한 넬손스의 무르익은 해석과 지휘로 만날 수 있는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수록된 영상물로, 2019년 5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이다. 2001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로린 마젤과 함께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선보인 바이바 스크리데(1981~)가 같은 곡을 함께 연주한다. 작품 간에는 '러시아'라는 공통점이, 지휘자와 협연자 사이에는 '라트비아' 태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해설지(50쪽 분량/독 · 불 · 영어)에는 학자와 평론가의 작품론이 수록.

[보조자료]

– 안드리스 넬손스(1978~)는 24세에 지휘를 배우기 시작해 29세 젊은 나이로 버밍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2대 음악감독 및 수석지휘자를 맡았다.

– 그러고 나서 2015년, 세계 최고(最古)의 민간 오케스트라로 불리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에 카멜마이스터을 맡았다. 리카르도 샤이의 후임 자리였다. 이로써 넬슨스는 미국 동부를 대표하는 보스턴 심포니와 유럽에서 가장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까지 미국과 유럽의 대표 오케스트라 두 곳을 동시에 거머쥐게 된 셈이다.

– 2019년 5월,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실황물로 서곡 없이 ①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②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이 함께 한다. 두 작품은 '러시아'라는 공통점이, 지휘자와 협연자에게는 '라트비아' 태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 국내에서 선보인 굵직한 내한 공연으로 친숙한 바이바 스크리데(1981~)는 2001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린 바이올리니스트이다. 특히 수상자 입상 공연에서 로린 마젤의 지휘로 벨기에 국립 교향악단과 쇼스타코비치 바이올린 협주곡 1번을 연주하며 큰 명성을 얻었으니, 그런 그녀의 데뷔작을 넬손스와 함께 하는 의미 있는 협연이라 할 수 있겠다.

– 넬손스가 차이콥스키에 대해 갖는 애정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 버밍엄 심포니 시절에 발매한 음반들은 그와 차이콥스키의 관계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만들었다. 특히 오르페오(Orfeo) 레이블을 통해 발매한 음반들은 넬손스의 초기 지휘 경력을 다지는 데에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모두 차이콥스크의 작품들이다.

– 버밍엄 심포니 시절을 정리하면 2009년 교향곡 5번과 '햄릿' 환상 서곡op.67, 2010년 교향곡 6번, 2011년 교향곡 4번과 '프란체스카 다 리미니'(Orfeo), 2015년 '만프레드' 교향곡 op.58 등이다. 그런 그가 게반트하우스 입성하고 2019년 회심작으로 내놓은 영상물도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Accentus ACC20445)이다.

– 넬손스 취임 이후 악상투스(Accentus)에서 출간하는 영상물들은 고품질화는 물론이고, 카메라 워킹도 활발해져 오케스트라의 곳곳을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변화는 해설지의 분량과 내용이다. 두터운 해설지(50쪽 분량/독 · 불 · 영어)에는 학자와 평론가의 작품론이 담겨 있다.

한글 자막

Accentus ACC20434 **[2DVDs]**

2018 독일 루르 실황
– 작품 '우주, 미완성'(영상 다큐멘터리 포함)

크리스토프 마테일러(연출), 티투스 엥겔(지휘), 안나 비에브록크(무대디자인), 안네–카트린 페이츠(다큐멘터리 감독 · 연출)

아이브스가 남긴 아방가르드의 조각들을 모으다

2018년 루르트리엔날레의 ①작품 '우주, 미완성', 작곡가의 삶과 역사를 증언하는 ②영상 다큐멘터리 '대답 없는 아이브스', 작품(①)에 대한 해설이 수록된 두툼한 ③부클릿이 동봉된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1874~1954) 기념물이다. 아이브스는 평생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가운데 작곡가를 겸한 인물로 기록된다. 연출가, 지휘자, 무대디자이너는 작품(①)을 위해 아이브스의 기존 기악곡을 엮고, 시를 얹어 배우들이 낭송하는 한 편의 음악극이다. 다큐멘터리(②)는 베를린 필의 상주작곡가 존 아담스부터 손자 찰스 테일러 등이 인터뷰이가 되어 아이브스에 대해 증언하고, 그의 삶과 역사를 살펴본다. 해설지(③, 46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참여 명단, 작품 해설, 낭송시 전문이 수록.

[보조자료]

– 2018년 루르트리엔날레에 오른 ①작품 '우주, 미완성', 작곡가의 삶과 역사를 증언하는 ②영상 다큐멘터리 '대답 없는 아이브스', 작품(①)에 대한 해설이 수록된 두툼한 ③부클릿이 동봉된 작곡가 찰스 아이브스(1874~1954) 기념물이다.

– 아이브스는 미국 코네티컷주 댄버리 출생으로, 20세기 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음악교사였던 아버지로부터 음악을 배웠고, 12세 때 교회의 오르간을 연주했으며, 14세 때는 그가 작곡한 곡이 마을의 밴드에 의해 연주됐다.

– 1893년 '수확의 노래'를 작곡했고, 그 해에 예일대에 들어가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레이쇼 파커(Horatio Parker) 밑에서 작곡과 오르간을 공부했다. 1898년 졸업 후 뉴욕의 보험회사에 다니면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했고, 1907년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1916년부터 1930년까지 사장으로 있으면서 작곡활동을 계속했다. 1940년대 초반 자유롭고 상상력이 풍부한 양식으로 미국적 주제가 담긴 피아노 작품들을 발표하여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실내악곡, 합창곡 등 다양한 작품을 발표했다.

– '우주, 미완성'은 크리스토프 마테일러(연출), 티투스 엥겔(지휘), 안나 비에브록크(무대디자인)가 아이브스의 기존 작품들을 콜라주하여 만든 작품이다. 아이브스가 생전에 남긴 '유니버스 심포니' 중 전주곡 1번, '1776', 'Mists', 'The Cage' '그는 여기에!', 카우보이의 노래, 교향곡 4번, '114 노래들', '컨트리 밴드 행진곡', 'Three Quarter–tone Pieces', 현악 4중주 2번 등을 세 예술가들이 엮어 한편의 음악극화했다.

– 오케스트라와 실내악을 오가는 편성과 변화와 함께 성악가와 배우들이 기악곡 위에 의미 있는 텍스트들을 붙여 낭송하고 연기한다. 그 내용은 오늘을 바탕으로 먼 미래를 살펴보고, 불완전한 우주와 삶 속에서의 긴장감을 표현한다. 실험적인 작품이지만 20세기 무조성보다 조성을 통해 음악혁신을 꿈꾼 아이브스의 음향이 뒤를 받치고 있어, 소리들은 고전적으로, 혹은 낭만주의의 한 작품을 듣는 듯하다. 영상 분량은 125분.

– 다큐멘터리 '대답 없는 아이브스'는 안네–카트린 페이츠가 연출한 50여분 분량의 영상물이다. 아이브스의 고향 코네티컷주를 배경으로 작곡가의 삶과 역사를 살펴본다. 베를린 필의 상주작곡가 존 아담스부터 손자 찰스 테일러 등이 인터뷰이가 되어 아이브스에 대해 증언한다. 중간에 아이브스의 대표적인 실내악도 만날 수 있다. 2019년에 다큐멘터리는 황금프라하국제텔레비전 페스티벌에서 수여하는 '최고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했다. 해설지(46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참여 명단, 작품 해설, 낭송시 전문이 수록.

Arthaus www.arthaus-musik.com

한글 자막

Arthaus 109412 **[DVD]**
Arthaus 109413 **[Blu-ray]**

ARTHAUS MUSIK

2018 잘츠부르크 실황
– 한스 베르너 헨체의 오페라 '바사리드'

켄트 나가노(지휘),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세안 파니카르(디오니소스), 러셀 브라운(펜테우스), 타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아가베), 베라–로테 뵈케르(아우도노에), 크지슈토프 발리코프스키(연출)

헨체의 오페라, 잘츠부르크로의 파격적인 귀환

쇤베르크, 베르크와 함께 20세기 현대오페라의 위대한 역사를 완성시킨 한스 베르너 헨체(1926~2012)의 대표작으로, 1966년 잘츠부르크 초연 이후 50여년 만에 오른 '바사리드' 2018년 실황이다. 발리코프스키 연출을 거친 작품은 시각적 충격과 현대문명의 부조리와 명암을 날카롭게 파고들고, 현대오페라의 최전선에 있는 나가노의 지휘와 빈 필하모닉의 모던한 사운드가 새로운 음향의 지도를 그려낸다. 디오니소스와 그의 추종자들인 '바사리드'들, 디오니소스와 대척점에 있는 펜테우스의 갈등을 다룬 이야기로 연출가는 신화를 현대도시로 가져와 동시대 감각을 덧입혔다. 해설지(19쪽 분량/영 · 독어)에 트랙, 시놉시스, 작품 촌평이 수록.

[보조자료]

– 쇤베르크의 '모세와 아론', 베르크의 '보체크' 등 20세기 현대오페라에 관심이 있는 이라면 반드시 한스 베르너 헨체(1926~2012)의 작품들을 거쳐야 한다. 오늘날 유럽에서 문제적 연출가로 손꼽히는 폴란드 연출가 크지슈토프 발리코프스키의 손을 거친 이 작품은 현대오페라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치의 시각적 충격은 물론, 신화의 이야기를 도시 속으로 가져옴으로써 현대문명의 부조리와 명암을 날카롭게 들춰내고 있다. 여기에 유럽 현대오페라의 최전방에 있는 켄트 나가노의 지휘와 빈 필하모닉의 모던한 사운드가 함께 한다는 사실도 이 공연의 매력지점으로 다가온다.

– 오페라 '더 바사리드'는 W.H.오든과 체스터 칼만이 대본을 썼고, 작곡은 1964~65년에 진행되었다. 1966년 잘츠부르크에서 마리아 바세–슈포르레더의 번역으로 독일어로 초연되었다.

– 이 영상물은 2018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으로, 50여년 만에 초연지에 다시 오른 무대를 담고 있다. 20세기 음악으로 태어났지만 서사를 잘 익혀둔다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가온다. 오히려 무조성의 날카로운 현대음악은 서사가 지닌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훌륭한 음향 효과와 음악으로 다가온다.

– 주신 디오니소스(세안 파니카르)가 테베에 도착했을 때 그의 추종자들인 '바사리드'들은 키테론 산에 축제를 벌이런 간다. 새로운 왕 펜테우스(러셀 브라운)가 디오니소스의 어머니 세멜레의 제사를 금지시키고 키테론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체포하려고 명령한다. 왕 앞에 끌려온 바사리드들에는 펜테우스의 어머니 아가베(타냐 아리안느 바움가르트너)와 그의 여동생 아우도노에(베라–로테 뵈케르), 변장한 디오니소스가 포함되어 있다.

– 디오니소스는 펜테우스에게 여장을 하고 키테론 산에서 벌어지는 축제를 관찰하도록 설득한다. 그런 펜테우스가 키테론 산에 오르자 갑자기 정탐꾼으로 비난을 받고, 그를 알아보지 못한 펜테우스의 어머니도 바사리드들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아가베는 그런 디오니소스를 비난한다.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테베에 불을 지르도록 명하고 자신과 세멜레는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다.

– 해설지(19쪽 분량/영 · 독어)에는 트랙, 시놉시스, 작품에 관한 간략평이 수록되어 있다.

Arthaus 109418 **[DVD]**
Arthaus 109419 **[Blu-ray]**

2017 베를린 국립오페라
– 슈만 '파우스트의 장면'(오페라버전)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베를린 오페라극장 합창단, 로만 트레켈(파우스트/마리아누스 박사), 엘사 드레이지(그레첸), 르네 파페(메피스토펠레), 유겐 플림(연출)

징슈필 오페라로 다시 태어난 슈만 합창곡의 묘미

슈만(1810~1856)이 1844년에 작곡한 초대형합창곡 '파우스트의 장면'을 오페라화한 공연 실황물이다.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애정 장면으로 시작해 파우스트의 회개로 마무리된다. 원작에 없는 대사들이 추가되어 징슈필이 되어 극적인 흐름도 매끄러워졌다. 유겐 플림의 연출은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파우스트적 분위기를 묘사하고, 무대 위 큐브의 움직임도 인상적이다. 7년 공사를 마치고 2017년 10월에 문을 연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을 기념하는 프로덕션으로 바렌보임과 트레켈, 드레이지, 파페 등 초특급 일류 성악가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 것. 새옷 입은 극장 내부도 초반에 만날 수 있다. 해설지(15쪽 분량/영 · 독어)에는 트랙,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괴테(1749~1832)의 1829년 작 '파우스트'는 수많은 낭만시대 작곡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한 문학 작품 중 하나다.

– 슈만(1810~1856)의 '파우스트의 장면'은 1844년 러시아 여행 중 '파우스트'를 읽고 십여 년에 걸쳐 만든 대작이다. 서곡–1부–2부로 구성된 이 작품은 2시간 정도의 분량이며, 오케스트라, 솔리스트들과 합창단이 함께 하는 작품이다. 내용은 파우스트와 그레첸의 애정 장면으로 시작해 파우스트의 회개로 마무리된다.

– 이 영상물은 독특하게도 합창곡으로 태어난 '파우스트의 장면' 실황을 담은 것이다. 2017년 10월,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Saats Oper Unter Den Linden)의 실황으로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를 맡았고, 그의 수족 같은 베를린 슈타츠카펠레가 함께 하고, 로만 트레켈, 엘사 드레이지, 르네 파페 등 초특급 일류 성악가들이 주역을 맡았다.

– 합창곡이 오페라로 변신하면서 변화된 부분들이 있다. 원작에 없던 대사들이 추가되어 무반주 연극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징슈필로 태어났다. 이에 따라 원작 합창보다 극적인 흐름을 부각시켜, 한편의 음악극을 보는 듯한 재미를 준다.

– 유겐 플림의 연출과 마틴 라이트의 무대미술은 환상과 현실을 오가는 파우스트적 공간과 분위기를 묘사한다. 특히 무대에 큐브는 회전하고 움직이며 여러 차원의 공간을 연출하는데, 이로 인해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기분이 더욱 배가된다.

– 오페라나 음악극으로 태어난 합창 감상에 묘미를 주는 것은 역시 바렌보임의 지휘다. 슈만 특유의 낭만적 어조를 과감히 부각시킨다.

– 이 프로덕션은 2010년부터 7년간의 긴 공사를 마치고 2017년 통일의 날인 10월 3일에 새롭게 문을 연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의 개막을 알리는 프로덕션이기도 하다. 천장이 5미터가량 높아져 잔향 시간이 연장되었고, 내부 장식도 더욱 화려해졌는데 영상의 앞부분에 이러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 재미도 있다. 해설지(15쪽 분량/영 · 독어)에는 트랙,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246 **[2DVDs]**
BelAir BAC446 **[Blu-ray]**

2008 볼쇼이 프로덕션/ 파리 가르니에 실황
– 차이콥스키 '오네긴'

알렉산더 베데르니코프(지휘), 볼쇼이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마리우츠 키첸(에프게니 오네긴), 타티아나 모노가로바(타티아나), 마크발라 카즈라슈빌리(라리나 부인),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연출)

파리 한복판을 점령한 러시아의 감수성

2009년 2DVD로 발매되었던 인기 영상물이 10년이 지나 첨단기술의 블루레이로 다시 찾아왔다. 2008년 9월 파리 국립오페라(가르니에) 극장 실황물로 볼쇼이 극장 프로덕션이다. 세기의 문제작을 배출하기로 유명한 러시아 연출가 체르니아코프는 볼쇼이의 '오네긴' 프로덕션의 전통을 뒤집는다. 밀폐된 듯한 러시아 연회실, 냉혹한 군중과 주역 세 사람의 고독의 대비, 냉기가 도는 '편지 장면'은 물론 파티장면에도 원작에 없는 떠들썩한 대화 소리와 소음을 넣어 극적 사실을 더했다. 러시아의 내로라하는 성악가들이 나오는 무대는 러시아 본토 발음과 언어의 미학을 보여준다.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 · 독어)에 시놉시스, 연출가노트가 수록, 보너스 필름(28:10)으로 연출가 및 성악진 인터뷰, 백스테이지, 연습 장면을 접할 수 있다.

[보조자료]

– 2009년 2DVD로 발매되어 인기를 누린 영상물이 10년이 지나, 첨단기술의 블루레이로 다시 찾아왔다.

– 2008년 9월 파리 국립 오페라(가르니에) 극장에서 있었던 이 공연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에프게니 오네긴'의 볼쇼이 극장 프로덕션을 담고 있다.

– '예브게니 오네긴'으로 불리는 이 오페라는 러시아 사실주의 문학을 확립시킨 푸시킨의 소설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다. 오만하고 자유분방한 도시 귀족 오네긴(마리우츠 키첸)과 아름다운 사랑을 갈망하는 순진한 소녀 타티아나(타티아나 모노가로바)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 차이콥스키의 가장 성공한 오페라 작품으로 손꼽히는 '오네긴'은 1879년 초연 당시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또한, 차이콥스키는 각 막마다 주요 인물을 설정해 등장인물의 심리 묘사를 보다 정교하게 표현했다.

– 2008년 당시 건드리는 프로덕션마다 세기의 문제작이 되었던 러시아 연출가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는 반세기가 넘는 볼쇼이 극장 '오네긴' 프로덕션의 전통을 뒤집은 의미심장한 연출을 선보인다.

– 밀폐된 듯한 러시아 연회실에서 펼쳐지는 1막과 2막은 냉혹한 군중과 주역 세 사람의 고독이 강렬한 대비를 이룬다. 유명한 '편지 장면' 역시 얼어붙은 듯한 분위기에서 은은한 공감을 자아낸다.

– 특히 내용상 파티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연출가는 사람들의 대화와 떠들썩한 군중 소리를 삽입하여 연극적 분위기를 살린다. 연극적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프로덕션이지만, 러시아의 내로라하는 성악가들로 구성된 무대는 그 어디서도 쉽게 들어 볼 수 있는 러시아 본토 발음과 언어의 미학을 보여준다. 더불어 음악적 무게도 대단하다.

–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시놉시스, 연출가노트가 수록되었다. 보너스 필름(28:10)에는 연출가 및 성악가 인터뷰가 수록되었고, 무대 뒤 생생한 제작과정과 연습과정을 접할 수 있다.

BelAir BAC162 **[DVD]**
BelAir BAC562 **[Blu-ray]**

2018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 쿠르트 바일 '거리의 풍경'

팀 무레이(지휘),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 · 합창단, 파트리시아 라세티(안나 모랑), 파올로 초트(프랭크 모랑), 마리 비번(로즈), 존 풀제임스(연출)

뮤지컬 같은 오페라, 영화 같은 영상물

엘머 라이스(1892~1967)의 동명 희곡에 쿠르트 바일(1900~1950)이 작곡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자 20세기 오페라이다. 국내에 실연된 적이 없는 작품을 테아트로 레알의 고급 프로덕션으로 만날 수 있다. 안나 모랑과 유부남의 바람난 이야기에 초점이 있지만, 결국 그들은 모랑의 남편 프랭크에 의해 죽는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모랑 부부의 딸 로즈는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꿈꾼다는 이야기다. 로열오페라에서 현대 오페라에 중심을 두고 있는 존 풀제임스(1976~)가 연출을 맡은 이 작품은 징슈필 오페라이다. 영어 대사가 흐르고 바일의 음악은 재즈, 클래식, 영화음악, 대중음악 등을 오간다. 고화질 카메라가 무대를 영화의 쇼트처럼 잡아내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하다. 해설지(27쪽 분량/영 · 불 · 스페인어)에 트랙, 아티클('오페라인가? 뮤지컬인가?')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스트리트 신'은 미국 극작가 엘머 라이스(1892~1967)의 동명 희곡을 쿠르트 바일(1900~1950)이 작곡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정확히는 '아메리칸 오페라'. 가사는 랭스턴 휴스(1902~1967)가 썼다. 바일이 1946년에 완성했고 같은 해에 초연됐다.

– 한국에는 단 한 번도 초연된 적 없는 바일의 숨은 역작을 2018년 마드리드 테아트로 레알 실황으로 만날 수 있다. 국내에 '거리의 풍경' '거리의 장면' '거리의 정경' '거리의 광경' 등의 제목으로 번역되었다.

– 뉴욕의 여름. 거리 사람들은 안나 모랑(파트리카 라세티)과 유부남 우유배달꾼의 스캔들 이야기에 한창이다. 보수주의자 프랭크 모랑(파울로 초트)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카플란(요엘 프리에트)과 정치문제로 논쟁 중이다.

– 모랑의 딸 로즈(마리 비번)는 인기가 많다. 카플란의 아들 샘은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다. 이웃 사람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에 변호사가 되면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다. 로즈는 그런 샘과 결혼하여 시골에서 살고 싶어 한다.

– 어느 날, 프랭크 모랑은 부인 안나 모랑이 우유배달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죽인다. 프랭크 모랑은 체포되면서 마지막으로 딸 로즈의 얼굴을 보려 한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살길이 막막해진 로즈는 따로 사는 오빠에게 신세를 지게 된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살아나갈 능력이 되면 샘과 결혼하여 독립할 생각을 꿈꾸며 이야기는 끝난다.

– 연출을 맡은 존 풀제임스(1976~)는 2011년부터 로열 오페라에서 연출을 맡고 있다. 케임브리지대에서 물리학을 공부한 그는 고전보다는 오늘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을 올리길 선호한다.

– '스트리트 신'은 뮤지컬이면서 오페라이고, 징슈필이다. 음악이 멈추고 연극 같은 영어 대사가 흐른다. 바일의 작품답게 재즈 · 클래식 · 영화음악 · 대중음악 등이 나온다. 오페라극장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맡아, 그 어떤 연주보다도 바일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는 것도 본 프로덕션(영상물)의 큰 자랑거리다.

– 고화질 카메라가 배우들을 영화의 쇼트처럼 잡아낸다. 오페라로 태어난 작품이지만, 마치 뮤지컬영화를 보는 것 같다. 해설지(27쪽 분량/영 · 불 · 스페인어)에 트랙, 아티클('오페라인가? 뮤지컬인가?')가 수록되어 있다.

BelAir BAC174 **[DVD]**
BelAir BAC574 **[Blu-ray]**

2019 우크라이나 국립극장 –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코브턴 재안무)

발레리 코브턴(재안무), 미콜라 디아더라(지휘), 우크라이나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나탈랴 마츠아크(오데트/오딜), 데니스 네다크(지그프리트)

러시아 전통과 모던의 균형을 잡는 코브턴의 감각

2019년 6월, 우크라이나 국립극장에 오른 우크라이나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글로벌스탠다드인 프티파 버전의 전통을 이으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민속적 의상과 움직임이 조금씩 가미되어 색다른 맛을 주는 작품이다. 이 발레단 출신으로 예술감독을 역임한 발레리 코르턴의 버전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유럽과 미국 등지로 진출하는 데에 중요한 인력풀 역할을 하는 우크라이나 발레의 간판스타인 마츠아크(오데트/오딜)와 네다크(지그프리트)의 호흡도 만나볼 수 있다. 디아더라의 지휘는 120분에 걸쳐 차이콥스키의 위대한 유산에 광을 낸다. 우크라이나 발레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의 독립했지만, 키예프 국립발레단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보조자료]

– 2019년 6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립극장 실황으로 우크라이나 국립발레단(Ballet Company of The National Opera of Ukraine)이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이다.

– 러시아 지역의 3대 발레단 중 하나로 손꼽히는 우크라이나 발레는 1991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공식 명칭도 우크라이나 국립발레단이 됐지만 통상 키예프 국립발레단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러시아발레의 정통성을 잇고자 하는 의지, 패기 넘치는 젊은 무용수들의 활약은 오늘날 이 단체의 보물과도 같다.

– 러시아와 유럽의 여러 발레단은 자기고유의 '백조의 호수'를 갖기를 원한다. 보편적으로 프티파와 이바노프가 재구성한 이른바 '프티파 버전'을 바탕으로 이러한 작업이 진행되는데, 우크라이나 발레도 발레리 코브턴을 내세워 '백조의 호수'의 자기화 · 주체화를 꾀한 무대가 이 영상물이라 할 수 있겠다.

– 발레리 코브턴은 우크라이나 태생의 발레리노이자 안무가로 한 때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USSR)의 민중예술을 주도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발레 단원일 적에는 지그프리트(백조의 호수), 데지레(잠자는 숲속의 미녀), 왕자(호두까기 인형), 로미오(로미오와 줄리엣) 등 주역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1980년 안무가로 데뷔한 그는 우크라이나 발레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통해 대성공을 거두었고, 1989년부터 우크라이나 발레의 예술감독이자 발레단 소속학교의 교장을 맡기도 했었다.

– 프티파의 원작에 충실한 코브턴의 재안무작은 궁중무도회 장면은 물론, 달빛 아래 호숫가에서 춤추는 백조들의 발레블랑(백색발레)의 화려한 장면은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가만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발레만의 특색을 조용히 드러내는데, 예를 들어 궁중무도회 장면에서 발레리나들의 춤과 의상은 어딘지 모르게 우크라이나 특유의 민속의상과 민속춤의 숨결이 묻어 있어 새롭게 다가온다.

– 오늘날 우크라이나 발레는 이아나 살렌코(베를린 슈타츠발레), 알리나 코조카루(로열 발레), 맥심 벨로세르코프스키 · 이리나 드보로벤코(아메리칸 발레 씨어터) 등으로 일류 무용수를 수출하는 풀로 자리 잡았다. 이 영상물의 특징이라면 그간 벨에어 레이블을 통해 내놓았떤 영상물들과 달리 솔리스트들의 이름을 표지에 박아 넣었다는 점이다. 수석 발레리나 나탈랴 마츠아크(오데트/오딜)와 데니스 네다크(지그프리트)가 그들이다. 현장 음향의 밸런스와 음질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돋보인다. 미콜라 디아더라의 지휘로, 우크라이나 국립극장 오케스트라는 120분에 걸쳐 차이콥스키의 위대한 유산에 광을 낸다. 오디오 감상으로도 손색없을 정도다

BelAir BAC171 **[DVD]**
BelAir BAC571 **[Blu-ray]**

2019년 프랑스 벨에어(BelAir)가 내놓은 최고의 역작

2019 도레 갤러리 실황
– 륄리 · 라모 · 바흐 · 모차르트 등 프랑스 · 독일 작곡가 모음집

줄리아 쇼뱅(바이올린), 앙상블 르 콩세르 드 라 로줴, 조이 드뵈스(소프라노), 저스틴 테일러(하프시코드), 토마스 던포드(류트), 타미 크라우츠(트라베르소)

화려한 역사와 공간으로 떠나는 음악여행

1800년 나폴레옹이 설립한 '방크 드 프랑세' 내부를 18세기 바로크 풍으로 리노베이션하여 2018년 재개관한 도레(Dorée) 갤러리의 화려한 공간들을 배경 삼아 륄리 · 라모 · 쿠프랭 · 보케리니 · 샤르팡티에 · 비발디 · 바흐 · 하이든 등의 음악을 앙상블 '르 콩세르 드 라 로줴'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영상물(2019년 6월 19일)이다. 프랑스 벨에어가 내놓은 2019년 최고의 역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영상물은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 쇼뱅(1979~)이 이끄는 르 콩세르 드 라 로줴와 여러 고음악가들의 활약이 인상적인데, 쿠프랭 건반 독주곡(4트랙),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린 마라이스의 류트 독주곡(7트랙)은 이 영상물의 백미 중 백미이다. 두툼한 해설지(35쪽)는 도레 갤러리의 역사, 내부 장식, 작품을 안내하는 도록 같다.

[보조자료]

– 프랑스의 음악유산을 첨단 영상 기술과 접목해 세계 시장에 내놓고 있는 벨에어의 스페셜 영상물로, 프랑스 도레(Dorée) 갤러리를 무대 공간화 하여 륄리, 라모, 쿠프랭, 보케리니, 샤르팡티에, 비발디, 바흐, 하이든, 모차르트, 헨델의 음악을 앙상블 '르 콩세르 드 라 로줴'의 연주를 담은 영상물이다. 2019년 6월 19일에 촬영된 실황물이다.

– 도레 갤러리는 현재 파리에 위치한 '방크 드 프랑세'에 위치한 갤러리이다. 방크 드 프랑세는 1800년 나폴레옹이 프랑스 화폐 통일을 위한 차원에서 설립한 유서 깊은 건물이다. 일종의 유형문화재로 전승되어오던 건물은 18세기 바로크 풍의 내부 장식과 리노베이션을 통해 2018년 새롭게 태어나, 바르세이유의 거울방처럼 호화로운 장식으로 가득찬 공간으로 개방되었다.

– 이 영상물은 내부의 곳곳을 배경 삼아 여러 작품들을 선보이며, 18세기 왕궁에서 열리는 음악회에 초대 받은 느낌을 제공한다는 데에 큰 묘미가 있다. 영상물 자킷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공간 자체를 내세운 프로덕션인 만큼 카메라 워킹이 음악가들의 연주 행위와 모습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화려한 내부 장식품, 조각과 문양을 적극적으로 비추며 음악과 영상의 화려한 콜라보레이션을 보여주고, 화려한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공간의 풍경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흘러간다는 이점이 있다.

– 공간과 음악의 협업을 애초부터 목적에 둔 협업인 만큼 해설지에는 각 공간에 걸 맞는 음악들을 목차화 해놓았다. 예를 들어 'Ⅰ. 도레 갤러리와 음악'에서는 륄리(1트랙), 쿠프랭(4 · 5트랙)의 음악을 선곡해 듣고, 'Ⅵ. 사냥'에서는 모차르트(10트랙), 장 –바티스타 프랑(11트랙)의 음악을 골라듣도록 하여 공간의 감수성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두툼한 해설지(35쪽)는 도레 갤러리의 역사, 내부 장식, 작품을 안내하는 도록 같다. 음악가들의 사진과 거대한 회화도 담겨 있다. 음악을 맡은 앙상블 '르 콩세르 드 라 로줴'는 2015년에 창단된 단체로 현재 고음악 전문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줄리아 쇼뱅(1979~)이 이끌고 있다. 무엇보다 쿠프랭의 건반 독주곡(4트랙),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마린 마라이스의 류트 독주곡(7트랙)은 이 영상물의 백미 중 백미이다. 프랑스의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역사적 전성기의 왕족 문화에 소비되던 음악들을 면밀히 탐구하는 쇼뱅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선곡, 실제 공간의 풍성한 울림이 반영된 벨에어 특유의 녹음기술이 역사와 첨단의 만남을 선사하다.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Belvedere 08057 **[DVD]**
Belvedere 08058 **[Blu-ray]**

belvedere

2019 잘츠부르크 실황
– 모차르트 부자(父子)의 종교음악

앤드류 맨즈(지휘), 카메라타 잘츠부르크, 잘츠부르크 바흐합창단, 카롤링 샘슨 · 마리안느 키엘란트(소프라노), 벤야민 브룬스(테너), 더글라스 윌리엄(베이스), 미가엘 아이너(오르간)

모차르트 부자(夫子)가 지은 신의 음악

①레오폴트 모차르트의 성모호칭기도(Lauretanae Litaniae)와 ②모차르트의 대미사 K.427이 함께 있는 영상물이다. 2019년 8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기간 동안 국제 모차르트재단(Stiftung Mozarteum) 대극장 실황이다. 두 작품 연주는 모차르트 전문학자 올리히 레이징거(1964~)가 재구성 · 편집한 판본을 사용한다. 그는 잘츠부르크와 그 주변에서 발견된 미사 판본 몇 가지를 비교해, 누락된 부분들을 완성했다. 이러한 고증과정이 해설지(31쪽 분량/영 · 독어)에 가사와 함께 수록됐다. 레오폴트의 숨은 명작, 모차르트의 레퀴엠 K.626과 '양대산맥'으로 통하는 또 하나의 명작을 만나는 감동이 색다르게 다가온다.

[보조자료]

– 모차르트의 아버지인 ①레오폴트 모차르트(1719~1787)의 성모호칭기도(Lauretanae Litaniae) E플랫 장조와 ②모차르트(1756~1791)의 대미사 K.427이 커플링된 종교음악 영상물이다.

– 2019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이 열리는 8월, 국제 모차르트재단(Stiftung Mozarteum)에 위치한 대극장(Groβer Saal) 실황이다.

– 영국지휘자 앤드류 맨즈는 잘츠부르크 바흐합창단과 카메라타 잘츠부르크와 함께 두 종교음악의 새로운 퍼즐을 맞춰 나간다.

– ① 7~8세기부터 널리 알려진 성인호칭기도는 성모의 여러 호칭들을 부르며 바치는 기도이다. 부르는 자는 성모 마리아의 도움으로 신에게 기도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로레토의 호칭 기도(Litany of Loreto)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탈리아 성모성지 로레토에서 16세기에 암송됐던 것이, 순례자들을 통해 각 지역에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레오폴트는 신앙심이 깊었는데, 특히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었고 또 아들 모차르트를 가톨릭의 교리대로 키웠다고 한다.

– ② 모차르트는 빈 시절(1781~1791)에 종교음악을 별로 쓰지 않았다. 그래서 빈 시절에는 종교음악이 소수만 전해지고 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유작인 레퀴엠 K.626이고, 이것에 더하여 대미사 c단조 K.427, 키리에 d단조 K.341, 모테트 '아베 베룸 코르푸스' K.618 정도가 있다. 그 가운데 대미사는 빈에 정착한 초기인 1782년에서 1783년 사이에 작곡한 것으로, 레퀴엠과 더불어 모차르트 종교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꼽힌다.

– 이 공연의 매력은 색다른 악보(판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모차르트 전문학자 올리히 레이징거(1964~)가 재구성 편집한 판본이다. 그는 잘츠부르크와 그 주변에서 발견된 미사 판본 몇 가지를 비교하면서, 기존에 누락됐던 부분들을 완성하였다.

– 이러한 고증작업 과정은 해설지(31쪽 분량/영 · 독어)에 가사와 함께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C Major 734908 **[3DVDs]**
C Major 735004 **[Blu-ray]**

2018 샹젤리제 실황
– 브람스 교향곡 전곡&다큐멘터리 '브람스 코드'

파보 예르비(지휘), 도이치 카머필하모닉 브레멘

그들은 '브람스'를 놓고 어떻게 소통하는가

2018년 4월 4 · 5일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선보인 브람스 교향곡 전곡 실황물로 '속도와 템포의 황태자' 파보 예르비의 위엄과 파격적인 브람스 연주가 담겼다. 2004년부터 캄머필을 이끌고 있는 예르비의 브람스는 그 누구보다도 날렵한 속도감으로 무장되어 있다. 빠르면서 가볍지 않고, 든든하면서도 감각적이다.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 크리스티안 베르거의 '브람스 코드'는 91분 분량(한국자막 제공)의 영상물로, 예르비를 중심으로 악단원들이 브람스를 어떻게 수용하며, 브람스를 놓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다. 해설지(25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브람스 교향곡 해설, 영상 다큐멘터리 소개가 수록.

[보조자료]

–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2018년 4월 4일과 5일에 선보인 브람스 교향곡 전곡 실황물로 '속도와 템포의 황태자' 파보 예르비의 위엄과 파격적인 브람스를 만날 수 있다. 파보 예르비는 2001년 미국 신시내티 심포니 음악 감독으로 부임한 뒤 이 악단을 신흥 명문으로 끌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4년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 2006년 프랑크푸르트 방송교향악단, 2010년 파리 오케스트라 음악 감독, 2015년 NHK교향악단의 수석지휘자 등을 맡게 되며 놀라운 기세로 세계 음악계를 접수했다.

–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은 원전연주와 모던 기법을 혼용하는 작은 구성의 오케스트라이지만, 넘치는 에너지와 장엄한 스케일을 통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1980년 브레멘 음대생을 주축으로 한 이 악단은 1987년 프랑크푸르트를 본거지로 전문 오케스트라로 정식 발족했고, 1992년 브레멘으로 이주했다.

– 마리오 벤자고, 하인리히 쉬프, 이르지 벨로홀라베크, 토마스 헹엘브로크, 다니엘 하딩이 이 악단을 거쳐 갔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예르비가 음악감독을 맡고 있다. 예르비가 취임한 이후 실내악적 접근방식으로 주목받았고, 바로크에서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자랑하며, 특정 장르의 전문가를 초청해 연주하는 전통이 생겼다. 특히 그의 탁월한 음악성과 온화한 리더십은 정단원 39명에 불과한 도이치 캄머 필하모닉을 베토벤 교향곡 연주로 세계적인 악단으로 발돋움시켰다.

– 예르비의 지휘와 연주는 그 누구의 브람스보다 날렵한 속도감이 돋보인다. 빠르면서도 가볍지 않고, 든든한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감각적이다.

– 해설지(25쪽 분량/영 · 불 · 독어)에 트랙, 브람스 교향곡 해설, 영상 다큐멘터리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영상물에서 공연 실황만큼 중요한 것이 유명 다큐멘터리 감독인 크리스티안 베르거가 촬영한 '브람스 코드'이다. 91분 분량(한국자막 제공)으로 예르비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브람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연주해내며, 브람스를 놓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장시간의 필름을 통해 만날 수 있다.

C Major 752208 **[3DVDs]**
C Major 752304 **[Blu-ray]**

2009 로마오페라극장 실황
– 바그너 '트리스탄과 이졸데'

다니엘레 가티(지휘), 로마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안드레아스 쉐거(트리스탄), 레이첼 니콜스(이졸데), 존 렐리(마르크 왕), 피에르 아우디(연출)

바그너의 새로운 음악우주로 안내 받고 싶다면!

2009년 로마오페라극장 실황으로 음악, 연출, 캐스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며 찬사를 받은 공연이다. 빛과 어둠, 도형과 동선 몇 개로 미니멀리즘을 구현한 무대, 바그너로 시작하여 바그너로 명예를 누리고 있는 젊은 성악가 쉐거(트리스탄)과 니콜스(이졸데)의 호흡, 이 공연으로 인해 유럽 최고의 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임을 재증명한 가티의 지휘. 이 영상물(공연)은 바그너의 음악우주로 더욱 깊게 빠지게 하는 무게 추와도 같다. 특히 새로운 '바그너 가수'에 주목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영상물을 택할 것. 해설지(21쪽 분량/영 · 불 · 독어)에 발라티카의 연출 해설은 아우디의 미니멀리즘과 바그너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있는 심도 깊은 글이다.

[보조자료]

– 2009년 로마오페라극장 실황. 다니엘레 가티(1961~)가 지휘봉을 잡고 피에르 아우디(1951~)가 연출한 이 프로덕션은 음악, 연출, 캐스팅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성공작이다.

– 이탈리아 '일 메사제로'로부터 "미니멀리스트 아우디는 원작의 장식을 덜어내고 빈 공간에 상상력을 더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공연이다", 독일 '클라시카인포'로부터 "로마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는 유럽의 그 어떤 극장들보다 최고의 오케스트라임이 증명된 공연이었다"와 "안드레아스 쉐거와 레이첼 니콜스는 최고의 캐스팅이었다", '뉴스애트'로부터 "지휘대에서 가티가 펼친 몰입력과 감정, 효과는 거의 압도적이다" 등의 평을 받았다.

– 빛과 어둠, 깔끔한 도형과 몇 개의 동선만으로 채워진 무대는 음악에 집중하며, 바그너의 음악우주로 더욱 깊게 빠지게 하는 무게 추와도 같다.

– 유럽에서 활약 중인 바그너 전문 가수들의 활약만으로도 보는 내내 감동이다.

– 오스트리아 태생의 안드레아 쉐거(테너)는 오페레타로 경력을 시작했지만, 이내 곧 '트리스탄과 이졸데' '파르지팔' 등을 통해 이 시대최고의 헬덴테너로 성장한 인물이다.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 전속 성악가인 그의 주무대가 라스칼라,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등 오페라의 중심지라는 것을 대변이라도 하듯 강렬한 트리스탄을 연기해낸다.

– 안드레아 쉐거의 빼어난 음악은 레니첼 니콜스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영국 태생의 레니첼은 2012년 영국 롱버러 페스티벌 오페라단이 선보인 '니벨룽의 반지' 전곡 공연에서 브륀힐데 역으로 세상을 놀래켰고, 2015년 같은 오페라단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통해 이졸데 역으로 자리 매김했다. 2016년부터 샹젤리제 극장을 비롯하여 칼스루에 · 슈투트가르트 국립오페라극장, 로마 오페라극장에서 이졸데 전문 가수로 활약 중이다.

– 해설지(21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연출에 대한 해설, 시놉시스가 담겨 있다. 특히 베르나르트 발라티카가 쓴 연출 해설은 아우디의 미니멀리즘과 바그너의 상관관계를 논하고 있는 심도 깊은 글이다.

C Major 752008 **[2DVDs]**
C Major 752104 **[Blu-ray]**

2017 라 스칼라 실황
–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탈출'

주빈 메타(지휘), 라 스칼라 오케스트라 · 합창단, 조르지오 스트렐러(연출), 마우로 페터(벨몬테), 레네케 루이텐(콘스탄체), 자비네 드비에예(블론데), 막시밀리안 슈미트(페드릴로) 외

위대한 연출가가 낳은 전설의 프로덕션은 계속된다

조르지오 스트렐러(1921~1997)가 1965년 초연한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프로덕션의 리바이벌공연으로, 2017년 라 스칼라 극장 실황물이다. 196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초연될 때 29세였던 주빈 메타는 이제 81세 노장이 되어 고인과 함께 나눈 영광을 재연한다. 성악가들의 모습이 그림자극처럼 처리되는 시각적 효과와 실루엣, 궁전 사이로 내다보이는 해안의 푸른색 등이 정갈한 자연주의 화풍을 보는 듯하면서도 모던한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1급의 지휘자와 함께 하는 공연인만큼 라 스칼라와 잘츠부르크 등지에서 활약하는 '특급 성악가'들이 함께 한다.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불어)에는 트랙, 프로덕션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

[보조자료]

– 이탈리아가 낳은 위대한 연출가 조르지오 스트렐러(1921~1997)가 1965년 초연한 모차르트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프로덕션의 리바이벌공연으로, 2017년 라 스칼라 극장 실황물이다.

– 조르지오 스트렐러는 피터 브룩, 로버트 윌슨, 레프 도진, 해롤드 핀터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연극사를 빛낸 이탈리아가 낳은 예술영웅이다.

– 이 프로덕션은 1965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상연되며 전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고, 당시 29세의 주빈 메타가 지휘봉을 잡은 공연이다. 당시 '빛과 실루엣의 훌륭한 사용'이라는 평을 받았던 이유는 지금처럼 영상과 조명 기법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 첨단 시각문화를 무대 넣기 위한 연출가만의 고민이 잘 묻어 있기 때문이다. 중간마다 등장하는 성악가들의 모습이 마치 그림자극처럼 처리되어 시각적으로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 웅장한 궁전 건축과 중앙을 바다가 내다보이는 해안으로 설정한 무대는 정교하고, 성악가는 조명의 연출에 의해 그림자의 묘한 실루엣을 뽐으며 모차르트의 선율을 노래한다. 스트렐러는 미술과 패션의 나라로 칭송받는 이탈리아의 예술적 후예답게 그만큼 시각과 청각에 흥미로운 디테일을 부여하고 있는 프로덕션이다.

– 이러한 명성에 힘입어 스트렐러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1972년부터 라 스칼라에서 정기적으로 재공연되었다. 재공연마다 주로 메타가 지휘봉을 잡아 초연의 흥분을 되살리곤 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영상물로도 재촬영되어 스트렐러의 실험성과 메타의 음악성을 재음미하곤 했다.

– 2017년 라 스칼라 실황을 담은 이 영상물에서 81세의 메타가 명성의 자리를 재연하고 고인이 된 연출가에게 또 다시 영광의 박수를 보낸다. 1급의 지휘자와 함께 하는 무대인만큼 마우로 페터(벨몬테), 레네케 루이텐(콘스탄체), 자비네 드비에예(블론데), 막시밀리안 슈미트(페드릴로), 토비아스 케레어(오스민) 등 라 스칼라와 잘츠부르크 등지에서 활약하는 특급 성악가들이 함께 한다.

–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불어)에는 트랙, 프로덕션 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52408 **[2DVDs]**
C Major 752504 **[Blu-ray]**

2016 로마 실황
– 로시니 '체네렌톨라'

알레조 페레츠(지휘), 로마오페라극장 오케스트라 · 합창단, 세레나 말피(체레렌톨라), 후안 프란시스코 가텔(라미로 왕자), 알렉산드로 코르벨리(돈 마그니피소), 비토 프리안테(단디니), 엠마 단테

새로운 연출로 다시 태어난 신데렐라

신데렐라를 원작으로 한 '라 체네렌톨라'는 원작과 다르다. 계모 대신 계부가 나오고, 유리구두 대신 팔찌로 임자를 찾는다. 현실주의자였던 로시니는 동화의 신비로운 설정들을 다 걷어냈다. 하지만 엠마 단테의 연출은 환상적 동화극이나 인형극을 연상시킨다. 동화책 같은 색채, 성악가들의 의상에 설치된 태엽은 이들을 하나의 인형으로 바라보게 한다. 2016년 로마 오페라극장 실황, 타이틀롤 세레나 말피(b.1985)의 활약이 돋보인다. 파리오페라에서 같은 역할(2013)로 인해 얻은 명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알레조 페레츠의 지휘는 "뛰어난 앙상블과 로시니 특유의 분위기와 리듬감을 잘 살린 연주"라는 평(라 나지오네)을 받았다.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불어)에는 트랙, 작품소개가 수록.

[보조자료]

–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는 로시니가 작곡한 2막의 오페라부파이다. 샤를 페로의 동화 '신데렐라'와 같은 주제의 대본들을 기초로 자카보 페레치가 이탈리아어 대본은 완성했다. 작품은 1817년 1월 로마극장에서 초연되었다.

– '라 체네렌톨라'에서 동화의 일부가 변경되었는데, 현실주의자였던 로시니가 오페라에서 마술적이고 마법적인 장면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동화의 계모와 마법사 대신, 계부 돈 마그니피소(알렉산드로 코르벨리)와 철학자 알리도로(우고 구아글리아르도)를 설정했다. 계부가 친딸들을 감싸고, 의붓딸인 체네렌톨라를 구박하는 설정이다. 또한 동화는 유리구두로 왕자가 임자를 찾지만, 여기서는 팔찌로 라미로 왕자(후안 프란시스코 카텔)가 체네렌톨라를 찾는 설정이다.

– 하지만 엠마 단테의 연출은 로시니의 의도와는 반대로 일종의 환상적 동화극이나 인형극을 연상시키는 무대로, '오페라 나우'지로부터 "로시니의 매력과 완벽하게 공존하면서도 클래식음악에 대한 현대적인 비전을 제시한 인상적인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성악가와 연기자들의 의상 뒤에 설치된 태엽은 이들을 하나의 인형으로 바라보게 한다.

– 2016년 로마 오페라극장 실황, 타이틀롤을 맡은 세레나 말피(b.1985)는 이탈리아 태생의 메조소프라노로 모차르트와 로시니 스페셜리스트로 활약 중이다. 이 영상물은 2013년 파리오페라에서 같은 역할을 선보이며 유럽 오페라계에서 영예를 얻은 그녀의 활약상을 다시 한 번 만나볼 수 있다. 상대역을 맡은 후안 프란시스코 가테(b.1978) 역시 벨칸토 전문 성악가로 활약하고 있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테너이다.

– 알레조 페레츠의 오케스트레이션은 '라 나지오네'지로부터 "뛰어난 앙상블과 로시니 특유의 분위기와 리듬감을 잘 살린 연주"라는 평을 받았다. 해설지(21쪽 분량/영 · 독 · 불어)에는 트랙, 작품소개가 수록.

C Major 753008 **[DVD]**
C Major 753104 **[BD]**

2016 빈 실황
–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 음악 여행'

요한 빌크너(지휘), 빈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오스트리아의 명승지와 함께 하는 왈츠

빈 무지크페어라인 실황(2016)에, 오스트리아 명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요한 빌트너(지휘)의 해설이 중간마다 함께 하고, 오스트리아 명소의 풍경이 공연장과 교차 편집되어 있는 획기적인 영상물이다. 슈트라우스 일가의 대표적인 왈츠와 대표곡 13곡이 수록. 그중 초연된 '오케스트라 환타지'는 첫 레코딩이기도 하다.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는 1966년 창단 시 빈 심포니 · 빈 라디오 심포니의 단원들로 구성된 전통과 역량을 잇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매년 말과 연초에 투어를 진행한다. 작품 연주에 42인조가 적합하다고 생각한 슈트라우스의 뜻에 따라 42인조로 구성됐다. 두툼한 해설지(37쪽/독 · 영어)는 마치 왈츠곡 사전처럼 상세하게 잘 나와 있다.

[보조자료]

– 왈츠의 명가 슈트라우스 가문의 음악적 전통을 잇고 있는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는 오스카 고거와 오스트리아 공영방송(ORF)의 후원으로 1966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빈을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 창립 시 요한 슈트라우스의 조카인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2세(1910~1969)가 첫 지휘자를 맡았고, 단원들은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선출되어 음악적 우수성을 갖추었다.

–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2세(요제프 슈트라우스)부터 시작된 해외 투어는 오늘날 이 악단의 명성을 증명해준다. 아시아에도 그 명성을 인정받아 매해 연말부터 이듬 해 초까지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한국에 투어 공연을 갖곤 한다.

–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가 이번에 내놓은 영상물은 굉장히 획기적이다. 기존과 같이 무지크 페어라인에 오른 공연 실황(2016)이지만, 중간마다 지휘자 요한 빌트너의 해설이 곁들여지고,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풍광이 함께 흐르기 때문이다.

– '오스트리아 음악 여행'이라는 제목을 내건 만큼 드론을 이용하여 도심과 자연의 풍경을 아름답게 펼쳐낸다. 자연 위로 음악이 흐르다가 무지크페어라인으로, 혹은 그 반대로 자연스레 이어지면 오스트리아 정서를 느끼게 된다. 빌트너의 해설은 공연 중간마다 진행되는 게 아니라 명승지에서 개별적으로 촬영되었다.

– 요한 슈트라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오케스트라인만큼 슈트라우스 일가의 작품 일색이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①오페레타 '집시 남작' 서곡 ④왈츠 Op.354 ⑤빠른 폴카 Op.324 ⑨파스만섬의 기사 Op.441 ⑫왈츠 Op.314 ⑬빠른 폴카 Op.228, 에두아르트 슈트라우스 1세의 ② 빠른 폴카 Op.238 ⑪빠른 폴카 Op.251, 요제프 슈트라우스의 ③ · ⑥'오케스트라 환타지' ⑦역동적 폴카 Op.57 ⑧왈츠 Op.173 ⑩피치카토 폴카, 요한 슈트라우스 1세의 ⑭왈츠 Op.228로 되어 있다(※번호는 트랙번호). 이중 '오케스트라 환타지'(③⑥)는 발굴된 후 이 공연에서 초연된 곡이자 첫 레코딩이기도 하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는 자신의 작품을 42인조의 악단이 연주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뜻을 잇고자 이 오케스트라는 42인조로 구성되어 있다.

– 두툼한 해설지(37쪽 구성/독 · 영어)에는 상세한 곡목해설이 들어가 있어서 마치 왈츠 사전 같다.

Dynamic

www.dynamic.it

Dynamic 37844 **[DVD]**
Dynamic 57844 **[Blu-ray]**

2019 피렌체 실황
– 오펜바흐 '대문 밖의 남편'

발렐리오 갈리(지휘), 마지오 무지칼레 오케스트라, 앙리 마르텔(집행관), 마테오 메차로(플로레스탄), 마리나 오기(수잔느), 프란체스카 벤니테츠(로지타), 루이지 디 간지 · 우고 지아코마치(연출)

이탈리아 희극 전통의 옷을 입힌 웃음의 문제작

오펜바흐(1819~1880) 탄생 200주년을 맞아 2019년 2월 피렌체 마지오 무지칼레에서 선보인 실황이다. 집행관에게 쫓기는 음악가 플로레스탄이 갓 결혼한 집행관의 아내 침실에 숨게 되면서 진행되는 헤프닝을 담고 있다. 오펜바흐 특유의 폴카, 마주르카, 왈츠 선율이 흐르고, 무반주에서 진행되는 대사(징슈필)와 풍부한 오케스트라로 되어 있다. 작품보다 유명한 것은 삽입된 아리아 '티롤의 왈츠'(트랙5)이다. 한때 조수미도 이 노래의 대명사로 팬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다. 두 연출가의 협업은 희극적인 내용에 걸맞게 한편의 음악 코미디로 만들어간다. 해설지(12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 트랙, 작품해설수록, 보너스 필름(3:43)에 지휘자 발렐리오 갈리, 두 연출가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보조자료]

– 오펜바흐(1819~1880) 탄생 200주년을 맞아 피렌체의 마지오 무지칼레에서 선보인 오페레타 '대문 밖의 남편' 2019년 2월 공연 실황이다. '대문 밖의 남편'은 1859년 초연된 작품이다.

– 작품은 프랑스 사회에 대한 조롱과 풍자를 담고 있다. 집행관(앙리 마르텔)에게 쫓기는 음악가 플로레스탄(마테오 메차로)는 결혼식을 갓 치른 수잔느(마리나 오기)의 침실에 갇히게 된다. 수잔느는 침대 밑에 모르는 남자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로부터 벌어지는 해프닝들이 웃긴 장면들로 이어진다. 수잔느의 친구 로지타(프란체스카 벤니테츠)도 플로레스탄을 발견하지만, 플로레스탄은 그 방을 무사히 탈출하고야 만다.

– 오펜바흐는 오해와 쫓고 쫓기는 관계 속에서 긴장과 웃음의 꽃을 피운다. 그 특유의 폴카, 마주르카, 왈츠 선율이 흐르고 화려한 음악이 연이어진다. 작품은 무반주에서 진행되는 대사(징슈필), 풍부한 오케스트라, 화려한 선율로 구성되어 있다.

– 이 작품은 내용이 주는 재미에 비해 잘 오르지 않는다. '세계 최초 영상레코딩'을 실천하고 있는 다이나믹 레이블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물로 만날 수 없었을 것이다.

– 하지만 삽입된 아리아 '티롤의 왈츠'(트랙5)만큼은 그 명성이 매우 높다. 한때 조수미도 이 노래의 대명사로 팬들에게 회자된 적이 있다.

– 연출에는 루이지 디 간지, 우고 지아코마치 두 사람이 함께 했다. 이탈리아 마체라타 오페라 페스티벌 등 여러 페스티벌과 프로덕션에서 공동연출자로 활동하고 있는 두 사람은 희극적인 내용에 걸맞게 한편의 음악코미디로 만들어간다. 특히 강한 색조와 원색의 분장은 두 연출가가 이어가고자 하는 이탈리아 코메디 델아르테의 분장과 캐릭터를 차용한 것이다.

– 해설지(12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트랙, 작품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보너스 필름(3:43)에는 지휘자 발렐리오 갈리, 두 연출가의 인터뷰가 수록되었다.

Dynamic 37850 **[2DVDs]**
Dynamic 57850 **[Blu-ray]**

2019 파르마 실황:
파에르의 오페라 '아그네스' [세계초연]

디에고 파졸리스(지휘),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 오케스트라 · 합창단, 아그네스(마리아 레이 졸리), 에드가르도 로차(에르네스토), 마르쿠스 베르바(우베르토), 필리포 모라세(병원장), 안드레아 지오반니(의사), 레오 무스카토(연출)

거대한 약품 상자 속의 연인과 아버지

19세기 이탈리아 오페라를 주도했던 페르디난도 파에르(1771~1839)의 숨은 명작 '아그네스'의 실황(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2019.3)이다. 거의 초연으로 선보이는 프로덕션과 같다. 무스카토(연출)는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애인 에르네스토와 함께 도망간 딸 아그네스. 그로 인해 정신병을 얻은 아버지 우베르토는 정신병원에 입원하지만, 결국 딸과 애인이 돌아와 회복한다. 진찰실과 병실은 거대한 의약 상자 내부를 배경으로 한다. 묘한 분위기다. 연인들이 갈등 뒤에 화해하는 장면(66~70트랙)에서 마리아(아그네스)와 로차(에르네스토)의 역량이 폭발하며 성악가는 물론 숨은 명작의 또 다른 매력을 접할 수 있다. 해설지(20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 작품해설 수록.

[보조자료]

– 오페라 역사에 있어서 페르디난도 파에르(1771~1839)는 19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이탈리아 오페라를 주도한 인물이다. 21세에 파르마 궁정상임지휘자로 활약한 그는 비엔나에서 베토벤을 만난다. 그로부터 깊은 인상을 받은 후 베토벤 스타일의 신고전주의 음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빈에서 자신의 음악을 연구하고 개발하던 그는 드레스덴 궁정상임지휘자를 거쳐 파리로 가서 활약했다. 1820년부터 여러 제자를 양성했는데, 리스트도 그중 한 명이다.

– '아그네스'는 1809년 파르마에서 초연된 오페라세리아이다. 이 영상물은 그동안 실연으로 보기 힘든 '아그네스'를 손질해 2019년 3월 테아트로 레지오 토리노에서 선보인 실황을 담은 것이다. 20세기 근대를 기점으로 볼 때, 거의 초연이나 다름없는 프로덕션이다.

– 레오 무스카토가 연출한 '아그네스'는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한다. 우베르토(마르쿠스 베르바)의 딸 아그네스(마리아 레이 졸리)는 애인 에르네스토(에드가르도 로차)와 함께 도망친다. 이 일로 인해 우베르토는 미쳐버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한다. 돈 파스콸로 정신병원장(필리포 모라세), 돈 기롤라모 의사(안드레아 지오반니)는 우베르토에게 딸 찾는 일을 도와준다고 한다.

– 한편 아그네스는 에르네스토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진다. 아그네스는 아버지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에르네스토도 자신의 일을 반성하고 아그네스에게 용서를 구한다. 이러한 결말에 이르러 아버지도 우베르토도 제 정신을 회복한다.

– 현대사회를 배경으로 했지만 무스카토는 동화적인 배경과 설정을 곁들인다. 돈 파스콸로의 진찰실이나 우베르토의 병실은 거대한 의약 상자 내부를 배경으로 했다. 마치 거대한 세상 속의 작은 인간 같다.

– 타이틀롤의 마리아 레이 졸리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소프라노이다. 초반에는 평범한 모습으로 무대에서 일관하다가 점점 짙어지는 감성과 목소리의 색조를 보여준다. 영상물 주 아그네스와 에르네스토가 화해하는 장면(66~70트랙)에서 마리아(아그네스)뿐만 아니라 로차(에르네스토)의 역량이 폭발하며 이탈리아 오페라의 또 다른 매력을 접하게 된다. 해설지(20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 작품해설수록.

Dynamic 37863 **[DVD]**
Dynamic 57863 **[Blu-ray]**

2019 피렌체 마지오극장 실황
– 레온카발로 '팔리아치'

발레리오 갈리(지휘),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오케스트라, 발레리아 세페(넷다), 안젤로 빌라리(카니오), 김한결(실비오), 다비드 세코니(토니오), 루이지 디 간기 · 우고 지아코마치가(연출)

새로운 바리톤 탄생! 김한결

2019년 9월 실황으로,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Maggio Musicale Fiorentino) 극장의 2019년 신작 프로덕션이다. 이 공연이 더욱 각별한 이유는 실비오 역의 김한결 때문. 2016년, 이탈리아 메이저 기획사(Stage Door)와 계약한 그는 'Leon Kim'으로 활약하고, 2017년 도밍고 콩쿠르(OPERALIA) 3등과 청중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안젤로 빌라리(팔리아치 역)가 부르는 간판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19트랙)도 일품이지만, 그 전에 펼쳐지는 김한결(실비오 역)과 발레리아 세페(넷다 역)의 2중창(12~15트랙)이 훨씬 인상적이다. 보너스 트랙(4분/한국어 자막 제공)에는 두 연출가 간기 · 지아코마치의 인터뷰가 수록. 해설지(12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시놉시스 수록.

[보조자료]

– 루게로 레온카발로(1857~1919)가 작곡한 '팔리아치'는 낭만주의를 배격하고 현실을 얘기하는 베리스모 오페라답게 실화가 바탕이다.

– 1870년대 성모승천축제(8월15일) 때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극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유랑극단을 이끄는 카니오의 아내이자 배우인 넷다가 실비오와 눈이 맞자, 격분한 단장이 공연이 상연되는 무대에서 관객이 보는 가운데 아내와 그 애인을 죽인다.

– 영상물은 2019년 9월 실황으로, 이탈리아 오페라의 본고장에 위치한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Maggio Musicale Fiorentino) 극장의 2019년 신작 프로덕션이다.

–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는 1933년부터 시작된 축제로 4월 말부터 6월 사이에 개최되었다. 이 축제는 피렌체에 위치한 코무날레 극장(Comunale)과 피콜로 극장(Piccolo)에서 열렸는데, 2011년 마지오 무지칼레 피오렌티노 극장이 개관하면서 이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9년 극장 화제작으로, 루이지 디 간기, 우고 지아코마치가 함께 연출을 맡았고, 최근 이탈리아에서 차세대 오페라 지휘자로 각광받고 있는 발레리오 갈 리가 지휘를 맡았다. 보너스 트랙(4분/한국어 자막 제공)에는 두 연출가 간기 · 지아코마치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 이 영상물이 우리에게 더욱 각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넷다의 불륜남 실비오 역의 김한결 때문이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에서 실력을 크게 인정받아 유학 생활 1년만인 2016년, 이탈리아 메이저 기획사(Stage Door)와 정식계약을 맺은 그는 'Leon Kim'이라는 이름으로 경력을 쌓아가고 있다. 2017년에는 도밍고가 개최하는 콩쿠르(OPERALIA)에서 3등과 청중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현지에서 주목한 그의 2019년 활동 중에 '팔리아치'의 실비오 역은 로마 · 제노바 · 몽펠리에 극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안젤로 빌라리(팔리아치 역)가 선사하는 '팔리아치' 간판 아리아 '의상을 입어라'(19트랙)도 일품이지만, 그 전에 펼쳐지는 김한결(실비오 역)과 발레리아 세페(넷다 역)의 2중창(12~15트랙)이 훨씬 인상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 영상물의 분량은 84분으로, 2.0PCM/ DTS-HD 마스터 오디오 5.1의 오디오 옵션이 제공된다. 해설지(12쪽 분량/이탈리아 · 영어)에는 시놉시스 수록.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67798 **[DVD]**
EuroArts 2067794 **[Blu-ray]**

2019 베를린 필 발트뷔네 콘서트 – 소키예프 & 크레바사

투간 소키예프(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마리안느 크레바사(메조소프라노)

베를린 숲속에 흐른 프랑스와 러시아 '이야기'

발트뷔네 콘서트는 시즌 마지막에 '숲의 무대'에서 개최하는 베를린 필만의 콘서트이다.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하는데 이 공연의 2019년 주제는 '이야기가 흐르는 밤'. 현재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프랑스 태생의 메조소프라노 마리안느 크레바사가 라벨의 '세헤라자데'와 '세 개의 시'(※한글자막)를 통해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볼쇼이극장 음악감독인 소키예프는 프로코피예프의 '키제 중위' 모음곡과 '로미오와 줄리엣'으로 '러시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다. 'Conductor Camera(Picture in Picture)' 기능도 있다. 스크린 왼쪽 상단에 소키예프의 정면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 감상의 재미를 더한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베를린 필하모닉의 발트뷔네 콘서트는 '숲의 무대'라는 의미를 지닌 발트뷔네 원형 극장에서 매년 개최하는 한여름의 콘서트다. 연례 시즌 마지막에 오르는 이 콘서트는 베를린 필의 창립일(1892년 5월 1일)을 기념하는 유로파 콘서트와 함께 베를린 필의 대표적인 콘서트로 자리 잡았다. 매년 샤이, 네메 예르비, 세이지 오자와, 마리스 얀손스, 켄트 나가노, 제임스 레바인, 다니엘 바렌보임, 주빈 메타, 클라우디오 아바도 등 세계적이 거장들이 '숲의 무대'의 지휘봉을 잡아 왔다.

– 이 콘서트는 해마다 테마와 주제를 달리 해왔다. 러시아 볼쇼이극장 음악감독 투간 소키예프가 지휘봉을 잡은 2019년의 제목은 '이야기가 흐르는 밤'이다. 소키예프는 2017년 프랑스의 명문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ONCT)와 내한했을 때 언론을 통해 "지휘자는 관객들에게 이야기꾼이 되어 하나의 완결된 스토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지론처럼 한여름의 숲에서 들려오는 한편의 '음악이야기' 같은 무대가 90분동안 펼쳐진다.

– ①프로코피예프의 영화음악 모음곡 '키제 중위' OP.60 ②라벨 '세헤라자데' ③라벨의 '트리스탄 클링조르 시에 붙인 세 개의 노래'(※②, ③한글자막 제공) ④프로코피예프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⑤엘가 '사랑의 인사' ⑥드보르자크 슬라브 춤곡 1번 ⑦파울 링케 '베를린의 공기'가 펼쳐진다. 소키예프는 이야기꾼으로서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한다. '키제 중위' 모음곡은 풍자영화를 위한 음악답게 프로코피예프(①)의 특유의 유머가 흐르고, 마리안느 크레바사의 목소리와 함께 하는 라벨의 작품으로 동방을 여행하고(②) 라벨의 반짝거리는 감각을 만날 수 있다(③). 이번 무대의 중심을 이루며 '로미오와 줄리엣'(④)은 소키예프가 새롭게 직접 엮고 편곡한 '소키예프 버전'으로 남다른 러브 스토리의 향연이다.

– 함께 하는 마리안느 크레바사는 1986년 프랑스 태생으로 에라토(Erato) 레이블 등을 통해 국내에도 잘 알려진 메조소프라노이다. 고음악 스페셜리스트이기도 한 그녀는 평소 보여주는 보이시한 스타일과 완연히 다른 고혹적인 목소리로 시와 음악의 경계를 오간다.

– 'Conductor Camera(Picture in Picture)'를 선택하면, 스크린의 왼쪽 상단에는 정면에서 촬영한 소키예프의 지휘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와 또 다른 감상의 재미를 선사한다. 해설지에는 간략한 곡목이 수록되어 있다.

– 베를린과 베를린 필하모닉의 명물 '발트뷔네 콘서트'는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0개 콘서트를 선별한 박스물이 유로아츠(EUROARTS 2064798)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EuroArts 2064318 **[2DVDs]**
EuroArts 2064314 **[Blu-ray]**

2018 베를린 국립오페라극장 실황 – 라모 〈이폴리트와 아리시〉

사이먼 래틀(지휘),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안나 프로하스카(아리시), 막달레나 코제나(페드르), 엘사 드레이지크(다이안), 레이누트 폰 뮈첼렌(이폴리트), 귀라 오렌트(테제), 올라퍼 엘리아슨(연출 · 무대미술)

래틀의 바로크, 엘리아슨이 펼치는 빛의 마술

라모(1683~1764)의 최초 오페라라 1733년 작품인 〈이폴리트와 아리시〉는 스파르타 국왕 테제(테세우스)의 아들 이폴리트가 적국의 후예 아리시와의 사랑을 담은 이야기다. 국왕의 후처 페드르와 겪는 오해를 벗어나 이폴리트는 결국 아리시와 사랑을 이룬다. 영상물은 2018년 12월 베를린 슈타츠오퍼 실황으로, 래틀과 막달레나 코제나(페드르) 부부의 합이 돋보인다. 연출을 맡은 설치미술가 올라퍼 엘리아슨은 국내에도 메가톤급 초청 전시를 치른 적이 있는 유명 작가다. 출연진 의상을 작품화하여 시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미지들로 무대를 채운다. 의상이 강한 조명에 반사되어 어둠을 비추는 반사경의 세계는 그의 시그니쳐 중 하나. 해설지(23쪽 분량)에는 트랙, 시놉시스, 연출가 및 지휘자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오페라 〈이폴리트와 아리시〉는 라모(1683~1764)의 1733년 작품으로, 라모 최초의 오페라이다. 프롤로그와 5막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작곡되던 해에 파리에서 초연되었다.

– 스파르타를 배경으로 한 〈이폴리트와 아리시〉의 줄거리는 그리스 신화의 히폴뤼토스 신화와, 라신의 비극 〈페드르〉를 기본으로 한다. 국왕 테제(테세우스)의 아들 이폴리트는 아버지가 멸망시킨 나라의 후계자나 마찬가지인 아리시를 사랑한다. 하지만 이폴리트가 자신의 후처인 페드르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오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신에게 이폴리트를 죽여달라고 소원을 비는데, 그 이후 자신이 끔찍한 오해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폴리트는 아리시와 재회하며 해피엔딩을 맞게 된다.

– 이 공연은 2018년 12월 베를린 슈타츠오퍼 실황이다. 사이먼 래틀이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국립오페라 합창단을 지휘하며, 그의 아내인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제나가 페드르 역으로 출연하여 남편의 지휘와 합을 맞춘다.

– 프랑스 바로크 오페라의 정수를 담고 있는 〈이폴리트와 아리시〉는 웅장한 춤과 합창 장면으로 관객을 압도하며, 래틀은 라모 특유의 참신하고 때로는 불협화음인, 매우 화려하면서도 복잡한 리듬과 극적 강도를 음악적 상상력과 함께 선사한다.

– 무엇보다도 설치미술작가로 유명한 올라퍼 엘리아슨이 연출을 맡았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할 지점이다. 엘리아슨은 2016년 국내의 삼성미술관 리움, PKM 갤러리에서 작품을 선보여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다. 무대를 꾸미기보다는 성악가와 출연진의 의상을 작품화하여 시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이미지들로 무대를 채운다. 성악가들이 움직이거나 노래할 때마다 강한 조명에 반사되어 어둠을 비추는 반사경의 세계는 놀랍기만 하다. 빛, 물, 공기 등 원소 물질을 사용하는 조각과 설치미술에 빠져 있는 엘리아슨의 '오페라 전시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해설지(23쪽 분량)에는 트랙, 시놉시스, 연출가 및 지휘자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4498 **[DVD]**
EuroArts 2064494 **[Blu-ray]**

2018 바덴바덴 축제극장 실황
– 슈트라우스 '돈 주앙' · 베르크 '7개의 초기 노래' 외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엘리나 가랑차(메조소프라노)

가랑차의 20세기 가곡 선곡집'이라 해도 좋다!

1998년 오픈한 바덴바덴 축제극장의 부활절 페스티벌은 유럽음악계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이 극장은 공공지원을 한푼도 받지 않는 극장으로, 이를 위해 우수한 공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래틀과 베를린 필은 이러한 라인업을 대표하는 공연 중 하나였다. 2018년 3월, 바덴바덴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으로 ①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돈 주앙' ②베르크 '7개의 초기 노래' ③라벨 '세헤라자데' ④스트라빈스키 '페트로슈카'(1947 버전)이 수록되어 있다. 20세기 전후를 예고하고 이끌어간 작품들을 선곡한 래틀의 센스가 돋보이는 무대이지만, '엘리나 가랑차의 20세기 가곡 선곡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랑차의 활약이 돋보인다.

[보조자료]

– 1998년 문을 연 독일 바덴바덴 축제극장(Baden–Baden Festspielhaus)의 부활절 페스티벌은 바덴바덴의 명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유럽의 오페라 극장은 대부분 국가나 시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바덴바덴 축제극장은 정부 지원금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 채산제로 운영되는 유럽 최초의 민영 오페라 극장이다. 공공 부문의 지원을 한 푼도 받지 않는다. 티켓 판매 수익이 총예산(1400만 달러)의 60%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우수한 공연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래틀과 베를린 필은 이러한 라인업을 대표하는 공연 중 하나였다.

– 이 영상물은 2018년 3월, 바덴바덴 부활절 페스티벌 실황으로 ①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돈 주앙' ②베르크 '7개의 초기 노래' ③라벨 '세헤라자데' ④스트라빈스키 '페트로슈카'(1947 버전)이 수록되어 있다. 영상의 막이 오르면 바덴바덴 시와 축제극장을 전경을 만나게 된다.

– 사이먼 래틀과 라트비아 출신의 메조소프라노 엘리나 가랑차가 선보이는 이 작품들은 20세기 초의 음악들로, 20세기 음악의 신기원이자, 이른바 '모더니즘의 새벽'에 위치한 작품들이다.

– 슈트라우스 '돈 주앙'이 시원한 연주로 문을 열면, 이날 무대의 프리마돈나 가랑차가 함께 하는 베르크 '7개의 초기 가곡'이 펼쳐진다.

– 베르크(1885~1935)의 이 작품은 그가 쇤베르크 문하에 있던 1905~1908년에 완성된 작품이다. 피아노 반주와 함께 하는 노래로 태어났으나, 1928년 오케스트라가 함께 하도록 편곡되었다. 작품의 곳곳에서 말러, 유고 볼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데, 그중 슈트라우스의 체취가 가장 강하다. 이 곡이 연주되기 전에 슈트라우스의 '돈 주앙'을 선보이는 래틀의 센스가 빛을 발한다. 1번 '밤'에서는 드뷔시의 체취도 느낄 수 있으며, 2곡 '갈대의 노래', 3곡 '나이팅게일', 4곡 '꿈 속에서 왕관을 쓰고', 5곡 '방 안에서', 6곡 '사랑의 찬가', 7곡 '여름날' 순이다.

– 라벨 '세헤라자데'는 1곡 '아시아', 2곡 '황홀한 피리', 3곡 '무관심한'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연가곡이다. 낭송체의 작품을 가랑차는 정확한 발음과 고풍스러운 색채로 래틀과 한 호흡을 이뤄나간다.

– 이 영상물은 '가랑차의 20세기 가곡 선곡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랑차의 활약이 돋보인다. 트랙소개, 단원명이 수록된 해설지가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2065214 **[Blu-ray]**

덴마크 심포니
– SF영화음악콘서트 '갤럭심포니'

앤서니 헤르무스(지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 코펜하겐 실내합창단 · 힘니아 실내합창단, 다비드 바테손(성우 · 나레이션)

진정한 SF영화의 마니아는 이 영상물로서 완성된다!

2018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등 세계적인 게임음악콘서트를 선보여 화제를 낳았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이 2019년에 SF영화의 수록곡을 화려한 무대 연출과 함께 선보인 실황물이다. 스페이스 오딧세이, 아바타, 에이리언, 블레이드 러너, 인터스텔라 등은 물론 SF영화의 '클래식'이라 할 수 있는 스타워즈 시리즈의 여러 음악을 모음곡으로 선보이며 많은 이들을 사로잡은 이 영상물은 무대도 디자인과 조명 효과 역시 환상적이어서 한편의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듯하며, 성우 다비스 바테손이 직접 출연하여 영화 '히트맨'의 에이전트47(47 요원)의 목소리를 연기하기도 한다.

[보조자료]

– 2018년 8월 코펜하겐 콘서트홀에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바이오쇼크' 등 게임 속 배경음악을 선보이며 화제가 낳았던 덴마크 국립교향악단(방송교향악단)이 이번에는 SF 영화에 등장하는 클래식과 OST를 선보여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 ①'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스페이스 오딧세이) ②아바타 모음곡(아바타) ③에이리언 테마(에이리언) ④블레이드 러너 모음곡(블레이드 러너) ⑤인터스텔라 모음곡(인터스텔라) ⑥'디바의 춤'(제5원소) ⑦스타트렉 멜로디(스타트렉) ⑧'노 이스케이프'(혹성탈출) ⑨스타워즈 메인테마 ⑩루이크와 레이아 테마 ⑪황제의 행진(스타워즈 에피소드4) ⑫피날레와 트론의 방(스타워즈 4) 등 아카데미 오스카상 수상작들의 음악을 모음곡과 메들리로 구성한 17곡이 트랙을 채운다.

– 2019년 말에 출시된 이 영상물은 2019년 최고의 화제작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가 개봉하기 직전에 출시되어 '스타워즈'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다.

– 공상과학영화를 다룬 만큼 공연을 잡아내는 카메라 워킹이나 무대 연출력도 압도적이다. 북유럽을 대표하는 중후한 신사 같은 덴마크 국립교향악단이 이러한 영상미와 끼를 어떻게 숨겨 왔는지 궁금할 정도로 매력적인 순간들이 영화의 한 장면을 선사하는 듯 흘러간다. 무대 역시 시각적 디자인과 조명 효과가 환상적이며, 마치 아이맥스 영화를 보는 듯하다. 종종 영화나 게임음악을 올리는 런던 필하모닉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 헐리우드의 애니메이션에서 활약하는 성우 다비스 바테손이 직접 출연하여 영화 '히트맨'의 에이전트47(47 요원)의 목소리를 연기하기도 한다.

[수록곡]

Also sprach Zarathustra! (From "2001: A Space Odyssey") / Avatar-Suite (From "Avatar")
Alien-Theme (From "Alien") / Blade Runner Suite (From "Blade Runner")
Interstellar Suite (From "Interstellar") / The Diva Dance (From "The 5th Element")
Star Trek-Medley (Music from the Original TV-Series & The Next Generation) / No Escape (From "The Planet Of The Apes")
Star Wars – Main Theme (From Star Wars Episode IV) / Anakin's Theme & Love Theme (From "Star Wars Episode I & II")
Duel Of The Fates (From "Star Wars Episode I") / Luke And Leia Theme (From "Star Wars Episode VI")
The Imperial March (From "Star War Episode IV")/ Yoda's Theme (From "Star Wars Episode V")
Princess Leia's Theme (From "Star Wars Episode IV") / Stars Wars – Finale and Throne Room (From "Star Wars IV")
Cantina Band (From "Star Wars Episode IV")

Naxos www.naxos.com

Naxos 2.110399 **[DVD]**
Naxos NBD0102V **[Blu-ray]**

마린 알솝(지휘/나레이션)과 함께 떠나는 청소년 클래식 입문을 위한 필수 레퍼토리

2017 영국 알데버러 실황
– 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입문"
– 생상 "동물의 사육제",
– 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외

마린 알솝(지휘/나레이터), 브리튼–피어스 오케스트라

청소년 클래식 입문을 위한 필수 레퍼토리

2017년 4월, 알데버러의 스네이프 몰팅스 콘서트홀 실황. 영국 알데버러는 브리튼이 만년에 정착한 곳이자 알데버러 음악제를 시작한 브리튼과 인연이 깊다. 연주를 맡은 오케스트라도 '브리튼'과, 그의 동료였던 피어스의 이름을 따서 그들을 기리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은 청소년용이거나 초심자를 위한 곡들이다. 해설이 작품의 일부를 차지하는 작품들로 마린 알솝의 나레이션은 실제 공연에서 진행되지 않고, 따로 녹화되어 연주가 진행되기 전마다 나온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 라디오 심포니 예술감독으로 활약하는 마린 알솝은 친절하고도 지혜로운 안내자가 되어, 음악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해설지(7쪽 분량/영문)에는 트랙, 간략한 곡목 소개 수록.

[보조자료]

– 영국의 대표작곡가 브리튼은 피어스 등과 함께 영국 오페라그룹을 결성, 그 중심인물로서 기획을 맡았다. 1947년부터는 영국 알데버러에 정착, 1948년부터 알데버러 음악제를 개최하였고, 종신 작위(알데버러 남작)을 받은 최초의 작곡가가 되었다.

– 이 영상물은 2017년 4월, 알데버러에 위치한 스네이프 몰팅스 콘서트홀 실황이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알데버러 페스티벌은 영국 글라인드본 페스티벌과 함께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 마린 알솝이 지휘하고, '브리튼'과 '피어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브리튼–피어스 오케스트라는 20세기 작곡가들이 동물을 소재로 삼거나, 해설 자체가 작품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는 청소년용 명곡을 들려준다.

– ①생상 '동물의 사육제' ②라벨 '어미 거위' 모음곡 ③프로코피에프 '피터와 늑대' Op.67 ④브리튼 '청소년을 위한 오케스트라 입문' Op.34 순이다.

– 마린 알솝의 나레이션은 실제 공연에서 진행되지 않고, 따로 녹화되어 연주가 진행되기 전마다 나온다. 마린 알솝은 볼티모어 심포니의 음악감독 재직 이후 2018년 보수적인 빈 음악계가 선택한 여성 지휘자로 화제가 된 바 있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 "어렸을 때 음악에의 꿈을 막 꾸기 시작할 때 내 방엔 비틀즈 포스터와 번스타인 포스터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지휘자로, 1989년 탱글우드 음악축제 쿠세비츠키상 수상 이후 그가 존경하는 번스타인을 비롯한 오자와 세이지 등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그가 번스타인의 애제자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왜 20세기 작품에 주력하는지 알 수 있다. 연주를 보고 있노라면 번스타인과 같이 번뜩이는 재치와 현장을 중요시하는 감각 등을 느낄 수 있다.

– 해설지(7쪽 분량/영문)에는 트랙, 간략한 곡목 소개가 수록되어 있다.

Naxos 2.110640 **[DVD]**
Naxos NBD0103V **[Blu-ray]**

2018 오페라코미크 실황
– 앙브루아즈 토마 오페라 '햄릿'

루이스 랑귀(지휘), 샹젤리제 오케스트라, 스테판 드고(햄릿), 자비네 드비에이어(오필리어), 로랑 알바로(클라디우스), 실비아 그루포소(거트루트), 키릴 테스테(연출)

원작 뒤집은 오페라, 그것을 또다시 뒤집는 연출

오페라로 된 '햄릿' 중 가장 사랑 받는 앙브루아즈 토마(1811~1896)의 작품으로, 파리 오페라코미크 실황물(2018.12)이다. 테스테(연출)는 미니멀 디자인과 현대식 복장으로 고전비극을 오늘날의 이야기로 탈바꿈시킨다. 영상 · 연극 · 드라마 등의 장르가 고전을 빌미로 어떻게 조우하는지 궁금하면 이 영상물을 택할 것. 배경의 거대한 영상에는 주인공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클로즈업되고, 욕조 속의 오필리어가 목숨을 끊을 때 그 고통은 물의 이미지로 영상을 가득 채운다. 토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지만, 연출가는 슬픔의 추를 달아 무게를 더하고, 발레를 중시하는 프랑스오페라답게 4막에 흥겨운 발레 대목이 나오지만 이를 거둬내고 서사적 전개에 충실한다.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어)에는 트랙, 작품해설, 연출가 · 지휘자 인터뷰가 수록

[보조자료]

– 셰익스피어 원작의 '햄릿'은 여러 작곡가가 오페라로 만든 바 있다. 그중 앙브루아즈 토마(1811~1896)의 작품이 가장 환영 받고 있다. 토마는 독일령이던 메스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낸 프랑스 작곡가다.

– 1막에서 햄릿과 오필리아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사랑보다 부친의 복수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햄릿 역은 '소프라노의 연인' 테너가 아니라 바리톤이 부른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발레를 중요시하는 프랑스 오페라인만큼 화려한 발레가 등장하기도 한다. 원작과 달리 해피엔드로 끝나는 것도 특징 중 하나.

– 오필리어는 조연에 불과하지만, 4막은 오필리아로 인해 빛나는 막이다. 이른바 '광란의 장면'이다. 미쳐버린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1830년대 이탈리아 벨칸토 오페라에 유행한 스타일로 '햄릿'이 초연된 1868년 당시엔 이미 구시대적 유물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토마는 4막 전체를 광란의 장면만으로 가져간다. 그 철지난 오페라문법이 당시에 엄청난 성공을 가져온 이유는 적재적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사랑을 잃고 정신이 나간 그 유명한 비극을 묘사하기에 더 나은 방법은 없었다.

– 그리고 프랑스오페라에서 중요시하는 발레이자 '햄릿'의 하이라이트 발레 대목인 '봄의 축제(La fête du printemps)'가 나오는 것도 4막이다. 오필리아의 광란 장면과 죽음의 장면 뒤에 나온다.

– 이 영상물은 파리 오페라 코미크 2018년 12월 19 · 21일 실황물이다. 연출을 맡은 키릴 테스테는 미니멀한 디자인과 현대식 복장과 대사처리를 통해 고전비극을 오늘날의 슬픈 이야기로 탈바꿈시킨다. 배경에 설치된 거대한 영상에는 슬픔으로 가득찬 주인공들의 눈물 어린 얼굴이 클로즈업된다. 4막에서 오필리어는 물이 가득 찬 욕조에서 목숨을 끊는다. 물속에서 숨이 끊어져가는 고통 역시 배경 영상을 활용하여 물의 이미지로 그려냈다. 연출가는 오필리어를 적극 내세운다. 게다가 그녀의 슬픔을 무겁게 하여 원작이 지닌 해피엔딩에 눈물의 무게를 추가하기까지 한다. 따라서 4막의 흥겨운 발레 대목을 제외하여 마치 한편의 연극, 혹은 영화처럼 그려내고 있다. 토마의 대표작인 오페라를 만나고 싶거나, 혹은 영상 · 연극 · 드라마 등의 여러 장르가 고전을 통해 어떻게 장르적으로 조우하는지 궁금하다면 이 영상물을 택하며 그 현주소를 만날 수 있다.

–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어)에는 트랙, 작품해설, 연출가 · 지휘자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Naxos 2.110639 **[DVD]**
Naxos NBD0101V **[Blu-ray]**

영상다큐 '뤼카 드바르그 – 음악으로'

뤼카 드바르그(피아노 · 출연), 마르탱 미라벨(감독)

2015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달군 천재 탄생과 성장기

11살 전까지 피아노를 만져본 적도 없는 프랑스의 뤼카 드바르그는 독학으로 피아노를 시작했고, 20세 때 본격적으로 공부에 매진한다. 악보 보는 법도 몰랐던 그는 러시아의 셰레 · 스카야를 만나 4년간 공부한 후 2015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4위와 평론가상을 수상한다. 2019년 12월 출시된 영상다큐 '음악으로'는 2015년부터 음악가로 성장하던 2017년까지, 그의 연주와 일상, 인터뷰를 담은 영상물이다. 세계 각지의 공연장에서의 리허설과 콘서트 모습은 물론 작곡과 재즈 즉흥연주에도 능한 그의 천재적인 모습들을 만날 수 있다. 다큐는 84분 분량. 보너스 필름에 ①듀크 엘링턴 '카라반' ②니콜라이 메트너(1880–1951) 피아노 소나타 Op.5(14:46) 연주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뤼카 드바르그는 국내에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미 전세계적에선 대환영을 받고 있는 프랑스 피아니스트이다.

– 그가 2015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4위에 입상했을 때에 연주력과 명성과 함께 떨친 것은 그의 성장기이다. 11살이 되기 전까지 피아노를 만져본 적도 없는 드바르그는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2악장을 듣고 피아노의 매력에 빠져 독학을 시작했다. 그러나 17세에 피아노를 완전히 그만두고 문학공부를 하다가, 20세 때 본격적으로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악보 보는 법도 몰랐던 그는 러시아 스승 레나 셰레 · 스카야를 만나 4년간 피아노 공부를 한 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 나가 4위를 차지하며 모스크바 음악평론가협회로부터 평론가상을 수상했다.

– "글렌 굴드의 모스크바 공연과 반 클라이번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 이후 이만큼 화제가 된 외국 피아니스트는 없었다"(허핑턴포스트 프랑스)는 평을 들은 드바르그는 글렌 굴드와 스비아토슬라프 리히터, 반 클라이번에 비견되는 21세기 신예 피아니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2019년 12월 전세계로 출시된 영상 다큐멘터리 '음악으로'는 차이콥스키 콩쿠르가 있던 2015년부터 음악가로 성장하던 2017년까지, 드바르그의 연주, 일상, 인터뷰를 담은 영상물이다. 바이마르, 살레르노, 모스크바, 시카고 등에서 갖는 리허설과 콘서트의 과정은 물론 작곡과 재즈 즉흥연주에도 능한 그의 천재적인 모습들이 인상적이다.

–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 이전에 실제로 그는 재즈와 즉흥연주로 단련했던 그의 운지법은 독특하다 못해 기이한 주법으로 취급되었고, 실제로 차이콥스키 콩쿠르 당시 심사위원 중의 한명은 정통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그의 연주를 들을 수 없다며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 영상 속에서도 클래식 전용 콘서트홀부터 유서 깊은 재즈바까지, 주인공 드바르그는 경계없이 오가며 그 누구의 신경도 쓰지 않는다. 국내에는 2016년 소니클래식을 통해 발매한 음반을 통해 그의 존재와 천재성이 마니아들 사이에 알려졌다.

– 다큐멘터리 '음악으로'는 84분 분량이다. 보너스 필름으로 ①듀크 엘링턴 '카라반'(12:12) ②니콜라이 메트너

Naxos 2.110653 **[DVD]**
Naxos NBD0104V **[Blu-ray]**

바흐–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

안드라스 시프(피아노)

이 시대 최고의 '바흐 통역가' 시프의 피아노언어

2017년 9월 7일, 런던 로열 알버트홀 실황물로 안드라스 시프가 연주하는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이 약 100분 동안 진지한 감동을 끌어낸다. 시프가 1980년대에 보여준 바흐에 대한 녹음과 연주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과 거대한 눈으로 구성과 뼈대를 드러내는 감각을 이 영상물을 통해 다시 반추할 수 있다. 24곡의 전주곡과 푸가는 하나의 걸림돌 없이 매끄럽고 유려하게 흘러 하나의 곡으로 엮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흐의 얼굴을 드러낸다. 해설지(11쪽 분량/영문)에는 트랙, 작품해설이 수록.

[보조자료] 2017년 9월 7일, 런던 로열 알버트홀 실황물로 안드라스 시프가 연주하는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1권이 약 100분 동안 진지한 감동을 끌어낸다. 수많은 리뷰와 찬사가 쏟아졌는데, '인디펜던트'지는 그저 "놀랍다!"라는 짧은 문구로 이 날의 감동을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시프는 '바흐의 거장'이라는 수사보다 '바흐의 통역가'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자신의 해석을 입혀 관객들에게 바흐 미학을 전달하는 스페셜리스트로 유명하다. 24곡의 전주곡과 푸가는 하나의 걸림돌 없이 매끄럽고 유려하게 흐른다. 간주의 여유를 부리지 않으며, 부드럽게 질주하는 시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4곡을 하나의 곡으로 엮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흐의 얼굴을 드러낸다. 악보의 규칙과 엄격함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조금 색다른 바흐를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영상물이다. 해설지(11쪽 분량/영문)에는 트랙, 작품해설이 수록.

Naxos 2.110654 **[DVD]**
Naxos NBD0105V **[Blu-ray]**

바흐–평균율 클라비어곡집 2권

안드라스 시프(피아노)

이 시대 최고의 '바흐 통역가' 시프의 피아노언어

2018년 8월 29일, 런던 로열 알버트홀 실황물로 안드라스 시프가 연주하는 바흐 평균율 클라비어곡집 2권이 약 142분 동안 진지한 감동을 끌어낸다. 시프가 1980년대에 보여준 바흐에 대한 녹음과 연주 성과는 주목할 만한 것으로, 작품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과 거대한 눈으로 구성과 뼈대를 드러내는 감각을 이 영상물을 통해 다시 반추할 수 있다. 24곡의 전주곡과 푸가는 하나의 걸림돌 없이 매끄럽고 유려하게 흘러 하나의 곡으로 엮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흐의 얼굴을 드러낸다.

[보조자료] 24곡의 전주곡과 푸가는 하나의 걸림돌 없이 매끄럽고 유려하게 흐른다. 간주의 여유를 부리지 않으며, 부드럽게 질주하는 시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24곡을 하나의 곡으로 엮고, 그 안에서 새로운 바흐의 얼굴을 드러낸다.

– 악보의 규칙과 엄격함보다 개성을 중시하는, 조금 색다른 바흐를 만나고 싶은 이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영상물이다.

Naxos 2.110656 **[DVD]**
Naxos NBD0107V **[Blu-ray]**

2018 빈 실황
– 베버 '오이리안테'

콘스탄틴 트링크스(지휘), 빈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 아르놀트 쇤베르크 합창단, 자클린느 바그너(소프라노), 테레사 크론테일러(에그라틴), 노르만 라인하르트(아들러), 크리스토프 로이(연출)

주연의 존재를 능가하는 조연의 복수극

베버(1786~1826)의 '오이리안테'는 1823년 빈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오늘날에는 그 서곡이 자주 오르고 있다. 기사 아들러는 연인 에그라틴이 있지만 기사 리지알트와는 오이리안테를 놓고 연적의 관계다. 이를 안 에그라틴은 음모를 꾸미고, 그로부터 생긴 오해로 인해 리지알트는 에그라틴을 죽인다. 아들러와 오이리안테의 사이는 회복되며 막을 내린다. 2018년 12월, 오스트리아 데아트르 안 데어 빈 실황이다. 로이(연출)와 레이액커(무대미술)는 무대 양옆은 좁고, 뒤로는 깊게 판 무대를 통해 사랑을 둘러싼 알 수 없는 느낌을 묘한 공간감을 상징화한다. 타이틀롤은 오이리안테로, 당연히 주연이 돋보여야 하지만 오히려 에그라틴 역의 테레사 크론테일러(1979~)에게 빠지게 된다. 영역은 다르지만 타이틀롤보다 더 명성 있는 메조소프라노를 캐스팅하여 기센 조연의 열연을 보여준다. 해설지(19쪽 분량/영 · 독어)에 트랙, 연출가 인터뷰, 시놉시스가 수록.

[보조자료]

– 카를 마리아 폰 베버(1786~1826)의 오페라 '오이리안테'는 1823년 빈에서 초연된 작품이다. 오늘날에는 오페라 전막 공연보다 서곡이 자주 연주되기에 서곡을 통해 잘 알려져 있다.

– 오이리안테(자클린느 바그너)와 두 기사 아들러(노르만 라인하르트), 리지알트(앤드류 포스터–윌리엄스)의 사랑의 이야기이다. 여기에 아들러의 연인 에그라틴(테레사 크론테일러)의 음모가 얽힌다. 에그라틴은 연인 아들러가 오이리안테로 마음이 있음을 알자 죽은 동생의 무덤에서 반지를 꺼내 리지알트에게 오이리안테로부터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준다. 기뻐한 리지알트는 이것을 연적 아들러에게 자랑한다. 아들러는 오이리안테한테 실망하고 에그라틴과의 결혼을 결심한다. 그 때 엠마의 망령이 나타나고 속은 것을 알게 된 리지알트는 분노하여 에그라틴을 찔러 죽인다. 아들러와 오이리안테의 사이는 예전으로 회복되고 행복하게 끝난다.

– 영상물은 2018년 12월, 오스트리아 데아트르 안 데어 빈 실황이다.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한 두 기사의 대결이 펼쳐질 듯하지만, 작품은 오이리안테와 에그라틴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에서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크리스토프 로이(연출)와 요하네스 레이액커(무대미술)는 무대의 양옆은 좁고, 뒤로는 깊게 판 무대를 통해 사랑을 둘러싼 알 수 없는 느낌을 묘한 공간감을 상징화한다. 오이리안테가 베버의 노래와 음악을 들려준다면, 에그라틴은 사건을 교란하고 갈등과 긴장을 배가시키는 연기력과 표현력을 보여준다. 타이틀롤은 오이리안테로 당연히 돋보여야 하는 것은 소프라노 자클린느 바그너이지만, 감상하다보면 테레사 크론테일러(1979~)의 매력에 빠지게 된다. 영역이 다르지만 실제로 타이틀롤의 소프라노보다 더 명성 있는 메조소프라노를 캐스팅하여 기센 조연의 열연을 보여준다.

– 해설지(19쪽 분량/영 · 독어)에 트랙, 연출가 인터뷰, 시놉시스가 수록.

OpusArte www.opusarte.co.uk

OpusArte OA1292D **[DVD]**
OpusArte OABD7260 **[Blu-ray]**

OPUS ARTE

최고의 영상물
2018 로얄 오페라하우스 실황
–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

안토넬라 만나코르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 합창단, 에르모넬라 하오(비올레타), 찰스 카스트로노보(알프레도), 플라시도 도밍고(제르몽), 리차드 아이르(연출)

미니멀리즘 무대에 지친 이들을 위한 최고의 장식미!

2019년 1월 로얄 오페라하우스 실황물로 극단적인 고전미와 장식미를 한껏 살린 고급스러운 무대이다. 황금색의 고급스러움, 붉은색의 농염함, 어둠의 비극이 작품을 채색해나간다. 알바니아 태생의 에르네몰라 야호는 최고의 비올레타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의 한 수 캐스팅이다. 합을 맞추는 찰스 카스트로노보도 이 시대 최고의 리릭 테너의 표상을 보여준다. 그 어떤 영상물보다 고음질과 진정한 서라운드 사운드로 녹음되어 현장감을 살리고 있는 영상물. ①출연진의 작품 소개(4:46), ②연습실 풍경(2:38), ③연출가&디자이너 인터뷰(3:35), ④캐스트 갤러리가 보너스트랙(한글자막)에 담겼으며,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시놉시스, 프로덕션 해설(영문)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라 트라비아타'의 새로운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윌리 데커의 연출작이 미니멀리즘의 극단을 보여주었다면, 2019년 1월 로얄 오페라하우스에 오른 리차드 아이르 연출의 '라 트라비아타'는 데커와 완벽한 대척점에 놓여 있으며, 극단적인 고전미와 장식미를 한껏 살린 고급스러운 무대이다.

– 마치 유럽 고급 살롱을 고스란히 떠내어 무대로 올린 듯하다. 아이르는 황금색으로 고급스러움을, 붉은색으로 농염함을, 그리고 어둠의 주조색으로 베르디 최고의 비극을 채색해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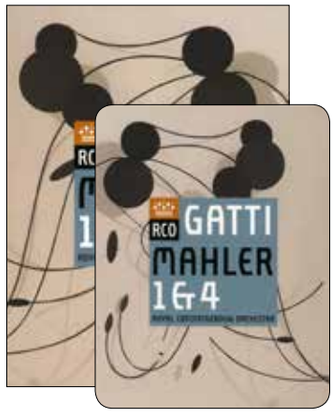
– 최고의 연출에는 최고의 캐스팅이 함께 한다. 제르몽 역의 '도밍고'보다 그 활약과 존재감을 뿜어내는 이는 비올레타 역의 에르네몰라 야호, 알프레도 여의 찰스 카스트로노보이다. 에르네몰라 야호는 알바니아 태생으로 이국적인 마스크를 소유한 소프라노이다. '이코노미스트'지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인정 받는 소프라노"라는 극찬을 받았던 그녀는 "무대 위에서 울어야 한다면 진짜로 울고, 비명을 질러야 한다면 진짜 비명을 지른다"라고 말할 정도로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노래가 강점이다. 이 시대 최고의 비올레타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선보인다.

– 야호와 합을 맞추는 테너 찰스 카스트로노보는 메트로폴리탄, 빈 슈타츠오퍼, 코벤트 가든, 로열 오페라 하우스 등 세계 유수의 오페라 극장에서 자주 무대에 설 정도로 역량이 있는 음악가다. 특히 로미오 역으로 유명할 정도로 서정적인 목소리를 가진 리릭 테너. 잘생긴 마스크로 여성 팬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받는 카스트로노보가 왜 테너계의 아이돌이라는 팬덤이 있는지 이 무대를 통해 과감히 보여준다.

– 오푸스 아르테 레이블 특유의 고음질과 진정한 서라운드 사운드로 녹음되어 현장감을 살리고 있으며, 보너스 트랙은 무대 영상만큼 큰 가치를 지닌다. ①작품 소개에 아이르, 야호, 카스트로노보의 연습장면과 인터뷰(4:46), ②연습실에서 게인 깁슨(안무)의 인터뷰와 연습장면(2:38), ③연출가&디자이너 인터뷰가 수록되었고(3:35), ④캐스트 갤러리가 담겨 있다(전체 한글 자막 제공). 해설지(23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시놉시스, 프로덕션 해설(영문) 수록.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 Live 18107 **[DVD]**
RCO Live 18106 **[Blu-ray]**

2017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실황 – 말러 교향곡 1번, 4번

다니엘레 가티(지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율리아 클라이터(소프라노/교향곡 4번)

말러로 새 역사 다지려는 가티의 출사표

2016/17 시즌부터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CO)를 이끌었던 가티는 말러를 통해 입지를 확실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 영상물은 교향곡 1번(17년 1월 실황)과 4번(17년 11월 실황)을 커플링한 것으로, 음반으로만 접한 실황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영상물이다. 가티 특유의 풍부한 표현력과 힘이 넘치는 음색이 인상적이고, 영상에 잡히는 RCO 상주홀 내의 고풍스런 인테리어, 붉은 카펫 등이 음악청취에 고급스러움을 한결 더한다. 교향곡 4번 4악장 소프라노 율리아 클라이터가 함께 하는데, 바로크와 고전주의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녀의 '후기 낭만주의' 작품 소화력도 접할 수 있다. 해설지(36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작품 해설, 가사(교향곡 4번 4악장)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6/17 시즌에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CO) 예술감독으로 취임했던 다니엘레 가티는 말러의 교향곡 연주와 음반 · 영상물 발매를 통해 입지를 확실히 만들고 있는 중이다.

– 자체레이블을 통해 2018년 3월에 교향곡 4번 음반(2017년 11월 실황)을 내놓은 RCO는 2019년 11월 교향곡 1번(2017년 1월 실황) 음반을 내었다. 이 영상물은 음반으로만 접한 공연 실황을 생생히 접할 수 있는 영상물로 말러 교향곡 1번과 4번이 커플링된 것이다.

– 가티도 아바도, 래틀의 경우처럼 말러 교향곡이 단골 메뉴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발터나 클렘페러의 지휘로 연주된 말러의 교향곡은 그 믿을 수 없이 커다란 감정의 폭과 오케스트라의 넓은 표현력이 아주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 1996년, 뉴욕 필하모닉과 처음 연주를 할 때에도 말러 교향곡 6번을 선택했으며, 로열 필하모닉이 로열 앨버트 홀에서 가진 말러 사이클 역시 그의 그러한 관심을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사이클은 여러 지휘자가 함께 한 공연이었는데, 로열 필의 수석 객원지휘자인 유리 테미르카노프가 교향곡 3번을, 말러 교향곡에 대해서는 특별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길버트 카플란이 교향곡 2번을, 그밖에 주세페 시노폴리가 교향곡 8번과 '대지의 노래'를, 네메 예르비가 말러 청년기 작품인 성악곡과 교향곡 7번을 각각 담당했다. 이러한 '말러 배경'을 안고 있는 그가 최근 진중하게 쏟아내고 있는 말러 음반들과 영상물은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이며, 이 영상물은 그 시작점에 놓여 있다.

– 연주에는 풍부한 표현력과 다양한 음색이 골고루 담겨 있으며, 풍성하고 힘이 넘치는 오케스트라의 음색과 커다란 감정의 폭을 여유로우면서 풍부하게 그려가고 있다. 이 영상물에서 공을 들인 것은 카메라 워킹이다. RCO 상주홀 내의 고풍스런 인테리어, 고급스러운 붉은 카펫, 나뭇결과 붉은색과 감각적으로 교차되는 공연장 내의 적당한 어둠과 연주들의 검은빛 드레스는 음악 감상에 고급스러움을 한결 더해준다. 파트와 솔로를 비추는 카메라도 다량 설치되어 오케스트라 내 곳곳의 숨결을 담아낸다. 교향곡 4번의 문을 여는 경쾌한 썰매 방울 소리는 동심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여, 12월의 연말 분위기를 말러와 함께 즐기도록 한다. 4악장 소프라노 율리아 클라이터가 함께 한다. 민코프스키, 무티, 아르농쿠르, 아바도, 야콥스 등과 협연하며 바로크와 고전주의 레퍼토리에서 두각을 나타낸 그녀의 '후기 낭만주의' 작품 소화력도 접할 수 있다.

– 해설지(36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작품 해설, 가사(교향곡 4번 4악장)가 수록되어 있다.

RCO Live 18103 **[DVD]**
RCO Live 18102 **[Blu-ray]**

2017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실황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살로메'

다니엘레 가티(지휘),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말린 비스트롐(살로메), 랑스 리안(헤롯), 도리스 소펠(헤로디아), 예프게니 니키틴(요하난), 이본 반 호프(연출)

살로메의 피를 묻히고 태어난 역대급 연주와 연출

2017년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 실황으로 가티(지휘)와 호프(연출)의 협업으로 온갖 호평을 끌어낸 최고의 걸작이다. 가티와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가 몰아치는 '슈트라우스 사운드', 호프 특유의 색상, 연극–영화–텔레비전–오페라를 종횡무진하는 하이브리드적인 연출이 빛을 발한다. 특히 호프의 연출은 무대를 양분하여 앞쪽에는 넓은 무대를, 뒤쪽에는 작은 방 하나를 두어 살로메의 갈등(앞무대)로 보여주고, 무의식과 내면(뒤쪽)을 감각적인 조명, 영상으로 나타낸다. 보는 맛이 살아 있다. 게다가 타이틀롤 소프라노 말린 비스트롐의 활약을 통해 우리는 살로메의 '또 다른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거의 전적으로 무대를 이끌어나가며 비극에 비극을 더해나가는데, 중반 후반 가릴 것 없이 힘이 있는 가창과 지치지 않는 연기로 무대를 빛낸다. 해설지(30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작품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2017년 네덜란드 국립오페라극장 실황으로 현재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유럽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다니엘레 가티의 지휘와 이본 반 호프의 연출이 함께 한 프로덕션이다. 두 사람의 호흡은 슈트라우스의 '문제작'을 더욱 뜨겁게 하며 "당신의 인생에서 단 하나의 '살로메'를 보려한다면, 이 무대를 택하라!"(파이낸셜 타임즈)는 평을 받은 프로덕션이다.

– 1905년에 초연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의 오페라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희곡을 기본으로, 헤트비히 라흐만이 대본을 쓴 작품이다.

– 유대의 왕 헤롯(랑스 리안)의 생일 축하연 자리에서 그의 의붓딸 살로메(말린 비스트롐)는 아름다움으로 모두를 매혹시킨다. 감옥에 갇혀 있던 예언자 요하난의 목소리에 매력을 느낀 살로메는 그를 감옥에서 꺼내도록 명령한다. 남편을 살해하고 왕위를 빼앗아 시동생 헤롯과 재혼한 어머니 헤로디아(도리스 소펠)와 왕의 부정함을 통렬히 꾸짖는 요하난(예프게니 니키틴)에게 반해버린 살로메는 그에게 구애하지만 거부당한다. 그러던 중 헤롯이 살로메에게 춤을 추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하고 살로메는 '일곱 베일의 춤'으로 헤롯을 크게 만족시킨다. 이에 살로메는 요하난의 머리를 요구하고 망설이던 헤롯은 결국 약속대로 그 청을 들어주게 된다.

– 다니엘레 가티와 그의 수족인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가 몰아치는 '슈트라우스 사운드'는 피터 반 데르린트의 비평처럼 "정확한 연주와 가티가 점차적으로 긴장을 증가시키는 방식은 거의 견딜 수 없을 정도이다. 그 효과는 압도적이며 청취자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한다."

– 무엇보다 타이틀롤 소프라노 말린 비스트롐의 활약을 통해 우리는 살로메의 '또 다른 탄생'을 목도하게 된다. 거의 전적으로 무대를 이끌어나가며 비극에 비극을 더해나가는데, 중반 후반 가릴 것 없이 힘이 있는 가창과 지치지 않는 연기로 무대를 빛낸다.

– 네덜란드 출신의 연출가 이본 반 호프는 2001년부터 네덜란드 극단 '토닐그룹 암스테르담(Toneelgroep Amsterdam)'의 연출가로서 연극과 영화, 텔레비전과 오페라를 종횡무진 누비며 맹활약하고 있다. 무대를 양분하여 앞쪽에는 넓은 무대를, 뒤쪽에는 작은 방 하나를 두어 살로메의 갈등(앞무대)로 보여주고, 무의식과 내면(뒤쪽)을 감각적인 조명, 영상으로 나타낸다.

– 해설지(30쪽 분량/영 · 불 · 독어)에는 트랙, 작품해설, 시놉시스가 수록되어 있다.

Berliner Philharmoniker LP

www.berliner-philharmoniker.de

BERLINER PHILHARMONIKER

BPHR190262 **[LP 180g, Vinyl] [한정발매]**
Berliner Philharmoniker, Sir Simon Rattle

시벨리우스 교향곡 전집 녹음 [7LP 180g]
한정수량발매

시벨리우스의 신비로운 음악어법을 온전히 개화시키다

사이먼 래틀은 얀 시벨리우스에 대해 "당대에 가장 경이로운 독창성을 가진 작곡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음악에는 독특한 음악어법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서 기인하는 많은 아름다움들이 그의 7개의 교향곡들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낭랑하게 울려퍼지는 따스함만큼이나 절제된 북유럽 민속음악적인 요소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의 음악에는 컨셉에 있어서의 대범함까지 겸비하고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음악적인 발견의 여행을 만끽할 수 있기도 하다. 2015년 작곡가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사이먼 래틀과 베를린 필하모니커는 교향곡 전곡을 연주하여 청중과 평론가들에게 만장일치에 가까운 환호와 극찬을 받았다.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사이먼 래틀은 시벨리우스를 완벽하게 장악했다"라고 베를리너 자이퉁은 리뷰를 실으며 "오케스트라는 엄격하면서도 신랄한 힘을 발산하여 이들 시벨리우스 음악에 중요한 방점을 찍어주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이먼 래틀은 어린 시절부터 얀 시벨리우스 음악과 깊은 유대감을 갖고 있었다. 10세의 소년 래틀은 생전 처음으로 시벨리우스의 교향곡 5번을 듣고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벼락을 맞은 듯한" 전율을 느꼈다고 했다. 베를린 필하모니커 또한 작곡가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로서 1902년 작곡가의 지휘로 그의 교향곡 연주회를 가졌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시벨리우스의 교향곡을 좋아하여 레코딩을 남겼지만 전곡 녹음을 남기진 못했던 바, 사이먼 래틀이 베를린 필하모니커와 함께 2010년 교향곡 3번을 연주한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벨리우스 전곡 사이클을 연주, 녹음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갖게 되었다. 베를린의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이 시벨리우스 사이클과의 만남은 매우 신선한 경험이었다.

CONTENTS :

Jean Sibelius
Berliner Philharmoniker / Sir. Simon Rattle
Symphony No. 1 in E minor, Op. 39
Symphony No. 2 in D major, Op. 43
Symphony No. 3 in C major, Op. 52
Symphony No. 4 in A minor, Op. 63
Symphony No. 5 in E flat major, Op. 82
Symphony No. 6 in D minor, Op. 104
Symphony No. 7 in C major, Op. 105
***Recorded at the Berlin Philharmonie, December 2014 and February 2015*

*** LP 1-7 (180g 바이닐)**
교향곡 1번-7번
연주시간: 228분

*** 부클릿**
하드커버, 44쪽

*** 다운로드 코드**
전체 앨범 오디오 파일 (24 bit / 48 kHz까지)

*** 디지털 콘서트홀**
베를린 필하모닉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7일 티켓

Silk Road LP

www.silkroadmusic.net

Silk Road Music

SRM043LP **[2LP 180g, Vinyl] [한정발매]**

첼로의 성가
아름다운 첼로 선율들로부터 얻는 평화와 안식

쿤라드 블루멘달, 안드레스 디아스, 앤드루 마크(첼로), 발레리 트라이언(피아노)

LP – PreMastering by Hans –Jorg Maucksch at Pauler Acoustics
Direct Metal Master Cut 33 1/3 rpm 180g
Made in Germany

아름다운 첼로 선율들로부터 얻는 평화와 안식

첼로에 대한 인상은 평화로움, 따스함, 안정감, 경건함 등 긍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그래서 첼로 음악에는 마음을 녹이고 위로를 얻는 작품들이 많으며, 기도와 찬양 등의 종교적 의미와 연결되기도 한다. 유대인의 혹은 유대적인 첼로 음악들을 모은 이 음반은 이러한 첼로의 감성이 깊이 담겨있다. 베토벤 이후 가장 뛰어난 첼로 소나타로 손꼽히는 멘델스존의 〈첼로 소나타 2번〉과 포퍼의 〈레퀴엠〉, 브루흐의 〈콜 니드라이〉, 블로흐의 〈기도〉, 라벨의 〈카디시〉 등 아름다운 첼로 선율들이 현대인에게 더없이 필요한 평화와 안식을 선사한다.

[트랙 리스트]

Disc (1) / Side (A)
Felix Mendelssohn-Bartholdy:
Cello Sonata No.2 in D Major, Op.58
1. Allegro assai vivace
2. Allegretto scherzando
3. Adagio

Disc (1) / Side (B)
1. Molto Allegro e vivace

Jacques Offenbach
2. "Andante " from grand duo concertant, Op.43, No.1 (Two 'Cellos')

David Popper
3. Requiem, Op.66 (Three'Cellos and Piano)

Disc (2) / Side (C)
1. "Wie einst in schoner'n Tagen" Op.64

Max Bruch
2. Kol Nidrei, Op.47

Leib Glantz
3. Tal ('Cello Solo) (Arr.By C.Bloemendal)

Ernest Bloch
4. "Prayer" No.1 from Jewish Life

Disc (2) / Side (D)
Maurice Ravel
1. "Kaddisch" No.1 from Deux melodies hebraiques

Paul Ben-Haim : Three Songs Without Words
2. Arioso
3. Ballad
4. Sephardic Melody

Srul Irving Glick5. Prayer and Dance
5. Prayer and Dance

SRM044LP **[2LP 180g, Vinyl] [한정발매]**

라레도의 바이올린 소품집

하이메 라레도(바이올린), 마르고 가렛(피아노)

라레도의 깊은 안목으로 완성된 거장들의 위대한 바이올린 소품들

볼리비아 출신인 하이메 라레도는 7세 때에 미국으로 이주하여 중요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또한 그는 비올라를 연주하기도 하며, 지휘자로서도 크게 성공하였다. 그는 수많은 음반에서 차분한 해석과 음악에 대한 깊은 안목을 보여주었는데, 작은 소품들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타이스〉, 〈유모레스크〉, 〈아베마리아〉, 〈헝가리 무곡〉 등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이 수록되어있는 이 음반에서, 그는 이 곡들을 화려한 '보여주는 음악'(Show Piece)을 넘어, 거장의 완숙한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이것이 거부할 수 없는 라레도의 능력이다.

[트랙 리스트]

[Disc (1) / Side (A)
1. Kreisler: Variations on a Theme by Corelli
2. Faure: Bereuse
3. Massenet: Marsick: Meditation from Thais
4. Dvorak: Humoresque
5. Sarasate: Playera

[Disc (1) / Side (B)
1. Joaquin Nin/ Kochanski: Granadina
2. Schubert/ wilhelmj: Ave Maria
3. Benjamin: From San domingo
4. Villa-Lobos: Song of the Blanck Swan
5. Schubert: The Bee
6. Debussy/ Hartmann: The Girl with the Flaxen Hair

Disc (2) / Side (C)
1. Debussy/ Roelens: Clair de lune
2. Brahms & Klengel: Hungarian Dance No.2
3. Falla & Kochanski: Nana
4. Falla/ Kochanski: Jota
5. Maria theresia von Paradies & Dushkin: Sicilienne
6. Henryk Wieniawski & Kreisler: Etude-caprice in A minor

Disc (2) / Side (D)
1. George Gershwin & Heifetz: Bess, You is My Woman Now
2. Krisler: La Gitana
3. Kreisler: Schon rosmarin
4. Kreisler: Liebesleid
5. Kreisler: Liebesfreud

빈 심포니가 이룩한 베토벤 연주사의
전무후무한 역작
베토벤 교향곡 전곡 5CDs

필리프 조르당 (지휘) &
빈 심포니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던 빈 심포니와 필리프 조르당의
베토벤 치클루스가 드디어 전집으로 완성되었다.
낱장으로 발매될 때마다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빈 심포니 불멸의 역작. 필리프 조르당은 악단을 완전히 장악하여
다양한 표정을 그려낸다. 마치 확장된 실내악을 보는 것 같은 투명한 구조,
음향적인 쾌감을 선사하는 극단적인 다이내믹, 쾌속으로 질주하는 음악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베토벤 전집을 수십 종 보유하고 있는 애호가라도 조르당과 빈 심포니의
이번 베토벤 교향곡 전집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WS018 **[5CDs]**

표지사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 동요 베스트 123 **[4CDs]**

〈아울로스뉴스〉 2020년 2월호
통권 제 82호 발행 2020년 2월 10일
발행인 임용묵
출력 좋은그림
인쇄 (주)투데이아트

발행처 주식회사 아울로스미디어
주소 (04782)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5가길 7
현대테라스타워 E동 1404~5호
전화 02-922-0100(代) **팩스** 02-922-2522
e-mail aulos@aulosmusic.co.kr

홈페이지 www.aulosmedia.c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aulosmedia
블로그 http://blog.naver.com/aulosmedia

*본 책자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은 본사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책자는 아울로스 웹사이트(www.aulosmedia.co.kr)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